



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회의

#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고려말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Gyeoremal-keunsajeon

4	■ 인사말	고은   흠어진 모국어
6	■ 개회사	권재일   우리말 지킴이 겨레말큰사전
8	■ 축사	Victoria Kim   To compile Gyeoremal Keunsajeon is to revive our soul
10	■ 기조연설	조재수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
21		Bronislav Lee   About meaning of Korean language at Central Asia
<hr/>		
	■ 연구발표 I	겨레말큰사전 편찬
26	제1발표	홍종선   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
35	제2발표	김재용   겨레말큰사전과 새 어휘
37	제3발표	Nelly Pak   고려말의 규범(MOOD를 중심으로)
41	제4발표	최호철   남북 언어 표기의 단일화에 대하여
<hr/>		
	■ 연구발표 II	우즈베키스탄 고려말
46	제1발표	Nadejda Hwang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방언(고려말)의 분류와 특징
51	제2발표	Nataliya Kim   CIS 지역에서 한국어 특징에 대하여
<hr/>		
	■ 연구발표 III	고려말의 어휘
54	제1발표	이기갑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어휘
69	제2발표	Valentina Park   고려인 노래를 바탕으로 한 고려말 분석
72	제3발표	Uliyana Kim   고려 사람들이 쓰는 물질 문화 용어
76	제4발표	오봉옥   문학작품과 새말
<hr/>		
	■ 연구발표 IV	고려말과 문학
84	제1발표	김필영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
98	제2발표	Saydazimova Umida   중세 한국의 산문 갈래
114	제3발표	Nina Chikulina   Life Philosophy in A. Kim's story "Nightingale echo"
118	제4발표	Yuldashev Ma'rufjon   The Linguapoetic Peculiarities of the poetry of Vyacheslav Lee

# 흩어진 모국어

고은

겨레말큰사전 이사장, 시인

나는 이곳에 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은 우리 겨레의 울음터입니다. 그 이름이 한족이든 조선족이든 그리고 고려인이든 하나의 말을 가진 겨레를 뜻할 때 바로 이곳이야말로 겨레말의 울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리 근대사는 겨레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겨레가 오랜 삶의 터전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짐으로써 국토 밖의 동서남북의 낯선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逆說的)으로 겨레의 확대이기도 했고 겨레말의 공간이 무턱대고 넓어진 것을 실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 겨레의 제2고향 연해주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강제이주에 의한 중앙아시아 황야가 다시 한번 살아남은 이들의 움막이 되고 밭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실려 오는 동안 죽은 동포의 시신은 화차 밖으로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스탈린의 짐승으로 그렇게 실려 왔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빈 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몸 안에는 기억이 있고 생각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겨레불이 정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있었습니다. 가까져가 있었습니다.

말이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그 이상으로, 말 자체로서의 의미와 모든 가치의 풍부한 유산을 담아 하나하나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런 겨레말을 가지고 온 겨레의 한 부분이 중앙아시아의 우랄 알타이어계(語系)의 겨레말 근원에 닿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들의 정체성(正性)을 벅차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겨레말의 한 성지(聖地)입니다.

지구상에는 아무도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수 없는 말이 태어났고 변화했고 죽어갔습니다. 20세기 후반에야 남아있는 것이 6700여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들도 21세기 후반에는 거의 죽어버린다는 불길한 예측이 엄연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매시간 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 사용자가 한 사람으로 남아있기가 그 사람의 사망과 함께 그 말도 사망한다는 사실을 최근의 조사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수없는 말의 출산지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수 없는 말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의 처절한 생태세계에서 우리 겨레말이 2천5백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은 우리 겨레의 소멸을 막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레말의 의지는 이른바 언어제국주의에 의한 잦은 고초도 받아야 했습니다.

다. 그런 지배언어의 막대한 영향이나 과거 식민지시대의 언어 문자 말살의 정책으로 자칫 겨레말은 타자의 폭력에 의한 희생물이 될 뻔 했습니다.

근대 2백년동안 겨레의 생존은 엄혹한 국내 현실을 벗어남으로써 중국 동북부의 겨레 고토(故土) 복구정서와 러시아령 연해주 개척 그리고 북태평양 하와이와 멕시코 사탕수수 밭 노예노동 식민지시대 일본 각지의 하층 분포와 함께 겨레말의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겨레말은 어머니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 말이 낯선 세계의 삶을 지탱해주는 겨레의 본성(本性)을 지켜냈습니다. 말이란 그것을 사용하는 일로 그 겨레를 정의(定義)하는 첫 번째 실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우리 겨레말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 각지의 분산 및 분단을 극복하는 겨레말의 대결집을 위한 공동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도 그 실체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말은 어느 해 11월 4일까지 존재했다가 그 다음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겨레말은 그렇게 덧없이 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언어 중 10위권에 듭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언어신자유주의에 의한 특정언어의 범람이나 현지언어의 강압에 의해서 겨레말은 나라 안팎에서 위기언어라는 인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실제로 본국 이외의 겨레말은 겨레말 사용의 의미가 주어진 이주 동포 1세대 2천세대대의 그 절실한 겨레말의 애착과는 다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테면 타슈켄트의 고려인계 젊은이들에게 겨레말은 죽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겨레말의 보존과 옹호를 위한 겨레말 사전 편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고민과 열정이 요청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겨레 몇천년 이래 최초로 겨레말의 온전한 편찬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흩어진 어머니말, 떠도는 겨레말이 하나의 커다란 잔치에 모이는 것입니다. 마치 심청전 의 전국 장님대회에 모인 장님들이 심봉사와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눈을 뜨는 그 커다란 감격과도 같이 겨레말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모여 새로운 겨레의 얼로써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한 모퉁에 참여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 우리말 지킴이 《겨레말큰사전》

**권재일**

서울대학교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장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정성껏 만드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사업이 첫발을 디딘 지 어느새 3년 반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오늘 우리 동포들이 우리말의 맥을 이어가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손님들과 동포 학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여러 일들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중앙아시아한국학회의 김 빅토리아 회장님, 그리고 여러 단체의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그동안 남북으로,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흩어진 우리말을 거두어 담아 하나되는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편찬 사업은 매우 뜻깊은 언어학적, 문화적, 민족적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지난 60년간 서로 달라진 남북의 언어를 단일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 사전은 우리말의 미래를 지향하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의 편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길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와 생활 때문에 달라진 남북의 우리말을 하나의 같은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에서 이 사전의 편찬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실을 올림말을 공통적으로 선정하는 일은 언어를 단일화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로 달리 쓰이는 말에 대해 서로가 이마를 맞대고 올릴 수 있는 말, 올릴 수 없는 말을 가려내어 올림말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남북의 학자들은 이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남북이 함께 쓸 우리말 단어를 가려 정한다는 것만으로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림말 선정에서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는 것은, 현재 남한의 사전이나 북한의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찾아 담는 일입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시골 구석 구석에서, 그리고 여러 문학 작품에서 10만에 가까운 단어를 새로 발굴하여 올림말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겨레말큰사전의 큰 의의일 것입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쓰는 우리말도 조사하여 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리말인 고려말에 관심을 가집니다. 고려말은 바로 지금부터 백여 년 전의 함경도지역의 말입니다. 그런데 고려말은 백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당시 우리말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말을 할 줄 아는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절멸 위기의 언어입니다. 우리말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귀중한 문화 유산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말에 깊이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전에 담고자 합니다.

올림말 선정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에서 서로 달라지고 있는 사전의 뜻을풀이를 하나의 같은 기준으로 새롭게 집필하는 일도 매우 값진 일입니다.

현재 남북 양쪽의 사전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흔히 쓰는 명사나 동사의 경우도 그 뜻풀이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같은 말로 뜻풀이하며 보기글도 남북 모두가 받아들이는 문헌에서 가려 뽑아 실어 남북 어느 쪽 사람들이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현재 시범 집필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 모두가 받아들이는 뜻풀이와 보기글의 집필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가장 큰 의의라 생각합니다.

어문규범을 단일화해서 사전의 올림말과 뜻풀이에 반영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어문규범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 후, 이미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 띄어쓰기, 문법 형태 표기, 외래어 표기 등 여러 부문에서 단일 규범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에 따라 우리는 2013년까지는 《겨레말큰사전》을 세상에 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동포 학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관심, 힘찬 격려, 따뜻한 성원을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펼쳐지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편의 학술논문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학자,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학자 모두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말을 영원히 지켜 나가는 학술적 방향을 세워 주시길 기원하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 빅토리아 김

중앙아시아한국학회 회장, 타슈켄트동양학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이 회의에 큰 관심을 갖고 직접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회의임에 틀림없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은 한국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통일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와 해외의 한민족이 쓰고 있는 말과 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말과 글은 우리 문화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민족 분단의 비극은 우리의 언어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언어 이질화와 오염은 우리 공동체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은 우리 민족의 언어를 통합하고 한데 묶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겨레말큰사전은 개인과 지역 그리고 분단된 남과 북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를 감싸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겨레말큰사전은 수 천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언어 유산을 통합하고 한데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편찬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이슈들은 남과 북의 공동 작업을 통해 함께 토론하며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과 북이 이렇듯 뜻 깊은 사전을 함께 창조하는 일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특별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서 부디 그 경험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줄 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내주시고 직접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하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Victoriya Kim

President of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Chair of Korean Studies, Tashkent Stat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 would like to extend special gratitude to all respected audience who take a great interest in this conference. Theme of this conference is very interesting for the Compilation of Gyeoremal-keunsajeon strives to advance and reunify Korean-speaking community by compiling unifie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henceforth reviving spoken and written words Korean people in the Peninsula and overseas sphere.

Spoken and written words are the cultural life of humankind. Humans have created and developed diverse cultures and communities through languages. This is why our spoken and written words are the lifeline of our culture. The tragedy of separation of two Koreas degraded our tongue and the pollution of language has been eroding our collective spirit and threatening our future as one people.

On that account, to work jointly on the Gyeoremal keunsajeon is not only to integrate and compile our words but also to expand the width and depth of our cultural community and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and forward.

Gyeoremal keunsajeon encompasses all the boundaries, between individuals, regions and two Koreas. It is the dictionary that intergrates and compiles our linguistic heritage of thousands of years. It is the joint proje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re all the issues occurring during compilation process will be collaboratively discussed and resolved. To compile Gyeoremal keunsajeon is to revive our soul and to prepare for future together.

Throughout this joint project, I sincerely hope that participants realize all significance of creating such dictionary. I also would like to ask you, distinguished guests, to compare your experience in such work. I hope this conference can come to a splendid success with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also hope that dictionary Gyeoremal keunsajeon will find best practice linguistic measures.

Once again I offer my deepest gratitude to our participants and distinguished guests for sparing their time to grace this opening ceremony with their presence, and my profound thanks to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all related personnels for their efforts. I give my best wishes and good luck to all of you. Thank you.

#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현황

조재수

사전 편찬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실장

## 1. 왜 〈겨레말큰사전〉인가?

최현배(1894~1970) 선생은 ‘겨레’를 ‘결어진(相編된) 것’에서 나온 말로 밝혔다. 한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가리키던 ‘겨레’가 오늘날에는 ‘동포나 민족’을 가늠하는 말로 잘 쓰인다. 한 겨레는 자기의 ‘말’로써 공통성을 유지해 간다. 먹거리, 옷, 집 등은 쉽게 외국 것으로 바꾸어 생활할 수 있으나, 자기의 언어만은 오랜 시일을 두고서도 좀처럼 외국화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겨레의 가장 숙명적인 것이 ‘말’이라고 한다.

고유한 말과 글자를 가진 겨레로서 자기의 말을 풀이한 좋은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말의 뜻풀이 사전을 처음 편찬해 본 것은 1911년께 주시경 선생과 그의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이 집필하다 중단된 〈말모이〉 편찬이었다. 우리가 가져본 초창기의 우리말 뜻풀이 사전은 1930년대의 문세영 저 〈조선어사전〉(1938년/1940년)과 1940년대 조선어 학회가 발간하기 시작한 〈조선말 큰사전〉(1929~1957, 출판 기간 1947~1957)이었다. 우리말 사전을 처음으로 편찬하던 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신음하던 시기였다.

조선어 학회(뒤에 ‘한글 학회’)가 편찬한 〈큰사전〉은 처음으로 통일된 철자법과 표준어 및 일정한 문법 체계를 바탕으로 당시의 우리 언어를 종합적으로 풀이한 사전이었기에, 그 편찬 방식과 내용은 뒷날 우리 사전 편찬에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의 사전 편찬은 불행히도 나라가 분단되어 남과 북이 제 각각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지난 60년 동안 남과 북에서 발간된 주요 국어사전들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남]

〈큰사전〉(한글 학회, 1929~1957년)

〈중사전〉(한글 학회, 1958년)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1961년)

〈새한글사전〉(한글 학회, 1965년)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 외, 1974년)

〈동아 새국어사전〉(두산 동아 사서 편집국, 1990년/2006년)

〈금성판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년)

〈우리말 큰사전〉(한글 학회, 1992년)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년)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년)

[북]

〈조선어 소사전〉(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 1956년)

〈조선말 사전〉(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사전 연구실, 1960~1962년)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69년)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년)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1년)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년)

〈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04년)

〈조선말대사전(증보판)〉(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07년)

사전 편찬의 주체가 남녘은 언어 연구 단체나 기관, 대학, 출판사, 개인들이고, 북에서는 당 산하 언어학 연구 기관이다.

사전의 구성과 내용은, 남에서는 서울 표준어 중심의 일반 어휘와 전문 학술 용어를, 북에서는 평양 문화어 중심의 일반 어휘와 전문 학술 용어를 각각의 어문 규정에 따라 풀이한 것이다.

분단 시대의 우리말 사전은 남과 북의 반쪽 사전이었다. 남과 북은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동질성보다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더 멀어지기 전에 그 모자란 반쪽을 채워 옹근 겨레말 사전을 만드는 일이 민족 통일을 위한 첫 과제라는 점에 남과 북이 뜻을 모았다. 그 뜻이 바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으로 영글게 한 것이다.

사전에는 겨레의 삶과 문화가 어휘로 반영되고 풀이된다. 오늘날 우리 언어에는 한반도 안의 ‘한국어’와 ‘조선말’, 또 국외 600~700여만 동포들이 간직해 오는 모국의 언어들이 있다. 뚜렷한 국외 지역어로는 중국에 사는 동포들의 ‘조선말’과 중앙아시아 등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고려말’이다. 어려운 이주 생활 속에서도 교육, 언론, 출판, 예술 등을 통해 모국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점에서 두 지역어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조선말과 옛 소련 지역의 고려말은 주로 북한의 조선말이 그 바탕이다.

우리는 나라 안팎의 겨레말을 두루 거두어 풀이하는 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이 사전이 〈겨레말큰사전〉이어야 할 까닭은 그 목표하는 바가 분단의 언어를 하나로 가꾸고,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우리 겨레의 언어 유산을 두루 거두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 2. 편찬 위원회의 구성과 편찬 진행 상황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위원회’가 결성된 지 올해로 3년이다. 2005년 2월 20일 금강산에서 남측의 11명 위원과, 북측의 10명 위원으로 발족하였다. 2006년 1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가 출범하고,

2007년 4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이 공포되었다.

남북 편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남측은 주로 언어학,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고, 북측은 대부분 전문 연구직 사전 편찬인들이다. 실무 편찬 종사자(연구원)들은 현재 서울에 30여 명, 평양에도 그만큼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난 5월 12일~15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남측 20명, 북측 15명이 참석하여 14차 남북 편찬회의를 열었다.

이 사전은 편찬 기간 7년에 올림말 30만 개의 뜻풀이 사전으로 계획되었다.

사전 편찬의 실무는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에 실을 말(‘올림말’)의 선정과, 편찬 지침에 따른 원고 작성, 끝으로 총체적인 교정·교열로 마감하는 일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더욱 면밀한 계획으로 남북 편찬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진행한다. 남북 사전들에 대한 비교 검토, 그동안 거두지 못한 겨레말 자료 모으기, 그리고 달라진 남북 어문 규정 통일 등 많은 선행 과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공동 편찬 요강(2005. 7. 10.)에 정해진 올림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① 20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쓰고 있거나 썼던 말 중에서 올림말로 가치가 있는 어휘.
- ② 기존 사전(<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올림말에서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것으로 우선 합의·확정한 어휘.
- ③ 방언, 민속 어휘, 동식물 이명, 직업 어휘, 문학 작품에서 뽑은 말, 새말 등 광범한 분야의 문헌 자료와 생산 현장에서 어휘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민족 고유의 어휘 표현들.
- ④ 현시대 과학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전문용어 가운데 영역별로 선별한 어휘.

이 요강에 따라, 남북의 편찬 일꾼들은 지난 2년 동안 남과 북의 기존 사전에 있는 어휘를 비교하면서 선별하는 일을 하였다. 아울러, 나라 안 지역어(방언)와 나라 밖 동포 사회의 우리말을 모으고, 기존 사전에 실리지 않은 문헌 속의 새 어휘들을 찾고 있다. 일차로 기존 사전에서 30만이 넘는 말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새로 올릴 어휘를 더하면 목표량보다 훨씬 많아진다. 이를 다시 검토하여 토박이말은 늘려 신되, 묵은 한자어와 지나친 전문용어는 줄여 실는 방침으로 남과 북이 수량을 조정해 갈 것이다.

사전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편찬 지침은 큰 줄거리가 정하여졌고, 세부 사항은 각각의 시범 집필 원고를 서로 번갈아 점검하면서 보충하고 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약 750여 개의 올림말을 남과 북의 편찬원들이 시범적으로 집필하여 교환하고, 상대방 원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은 본집필로 들어가 ‘ㄱ’ 올림말을 남측에서, ‘ㄴ, ㄷ, ㄹ’ 올림말을 북측에서 맡아 집필하고 있다. 뜻풀이 등의 집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판 편찬위원이 설명할 것이다.

남북 단일 어문 규범에 관한 논의는 ‘자모 배열 순서와 이름’,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일부 단어의 형태 적기’, ‘문법 형태와 용어’, ‘외래어 적기’, ‘문장 부호’ 등에 합의를 쌓고 있다. 이에 관해서도 나중에 판 편찬위원이 설명할 것이다.

새로운 사전 편찬에서 꼭 해야 할 일은 기존 사전의 내용을 집고 더하는 일이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고, 모자라는 내용은 더해야 한다. 이 사전 편찬에는 특히 남과 북의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모자라는 내용을 더하는 데에는, 미처 신지 못한 어휘를 찾아 올리고, 새로운 뜻갈래를 더하며, 그 말이 쓰인 레문/

예문 등을 더해야 한다. 우리 편찬원들은 남과 북의 기존 사전에 다루지 못한 나라 안팎의 지역어와 산업 현장 어휘, 그리고 지난 약 100여 년의 문헌에서 새 어휘와 인용례를 찾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새 어휘 찾기에 관해서는 문학 작품과 관련하여 두 편찬위원이 따로 발표할 것이다.

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 집필 원고 등은 컴퓨터로 관리한다. 책사전 편찬과 함께 전자사전 개발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 3. <겨레말큰사전>과 중앙아시아 고려말

사람이 사는 곳에 그 말이 있고, 사람이 가는 곳에 그 말도 옮겨 간다. 70여년 전, 러시아 고려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이곳 중앙아시아로 옮겨오며 따라 조선말/고려말도 이곳에 함께 오게 되었다. 동포들이 척박한 땅을 일구고, 겨레말로 언론, 출판, 민족 예술을 꽃피운 역사를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대가 바뀔수록 어머니 나라, 할아버지 나라의 말과 문화 전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지 사정에 대해서도 듣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아직껏 기억되고 살아 숨쉬는 동포 사회의 겨레말을 거두어 보려는 것이 이 사전 편찬의 한 과제이기도 하다.

필자가 ‘중앙아시아 고려사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된 때는 1980년대 초였다. 전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고송무(1947~1992) 님을 통해서였다. 이후 몇몇 언어학자들이 이곳의 조선말/고려말을 조사하고 연구한 업적도 참고할 수 있었다. 필자가 챙겨 본 그 자료들을 아래에 적어 본다.

고송무(1984년):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서울.

해연(남철)(1986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사투리. 한글 새소식 169호(9월). 한글 학회.

브루트 김(장 실 번역, 1989): 우리는 누구인가 소련의 한인들 125년사. 슬라브 연구사. 서울.

고송무(1990년): 쏘련의 한인들 고려사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도서 출판, 이론과 실천. 서울.

킹, 로쓰/연재훈(1992년):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언어. 한글(217호). 한글 학회. 서울.

이기갑 외(2000년):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호. 한글 학회.

그 밖: 옛 소련 지역 한인들의 한글 문예 작품 목록은 생략함. 출처: <남북한말 비교 사전>(초판 1995년, 개정판 2007년. 한겨레출판)의 ‘붙임(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필자는 <겨레말큰사전>에 실을 국외 지역어와 관련하여, 이곳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 지역의 한글 문예 작품들에서 몇 개의 어휘를 풀이해 보려고 한다. [[주] 이 편찬 원고는 주로, 출처: <남북한말 비교 사전>(초판 1995년, 개정판 2007년. 한겨레출판)에서 가져오거나 보충함.]

#### [새 어휘]

키정다리(키-정-다리) [명] ‘키다리’의 사투리.

    | 키정다리 전봇대

    못난 전봇대

키만 해도 어른인데  
울기는 왜(왜) 해?

<조명희: 전봇대(동요, 부분)>(선봉, 1935. 3. 18/ 3. 21호에서)

1928년 7월 소련으로 망명하여 이곳 한인 문학의 창시자가 되고, 특히 중앙아시아 고려사람 문학의 스승으로 기억되는 조명희(1894~1938) 님의 동요에서 새 어휘 하나를 발견하는 감회는 새롭다.

기존 사전에 ‘키다리’에 해당하는 사투리 또는 문화어에 ‘키장다리’가 있다. 그런데 위 동요에 띄어서 쓴 ‘키정 다리’가 예사롭지 않다.

남녘 사전에 보인 ‘키-장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두 낱말로 쓴 ‘키정 다리’는 ‘키-정다리’로 결합된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 쓰인 ‘키정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키장다리’는 ‘키장 다리’로 띄어 쓰거나 또는 ‘키장-다리’로 결합된다. ‘장다리’는 기존 사전에 ‘무, 배추 따위의 꽃줄기’ 또는 ‘장판지’의 방언으로 올라 있는데 ‘키’와 관련성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

‘-장-’과 ‘-정-’이 바뀌 쓰인 예는 ‘별장-다리’ <큰사전>(북)와 ‘별정-다리’ <남> 등이 있다.

일반적인 어휘 감각으로는 붙여 써서 한 낱말로 다루면 별 문제가 없으나, 형태소를 분석하게 되면 위에서 본 대로 단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말의 낱조각 하나도 예사롭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

**한결(한-결) [명] 늘 변함 없이 그대로인 상태.**

| 로씨야의 커다란 가슴에  
울면서 안기는 저들의 심정,  
모두 다 헤아려 주는 로씨야의 하늘...  
그대의 한 고치(꼬치)의 바람마저 무한한 사랑에 숨쉬며  
그리고 모두 다 **한결**입니다

<강태수: 새들의 우짚음>(옛 소련). | 주 | 이곳 동포 작가들의 작품 출전에 지역을 밝히는 데서, 작품의 출판 시기를 고려하여 ‘옛 소련’으로 밝혔음을 양해하기 바람. (이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사전에는 ‘한결 시원하다’, ‘한결 좋아졌다’ 등으로 쓰는 부사 ‘한결’이 있다. ‘한층 더’, ‘꽤나, 꽤’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형용사 ‘한결같다’가 있다. ‘처음이나 끝이 똑같거나, 모두 하나처럼 똑같다’는 뜻의 말이다.

그런데, 이곳 작가 강태수 님이 위에 쓴 ‘한결’은 부사 ‘한결’과 다르다. ‘한결같다’의 앞 어근인 ‘한결’이 명사로 쓰인 보기다. 위에 풀이해 본 대로 ‘늘 변함 없이 그대로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지금까지 사전에 없는 새 어휘 하나를 동포 작가의 글에서 얻게 되어 보람스럽다.

**[용례 보충]**

**가대기** [명] 밭갈이 기구의 한 가지. 보습날 위에 벼는 없으나 보습 뒤에 분살이 달렸다. 넓은 이랑을 짓는 데 쓰이는데 소 두 마리가 끈다. <조대> || **가대기**를 메우다. |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오룡천기슭의 둔덕진 밭에

서 아버지는 보탑을 잡고 갑룡이는 멩에를 메고 **가대기**를 끈다.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

| 강철을 녹여서

**가대기** 더 만들어

새 땅을 번지고

오곡을 심으리

<김광현: 평화의 노래>(옛 소련).

| 붙임 | <김태균: 함북방언사전>(1986)에는 ‘가래 · 극쟁이 · 보쟁기 · 쟁기’ 등의 방언으로 다루었음.

‘가대기’는 평안, 함경 지역 방언에서 문화어로 거둔 말의 하나이다. 사전에 보이는 용례는 주로 올림말이 자주 어울려 쓰이는 레구/예구를 먼저 보이고, 이어 문법에 맞는 전형적인 문장을 인용하거나 작성해 보인다.

용례에는 문체와 장르별 인용문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직 문체별, 장르별 인용문을 두루 적용한 사전은 귀하다. <겨레말큰사전>에는 소설 등의 산문체 문장뿐 아니라 그동안 잘 적용하지 않은 시 문장도 함께 보이도록 하였다. 위에서, 이곳 작가 김광현 님의 시를 레문/예문으로 보충해 본 것은 그 때문이다.

또 지역어는 그 용례도 해당 지역에서 쓰는 말마디나 문장을 두루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말의 분포 지역의 생생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시의 출전으로, 이 농기구 이름이 멀리 중앙아시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뇌조리 [명] (함경)<중아시아> 종다리.**

| **뇌조리** 그 위에 높이 떠

푸른 봄빛을 노래하네

뇌졸뇌졸 때 농치지 말라

파종 시절을 재촉하네

<연성용: 뇌조리의 봄>(옛 소련).

<큰사전>(1947)에 ‘종달새’의 사투리로 올려진 말이다. 기존 사전에 ‘종다리’는 표준어/문화어로, ‘노고지리’는 옛말로 올라 있다. 일반적으로 동식물 이름에는 용례를 보이지 않는다. 동식물의 이름이야 문법적이고 전형적인 쓰임새를 적용할 대상이 못 된다는 생각에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비록 새 이름의 한 방언이지만 위에서 보듯 독특한 정감이나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로 부러뜨였다면 농치기 아까운 용례가 아닐까?

**[뜻갈래 보충]**

**피루다** [동(타)] ① 쪼그라든 것을 펴서 반듯하게 하다. | 낙지는 **피루면서** 말려야 곱게 마른다. <조대>

② 뭉쳤거나 뭉오리진 것을 부풀어나게 하다. || 묵은 숨을 **피루다**. <조대>

③ ‘내용 없이 말수더구(말수)만 늘어놓다’를 비겨 이르는 말. | 자꾸 이야기를 **피루지** 말고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하세 <조대>.

④ <중국>(입술을) 자꾸 실룩실룩하다. <리운규 외: 조선어방언사전(564쪽)> | 저놈들이 오목네 천감을 다



가져가는구나. 오목네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입을 **피루었다**. <김기철(단편소설: 북별)>(옛 소련)  
 ⑤ <중아시아> (생각을) 이리저리 거듭하다. | “저놈의 말들을 몰아내는 재간은 없는가?” 하고 생각을 **피루**  
**된** 끝에 문득 머리 속에 좋은 수가 떠올랐다. <김기철(단편소설: 북별)>

위 올림말 ‘피루다’는 북의 <조선말대사전>(1992년)에 처음 실린 말이다. 원래는 함경도 지역 방언(?)이던 것  
 을 문화어로 거둔 말로 보인다. 그런데 <조대>에서 뜻풀이와 용례 제시는 ①에서 ③까지였다.

④의 뜻갈래는 보다시피 중국 동포 사회에서 나온 방언사전에서 보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언사전에는 용례  
 를 보이지 않았다. 위에 보인 인용문은 필자가 사수식출판사(알마아따, 1982년)가 펴낸 작품집 <해바라기>에 실린  
 김기철 님의 단편소설 <북별>에서 인용한 것이다. 중국 동포 학자가 뜻갈래를 더해 주었고, 중앙아시아 동포 작가  
 의 문장이 용례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⑤의 뜻갈래와 인용문은 역시 김기철 님의 <북별>에서 추가할 수 있었다.

<겨레말큰사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동포들이 사는 곳곳의 말밭을 두루 누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 하  
 게 된다.

북의 <현대조선말사전>(2판, 1981년)에 ‘뒤지다(타동사)’의 함경도 방언 ‘**뚜지다**’를 문화어로 올렸다.

**뚜지다** [동(타) ① 꼬챙이나 뽀족한것으로 쭈셔서 파다. || 흙을 **뚜지다**.

② (땅을) 파뒤집다. || 삽으로 땅을 **뚜지고** 꽃씨를 심다.

③ 좁은 틈을 쭈셔헤치거나 뚫다. || 봄비는 사람들 틈을 **뚜지고** 차에서 내리다.

<현조>(2판)

이를 <조선말대사전>(1992)에는 ①과 ②의 뜻갈래만 보였다.

**뚜지다** [동(타) ① 꼬챙이나 뽀족한것으로 쭈셔서 파다. || 흙을 **뚜지다**.

② (땅을) 파뒤집다. || 묵은데를 **뚜지다**. | 누이는 살곳을 찾아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 남편을 잃고 홀몸으  
 로 이 벽지에 들어와 억척같이 땅을 **뚜지며** 외밭을 키워왔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조대>

<현조>의 ③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조대> ②의 인용문에 쓰인 ‘누이는 ... 땅을 뚜지며 외밭  
 을 키워왔다’의 ‘뚜지다’는 단순히 땅을 ‘파뒤집다’에 그치지 않고, 땅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다’의 뜻으로 번져  
 쓰였다. 필자는 ‘뚜지다’를 위의 북녘 사전들에서보다 이곳 작가 강태수 님의 단편소설과 중국의 동포 작가들 글  
 에서 먼저 발견하였다. 이제 이 낱말을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로 아래에 정리해 본다. ‘뒤지다’보다 토박이 방언  
 이던 ‘뚜지다’가 더 넓고 깊은 말맛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주 | ②ㄴ, ④, ⑤)의 뜻갈래와 인용문들을  
 더하였음.)

**뚜지다**(<뚜지다<옛>/뒤지다) [동(타) ① 무엇을 주시거나 파다. | 팥이로 땅을 대수 **뚜지고** 씨를 뿌려 두었다가  
 곡식과 풀이 함께 자라는 것을 기다려 풀이 곡식보다 머리를 내밀 때쯤 해서 <한설야: 산촌> | 나는 그것  
 (막대기)을 쥐고 눈을 주시기도 하고 **뚜지기도** 하면서 벼랑 앞까지 터벅터벅 갔었다. <강태수: 기억을 뚜지  
 면서>(옛 소련)

② ㄱ. 땅을 파뒤집다.

| 파자, **뚜지자!**

자작등(자작나무 산등성이?)도 일구고

갈밭도 **뚜지자**

<김철: 동틀무렵>(중국).

ㄴ. (‘땅을 ~’로 쓰이어) 땅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다. | 누이는 살 곳을 찾아 ... 홀몸으로 이 벽지에 들어와  
 억척같이 땅을 **뚜지며** 외밭을 키워 왔다.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북한) | 궁벽한 산이라 땅을 **뚜질** 데가  
 있어야지요. 할아버지와 전 할 수 없이 여기에 일구었어요. <윤림호: 산의 사랑>(중국)

③ 좁은 틈을 비집거나 뚫다. || 봄비는 사람들 틈을 **뚜지고** 차에서 내리다 <현대조선말사전>(2판).

④ (생각을) 더듬거나 들추다.

| 그래도 기억을 **뚜지면서** 찾아 봅니다

읽어서 뒷맛이 좋을 글들을

<강태수: 앞으로! 앞으로!>(옛 소련).

⑤ 마음을 버르집거나 집적이다. | 기술이 아버지도 그런 눈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오늘 밤 복네 아버지를  
**뚜져서** 보낸 것이라고 기술은 생각하였다. <한설야: 산촌> | “그럼 단오 오빤 어떡해요?” “어떡할 게 있  
 니?” “처녀들이 많고 많은데... 이미 다른 처녀와 약혼했어!” 사랑의 재더미(잣더미)를 **뚜져** 주던 호섭의 말  
 은 영숙의 가슴을 도리어(도리어) 아프게 찼었다. <리태수: 조각달 둥근달>(중국)

#### [문법 형태소]

사전에 실리는 많은 말들은 대부분 어떤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백과사전과는 달리, 주로 일반 언어 현상을 다루는 국어사전에는 실질적 의미를 띠지 못하는 형식적인 말조각(형  
 태소)들도 올림말에 포함된다.

단어를 만드는 말조각인 어근과 접사(접두사와 접미사),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토)와 어  
 미(말끝)가 그러한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에는 대부분의 사전들에서 그랬듯이, ‘깨끗’, ‘따뜻’, ‘쓸쓸’, ‘흐뭇’  
 등과 같은 자립적이지 못한 어근은 올리지 않으며, 접두사와 접미사를 올리고, 조사와 어미는 올리되 ‘토’로 뭉뚱  
 그려, 조사는 체언에 붙는 토, 어미는 용언에 붙는 토로 다루기로 하였다.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말에 ‘바우’가 붙어서 된 말이 더러 있다. 북녘말에 더 많아 보인다. **돼지-바우**(북)(우  
 둔하고 미련한 사람), **뚝-바우**(북)(무뚝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 **막-바우**(막된 사람), **싱겁-바우**(싱거운 사람),  
**우둔-바우**(중국), **촌-바우**(북) 등. 그런데 필자는 이곳 작가 김기철 님의 단편소설 <북별>에서 ‘**예산바위**’를 발  
 견하였다. 이 말 역시 기존 사전에 없는 새 올림말로 아래와 같이 풀이해 보았다.

**예산바위(예산-바위)** [명] <중아시아> ‘예산을 잘 세우는 사람’을 훌하게 이르는 말. | 속소구(속구구)가 빨라서 **예산바위**라는 별명을 가진 노랑둥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꾸하였다. <김기철: 복별>(옛 소련)

아울러 접미사로 쓰이는 ‘-바우/-바위’도 함께 거두어 올리기로 하였다.

**-바우** [접미] 어떤 사람을 ‘훌하게’나 ‘얹잡아’ 또는 ‘속되게’ 일컬음을 나타냄. || 돼지-바우. 뚝-바우. 막-바우. 싱겁-바우. 우둔-바우. 촌-바우. | 같은 | -바위.

**-바위** [접미] = -바우. || 예산-바위.

우리말에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상황, 방식, 정도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에 ‘-게’가 있다. ‘그를 만나게 되었다’, ‘아름답게 핀 꽃’ 할 때의 ‘-게’이다. 그런데 이런 ‘-게’가 작가 김세일 님(모스크바에 거주)의 장편소설 <홍범도>에 ‘-어’로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윤동주(1917~1945)의 시와, 북의 한 실화소설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함경도 방언으로 짐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풀이와 인용문을 제시해 보았다.

**-어** [토] (함경?) = -게. | 그는 **홍범도가 좀 늦어** 와도 **괜찮으리**라 생각하니 무거워졌던 마음이 얼마쯤 가벼워졌다. <김세일: 홍범도>(옛 소련) | 그는 신식 학교에 **늦어** 들어와서 나이가 여느 학생보다 많기도 하지만 <리원주: 실화소설 ‘민족의 얼’>(북. 2001)

| 가랑뉘(가랑잎) 입파리(이파리) 푸르려(푸르-어)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남아) 있소.

<윤동주: 무서운 시간>(1941)

**[관용구]**

사전의 올림말에는 낱말(단어)보다 큰 단위로 관용구와 속담들도 있다. 관용구란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독특한 뜻을 나타내는 익어진 말마디를 가리킨다. 속어, 성구(成句)라고도 한다. 이곳 동포 작가들 글에도 거두어야 할 관용구가 있다.

북의 <조선말대사전>에 명사 ‘선줄’과 그에 딸린 관용구로 ‘선줄(을) 굿다’를 올렸다.

**선줄(선-줄)** [명] ① 앞서서 먼저 굿는 줄. ② 앞에 있는 줄.

**선줄(을) 굿다:** 어떤 일을 남먼저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하게 하다. | 누구인가 **선줄을 그어** 노래를 불렀다. <조대>

그런데 이곳 작가 김광현 님의 단편소설에 ‘**선줄을 끌다**’가 쓰였다. 그 말맛이 ‘선줄을 굿다’와는 달라 아래와 같이 풀이하여 새 올림말로 추가하려고 한다.

**선줄을 끌다:** 앞장서서 이끌다. | 명숙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늘 **선줄을 끌고** 나섰답니다.

**<김광현: 명숙 아주머니>(옛 소련)**

김세일 님의 장편소설 <홍범도>에 ‘작의형제(作義兄弟)’가 나오는데 이는 북의 <조선말대사전>에 ‘결의형제’를 달리 이르는 말로 올라 있다. 김세일 님은 이 소설에서 관용구적 표현으로 ‘**작의를 놀다**’도 썼다. 아직 사전에 다루지 않은 말이기엔 기본어 ‘작의’와 함께 새 올림말로 아래와 같이 풀이를 해 보았다.

**작의(作義)** [명] = 결의(結義). 남남끼리 형제나 자매 등의 의를 맺는 것.

**작의를 놀다:** 의리 관계를 맺다. |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니 셋이서 **작의를 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수십 명이 전부 다 **작의를 놀아** 보게요(봅시다). <김세일: 홍범도>(옛 소련)

**[기준어]**

말에는 같은 대상을 일컫거나 뜻이 같은 말 곧 동의어들도 많다. 이 가운데는 ‘표준어/문화어’와 많은 지역어들도 있다. 사전 편찬에서 많은 동의어에 같은 뜻풀이를 일일이 보여주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주로, 어떤 기준어(‘표준어’란 개념어 대신 써 보는 말)에 뜻풀이를 하고 각각의 동의어 올림말은 그 기준어로 이끌어 놓는 방식을 취해 온다. 그러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에서 생각해 보면, 뜻풀이를 보여줄 기준어를 하나만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듯도 하다. 오랜 분단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의 언어 정서가 달라진 점을 고려한다면 서로의 익숙한 어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에 따라 복수 기준어도 들 수 있겠다.

다음의 동의어들은 그 분포 지역이 남, 북, 중국, 중앙아시아 등지로 다양하다.

**끼니<남><북>**

**끼식<북>**

**때식<북><중국>**

**때시격<중국>** | 올감자 일찌감치 오롱조롱 달려야

끓주린 **때시격** 근심도 털 게라고

<김창석: 감자꽃>(중국).

| 생나무 픽픽 튀는 아궁이 앞에서

흐린날은 맨내(매운 냄새)에 눈물을 짜고

선밭을 근심하던 **때시격**은 얼마

<김성휘: 사랑이여 너는 무엇이길래>(중국)

**시격(함북)<중아시아>**

위 다섯 개의 동의어를 남녘 사전에는 ‘끼니’ 하나만 표준어로 하여 뜻풀이를 보였으며, 북의 <조대>는 ‘끼니, 끼식, 때식’을 복수 문화어로 하고 ‘끼니’와 ‘때식’ 두 군데에 비슷한 표현의 뜻풀이를 보였다. 기준어를 ‘끼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싱거운 것이나 싱거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도 남과 북에 여러 가지가 있다.

신견이 · 싱겁이<남>.

싱검둥이 · 싱검바우 · 싱검쟁이<북>

남녘의 <우리말 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신견이’와 ‘싱겁이’에 각각 비슷한 표현의 뜻을 보였고, 북의 <조대>에는 ‘싱검둥이’, ‘싱검바우’, ‘싱검쟁이’를 모두 문화어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뜻풀이는 ‘싱검둥이’에만 보였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포 사회에서는 어떤 말이 주로 쓰일까?

남과 북의 기준어에 차이가 있다. 각각의 언어 사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준어라 하여 임의로 어느 지역어 또는 어느 한 가지 말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북수 동의어에서 기준어를 정하는 문제는 대상 어휘 자료를 모아 남북 편찬위원회의 합동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4.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의미

같은 언어권에도 말은 세월 따라, 지역 따라, 또 그 사회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물며 우리 겨레는 분단과 대립의 역사로 60년을 살고 있다. 통일 신라 이후 갈라섰던 후삼국이 다시 통일한 기간(약 50년)보다도 훨씬 긴 세월을 보내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의 사전 편찬학자들이 뜻을 모아 분단 60년의 우리말을 정리하여 엮고자 하는 큰사전이다. 서로 차이 나는 언어의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바탕과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바탕을 함께 헤아려 겨레말의 새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돌이켜보면 이 편찬 사업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선배 학자들이 힘 모아 일군 우리말의 연구와 통일의 대업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이 사업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열어 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 언어는 세계 속의 큰 언어로 발돋움하고 있다. 7500만 겨레가 쓰고 있는 한국어는 세계에서 12위 권에 드는 언어가 되었다. <겨레말큰사전>이 우리말의 새로운 발전에 좋은 이바지가 되기를 바란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해 주는 남과 북의 당국에 감사하며 이 글을 끝맺는다.

##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의 의미

브로니스라브 리

니자미타슈켄트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이번 회의는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방언과 문학을 중심 의제로 삼은 최초의 행사입니다. 권재일, 이기갑, 김필영 교수 등 한국의 저명한 학자와 강연자들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모임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여기 참여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족 생활과 공식 생활에서 한국어를 상용했던 고려인 콜호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공식 회합에서 어른들이 하시던 연설을 친구들이 그대로 흉내 내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집단농장 “북극성”의 의장이셨던 전설적 인물 김병화 씨가 모든 회의를 한국어로만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그 분을 알아본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에서는 한국어만 들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주 초보적인 러시아 말과 비슷한 빈도와 수준으로 우즈베크 말과 카자흐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동부에서 7년 동안 한국어 학교에 다니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름에는 바다에서 돈을 벌고 겨울에 학교에 갔는데, 신발이 없어서 등에 짊 다발을 지고 가셨습니다.)

사투리가 어디서나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투리 낱말들이 푹푹히 들린다고, 언어의 보유자로서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방언을 연구하는 한국 학자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50년대 말은 1937년의 추방 이후 고려인 사회가 부딪힌 새로운 언어 상황의 추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러시아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젊은 세대가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 등지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도권 변화의 시기이고 러시아어가 한국어를 누르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는 중앙아시아에서 단독 방언으로 계속 존재해 왔으며 “태고의 위치”를 보존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와 비교를 위한, 역사적 계기와 축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언어의 보유자들이 떠나면 그 자리를 예술적 축적, 소설, 민속(음악과 가사) 등이 남아 그 자리를 채우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도 틀림없이 언어의 보유자들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어느 목사가 17살 난 아들과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밖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릴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1)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조밀한가 아닌가? 2) 한국인 학생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3) 역사와의 문화적 접촉 또는 민족어와 민족문화의 혁신 조건은 어떠한가? 예를 들면 미국에는 약 700여 개의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미 한국인 사회에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채널, 신문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다른 나라에서는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영향과 간섭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다른 언어로부터의 차용의 연구가 매우 효

과적입니다. 한반도에서 고려말 연구의 경우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고려말 연구에서 북한 지방 방언의 근대적 조건과 직접 비교가 없다면, 상당히 정보가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원에 대한 연구에서 (기억에 바탕을 두었는지 아니면 한자말에 뿌리가 있는지) 개별적인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연해주 고려인의 단어에도 격리된 고려인 사회의 한국어에 러시아어가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관습이 존재하는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일상생활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고 따라서 투르크 언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용납해야만 했습니다. 차용된 단어의 기원, 발음과 의미와 활용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화 등은 모두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로 발표된 바와 같이 고려말 방언의 변화는 음성, 어휘, 문법의 사례들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격, 태, 수의 형성과 의문, 명령, 청유형 어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니자미타슈켄트국립사범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에는 연구에 관심을 두는 풍조가 있습니다. 학위 과정의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 방법론과 더불어 모든 수준의 한국어와 연계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문학은 자격 요건에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합니다. (고려말,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쓰인 한국 문학) 한국어의 방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사회 연구, 그곳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철학, 종교, 민속 예술 등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한국학으로 방향을 잡은 연구를 위하여 재설정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는 인물들 (즉, 걸출한 위인들의 활약) 그리고 (시, 읍, 지구) 고려인 대중 조직의 활약 또한 포함됩니다.

고려말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수법 과정들을 통과하며 또한 한국어 방언학에 대한 특별 과정을 학습합니다. 조부모님들의 대화를 방언학적으로 고려합니다. (살아계신 동안입니다. 10~15년 이내에 생존자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학 실습 보고서에 수집될 자료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자료들이 표준으로부터의 변이를 분석적으로 추정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을 아는 분들과의 면담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 기록물은 러시아어의 유포가 너무 많아 실험의 순도가 높지 않고 신뢰도도 그러합니다. 동시에 석사 및 박사 과정의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연구 스펙트럼의 다양화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긴밀한 접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지금도 많은 사투리 낱말들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진부한 견해이지만, 앞서 언급한 북한 지방과 다른 지방들에서의 방언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방언이 육진 방언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사람'과 '조선사람' 같은 단어들은 가정 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변이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인 함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려말과 고려사람이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상호 작용과 접촉이 남한과 더 긴밀한데 남한의 대표자들이 조선이라는 용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한국어라는 단어가 아주 최근에 등장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이 단어와 별로 친숙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남한과 접촉한 이후 등장합니다.

완벽한 방언 대화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는 한국어가 러시아어와 투르크어의 영향을 시험하는 상호 방언의 접촉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당근채'가 있다면 '모르코프채'는 현지 고려인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변종이 아주 많은 이 샐러드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방언을 완벽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지역어를 포함하는 남한과 북한의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지의 교포 한국어를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음성학, 어휘, 문법, 통사론에 있어 표준과 비교한 모든 변별적 자질들을 기술한 한국어 방언학 교재 및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로 쓴 방언학 사전, 그리고 국가 간 강연과 과학의 통합을 가정하는 방언사전을 저술해야 할 급박한 요구가 있습니다.

## About meaning of Korean language at Central Asia

**Bronislav S. Lee**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y

Our conference is an event the first time dedicated to Korean dialect and literature of Central Asia. Participation of prominent scientists and lecturers from Korea as Kweon Jae Il, Lee Gi Gap, Kim Phil and other specialists gives a special meaning to our gathering. Our appearance here perhaps is justified by that fact that we were born at Korean kolhoz where Korean language was existing at the family sphere and official life. We remember as my peers repeated (it was popular) and parodied speeches of elders at official meetings. Chairman of "Polyarnaya Zvezda" (Polar Star) celebrated Kim Pen Hwa led all sessions only on Korean language.

Since that moment we started to realize himself only Korean language was heard at my family. My parents were speaking only on elementary Russian and on Uzbek and Kazakh on the same time and level. Father during 7 years visited school on Korean at for East (without his father earning money in summer time at sea, winter days at school, having no shoes he had sheaf of rice straw behind his back).

The dialect reigned everywhere and we can say that it is clear for us dialect words and may as a bearer of language in conversation with South Korean scientists studying dialect of Koreans at Uzbekistan almost all is understanding, no any difficulties.

The end of fifties of passed century, when Korean community of Uzbekistan started to study Russian language as a sequence of new language situation for Korean community after deportation of 1937, when young generation started to enter to any universities of Moscow, Saint Petersburg, Kiev and so on. This was a period of change of priorities and prevailing of Russian language on Korean.

The language of Koreans at Uzbekistan continues to exist as a separate dialect at Central Asia and preserved in its "ancient position" (it can be considered as historical moment and stock for scientific and analytical study and comparison) and certainly the course of time it may vanish together with bearers of language though existing of artistic stocks, fictions, folklore (music and words) can fill in leaving of living bearers. While being at USA we saw as pastor had a conversation with his 17 years

old son only on English. Any generation born out of Korea is doomed to loss language and culture. This process may be long and short; it depends of row of conditions: a) how does the population is located compactly or not, b) how is a Korean pupil association are active, c) how are cultural contacts with historical or conditions of renovation of national language and culture. For example there are about 700 programs on Korean language of universities of U. S. A. Korean communities have radio stations, TV channels, newspapers; such possibilities are difficult to represent in other countries.

If we are speaking about influence and interference of Korean language with other language then study of allowances from other languages is a very effective enough effective. In case of koryo-mal study of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There will be some lack of information if in koryo-mal study direct comparison with modern situation of dialects at provinces of North Korea will be absent. Separate consideration is needed study of origin of word (in memorial or Chinese stem). Even at word “Primorskie Koreans” there is possibility of interaction and influence of Russian language to Korean of separate Korean community. Koreans settled in countries of Central Asia where own traditions and habits are existing, daily life can not express on their own language words and forms of Turkic languages and naturally they had to allow.

Origin of allowed words, their historical changing in pronunciations, in the meaning and their usage it is important study of all these aspects.

Changing of koryo-mal dialect can be traced on phonetical, lexis and grammar examples as it was published in many researches.

Differences are in forming of cases, voices, numerals and at the ends of interrogative, imperative and incentive sentences.

There is tendency in orientation of research work at chai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y. The most of diploma works are connected with all levels of Korean language, with methodic of Korean language teaching. Unfortunately Korean literature takes a small part of qualification works. Reorientation touches researches on such directions as dialect of Korean language (koryo-mal,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Korean language and Russian language), study of Korean community of Uzbekistan, its material and spiritual culture, that is Korean studies in broad sense, including policy, economy, philosophy, religion, folklore art and so on. At that we mean also personalities (activity of prominent figures) and activity of Korean public (city, town, districts) associations.

As for koryo-mal: special course on dialectology of Korean language is studied, besides student is passing different practical courses: pedagogical, production and dialectologic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conversations of our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while they are alive, in 1015 years no one will stay at our world). That is the material to be gathered to make report on dialectology practice. Accumulated in such manner materials can become invaluable stock for analytical estimation

of differences from standard. Moreover interview with people knowing dialect is broadly is used, but such records can include a lot of disseminations of Russian language, the purity of experiment is not so high and that is truthful. At the same time reorientation of masters and doctorate works took plac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spectrum is connected with our close contacts with Academy of Korean Studies.

It is possible that a lot of dialect words even now are using in province of North and South Hanguk.

On the point of view of scientific triteness it will be interesting to trace changing of dialects at abovementioned provinces of North Korea and some others because dialect of Uzbekistan Koreans is a result of six provinces.

Words as koryosaram and chosunsaram, these variants were with equal rights on family life, and earlier they had no political implication. Now koryomal and koryosaram are used frequently because to great extent contacts and mutual interaction are close with South Korea and representatives of South Korea dislike this word “chosen.” Besides this word hangug appeared very lately and this word is not greatly familiar to Koreans of Uzbekistan and this word appears during contact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scribe completely dialect conversation Central Asia is a zone interdialect contacts where Korean language tests influence of Russian and Turkic language.

For example there is “tangunche” in Korea, “morkovchae” is an invention of local Koreans and this salad with a lot of variations is very popular and CIS space.

It necessary complete description Korean dialect of Central Asia in a complex with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NDR including provincial conversation as well as with language of Koreans in China, U. S. A., Japan.

There is an urgent request to write textbook on dialectology of Korean language, dictionaries on dialectology in Russian and Uzbek languages, describing all distinctive features of dialect in comparison with standard in phonetics, lexis, grammar and syntax and dialect dictionary that supposes consolidations of lecturers and sciences of countries.

# 《겨레말큰사전》의 뜻풀이

홍종선

고려대학교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 ① 머리말

우리 민족의 언어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간에 큰 소통이 없이 반 세기 이상을 지내오고,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의해 우리말이 한 세기 동안 힘겹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21세기 초엽에, 《겨레말큰사전》(이하 '이 사전')의 편찬은 시작되었다. 이는 남과 북의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말을 충실하게 모으고 해외 동포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을 보듬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사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민족어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사전의 뜻풀이도 이와 같은 사전의 성격에 따르는 체제와 내용을 갖추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외 동포들과의 왕래도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말에 대한 통합적인 사전의 편찬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행히 1980년대 이후 남과 북에서는 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며 여러 종의 국어대사전을 잇달아 간행하여,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한 이론 연구와 실제 경험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통합적 사전의 성격은 올림말의 선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전에 오르는 올림말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각 올림말에 대한 발음과 표기, 문법적인 정보, 그리고 뜻풀이와 용례 및 참고적인 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그 작업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어휘의 사용 의미는 지역과 사회 체제, 개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대하는 시각이나 다루는 방법론에서도 똑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올림말의 뜻풀이는 상호 이해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형식과 내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뜻풀이는 그 사전의 성격과 품질을 보여 주는 핵심적인 요소로, 언어의 복잡 섬세함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이 사전의 편찬 전반과 뜻풀이 작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의 편찬위원과 연구원들은 4년 동안 연구와 토론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2008년 5월에는, 그간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겨레말큰사전》종합집필요강의 대체적인 줄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 요강의 내용을 간추리면서 필요에 따라 내용과 관련하는 설명적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 ② 《겨레말큰사전》의 특성과 뜻풀이

이 사전은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을 최대한 모으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우리말도 포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지역어(방언, 사투리)는 물론 문인들이 작품에서 표현한 문학어까지 두루 섭렵하여 우리말의 폭넓은 외연과 풍부한 내용을 종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 작업은 앞으로 우리 민족어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기본적인 자원을 마련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전 편찬 원칙은 뜻풀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각 지역과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어휘의 용법과 의미를 모두 소중하게 모아서 체계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각 올림말의 속구조 체계와 형식을 논의하며 서술 방식을 합의해 가고 있다. 현재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 대략적인 내용들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남쪽이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데 비하여, 북쪽에서는 언어의 미래 지향적인 면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남쪽의 현실주의와 북쪽의 이상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가치 있는 인식이므로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뜻풀이는 남과 북이 자모순으로 교차 배분하여 절반 정도씩 나누어 집필하되, 추후에 자모순 배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현재 남쪽이 ㄱ항을, 북쪽이 ㄴ항을 집필하고 있고, 집필된 원고는 서로 바꾸어 검토해 가고 있다. 집필 분담을 품사별로 할 것인가(가령, 명사와, 명사 아닌 것), 자모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처음에는 이견을 보였으나, 남북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곧 합의가 이루어졌다. 집필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수정할 권한이 주어진다.

사전에서 뜻풀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인식에 차이가 있을 때 그 합의점을 찾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몇 차례 논의를 하였지만 아직 해결을 보지 문제들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 사전에 관계하는 남과 북의 편찬원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신뢰가 쌓여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남과 북이 올림말의 속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하지만 종합집필요강의 열개가 거의 이루어진 것은, 양측이 모두 우리 민족어의 통일과 발전을 염원하는 하나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에 우호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한 결과라 할 것이다.

남·북어의 차이는 크게,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어휘, 문법 체계, 말의 용법이나 의미 차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각자 변화 발전해 온 지역어나 개인어의 차이를 제

외하고,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나타난 두 지역 나름대로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말한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라는 큰 지역을 단위로 하는 자연적인 역사적 변화도 없지 않지만, 사회 체제나 제도, 언어 정책, 언어관의 차이로 인한 변화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대화에서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줄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서술하려 할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적지 않게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사전을 편찬할 때에는 남과 북에서 그 동안 각자 발전시켜 온 사전 편찬 연구 이론과 편찬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남쪽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사전 편찬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 서구의 사전 편찬과 연구를 수용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쪽에서는 사전 편찬과 더불어 실용성을 위주로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사전의 편찬에서도 남과 북은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보인다. 남쪽에서는 상업 출판사가 주관하는 사전 편찬이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최근에는 정부나 학교 등에 속한 연구 기관에서 사전을 편찬 발간하기도 하였다. 북쪽에서는 정부 기관에서 일관되게 사전 편찬을 주관하고 있다. 그 결과 남쪽에서는 사전 편찬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전 편찬 경험이 그 이후의 사전 편찬에 충실히 이어지지 못하여 사전 편찬의 다양한 중수에 비하여 발전이 상응하지 못하였다. 북쪽에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므로, 사전 편찬에 따르는 경험과 성과가 그대로 이후의 사전 편찬에 활용되어 지속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명실상부한 국어사전으로 문세영 《조선어사전》(1938)이 나오고 남북으로 분단된 후 남과 북에서는 1960년을 전후하여 모두 훌륭한 국어사전을 편찬 간행하였으니, 남쪽에서는 한글학회에서 나온 《큰사전》

(1957), 북에서는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편 《조선말사전》(1962)이 그것이다. 남과 북은 이후에도 계속 국어사전을 펴내 왔다. 최근 남쪽의 《국어 대사전》(김민수 외, 1991, 1996),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2),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과 북에서 나온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1992, 2007)은 모두 완성도 높은 국어대사전이다.

이처럼 남과 북은 상당한 질과 양을 갖춘 국어대사전을 편찬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남과 북에서 각각 별도로 만든 사전이었다. 이제 남북 통일을 앞두고 우리 민족어를 총정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 2004년 남과 북의 사전 편찬 관련자들이 모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계획하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 쓰이는 어휘는 물론 각 어휘가 사용되는 다양한 용법과 의미를 충실히 파악하여 망라하는 대신에, 기존 사전에는 있지만 실제로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어휘나 의미들은 제외하여, 명실상부한 현대 우리말 큰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을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남과 북의 사전 편찬위원들은 상호간 자존심을 거둔다든가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생각보다, 민족어의 미래를 위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쪽이 상승 발전하는 방향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사회 체제나 제도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생겨난 어휘의 뜻풀이에 언어사전식으로 풀이말을 주기로 하였다. 어느 올림말의 뜻풀이에서도 이념적인 내용이나 역사관에 의한 정서적 성격의 표현은 일체 배제하면서 순수한 어휘적 정보만을 올리는 것이다.

근래에는 사전의 규모가 커지고 전자 사전이 일반 용으로도 효용성을 가지면서 각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가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북쪽 대사전에 비해 남쪽 대사전이 비교적 뜻풀이가 세밀하게 분간되어 있

는데, 이 사전에서는 《조선말대사전》(이하 《조대》)과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대》)의 뜻풀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우리말의 현재를 충실히 보일 예정이다.

### ③ 올림말의 속구조

각 올림말에 대해서 뜻풀이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급적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사전에서도 속구조를 체계화하여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 항목들은 곧 이 사전이 갖는 체제 형식이 되는 셈이다. 각 올림말에 붙는 항목들은 아래의 순서대로 제공되는데, 이들의 집필 원칙을 간략히 요약한다.

1) 올림말 표기: 올림말은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과 <올림말 선정작업요강>에 의해 선정 배열하여 남북이 합의한 단일어문규범에 따라 적으며, 현재 쓰고 있는 한글로만 적되 비자립적인 올림말에는 불입표(-)를 더한다.

2) 발음 정보: 올림말이 표기와 달리 발음되거나 발음이 복수일 때에는 발음 정보를 보이는데, 남과 북의 현실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음 표기는 현용 한글 자모와 장음 부호만 쓰며, 중성 발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7개로만 표기한다. 비자립적인 올림말, 외래어, 관용구와 속담 등에는 발음을 보이지 않는다.

3) 활용 정보: 용언에는 형태 변화 정보(활용형)를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접미사 ‘-거리-, -대-, -되-, -이-, -하-’가 붙어서 된 용언에는 활용 정보를 보이지 않는다. 활용형의 발음은 보이지 않는다.

4) 원어 정보: 한자어에는 한자, 외래어에는 원어명

과 원어를 보인다. 원어는 로마자로 적되, 슬라브어 계열 외래어는 키릴 문자와 로마자를 함께 쓴다. 원어명의 종류와 약호는 따로 정한다. 한 올림말에 한자 원어가 둘 이상일 때는 획수가 적은 것을 앞에 둔다. 올림말이 원어에는 없는 약어 형태이거나 원어의 발음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원어명 앞에 ‘←’ 부호를 쓰며, 다른 언어를 통해 간접 차용하여 원어와 발음상 멀어진 경우에는 ‘<’ 부호를 쓴다. 해당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원어의 유래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뜻풀이 문장 안에서 부가 설명으로 보인다.

5) 품사 정보: 각 올림말 어휘에 품사 정보를 보이며, 접사와 토도 그 범주를 밝힌다. 품사의 종류와 약호는 아래와 같다.

명사	[명]
의존명사	[명](의존)
대명사	[대]
수사	[수]
자동사	[동](자)
타동사	[동](타)
자 타동사	[동](자. 타)
보조동사	[동](보조)
형용사	[형]
보조형용사	[형](보조)
관형사	[관]
부사	[부]
감탄사	[감]
접두사	[앞]
접미사	[뒤]
체언토와 용언토	[토]
줄어든 말	[준꺾]

6) 지역어 정보: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올림말에는 품사 정보 뒤에 ‘지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뜻풀이 뒤에 도 단위 행정명 약호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도 단위 이외의 지역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붙임]에서 나타낸다. 남녘말과 북녘말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1>과 같이 ‘-을 남(/북)에서 이르는 말’ 등과 같이 풀이말로 나타낸다. 국외 지역에서만 쓰이는 올림말에도 해당 지역 약호를 보인다. 문화어/표준어와 뜻이 같은 지역어는 그 문화어/표준어를 보이는 것으로 뜻풀이를 대신하고, 그 밖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뜻풀이를 한다.

#### <예1>

주민등록증 [주:민등녹증/주:민등록증] (住民登錄證)  
[명]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남에서 이르는 말. 17살 이상의 주민에게 발급된다.

[참고] 공민증.

7) 전문 영역 정보: 해당 전문 분야에서만 주로 쓰는 전문어에는 해당 전문 영역 정보를 보인다. 전문 영역은 아래와 같다.

건설	경공업	경제	교육
교통	군사	금속	기계
기상	광업	논리#론리	농업
력사#역사	림업#임업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수리(水理)
수산	수학	심리	생물
약학	언어	영연(映演)	음악
의학	예술	전기	종교
지리	지질	천문	철학
출판	체육	컴퓨터#컴퓨터	통신
해양	화학	<총 42 영역>	

위의 전문 영역에서 하위 분야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풀이말에서 <예2>와 같이 제한 표현으로 시작한다.

1) 흉내말 어근에 붙은 ‘-이-’를 가리킨다. 입음형이나 시김형 접미사 ‘-이-’가 포함된 용언은 활용 정보를 보여야 한다.

<예2>

걸 [명]<민속> 윗놀이에서, ~

8) 문법 정보: 올림말이 특정한 음운적, 형태적 환경이나 통사 구조에서 쓰일 때, 또는 특정한 낱말과 어울려 쓰일 때에는 그 내용을 문법 정보로 보인다. ‘입말’과 ‘글말’이라는 정보는 문법 정보항이 아닌 뜻풀이에서 부가 설명으로 밝힌다. (용언의 문형(격틀)은 주로 예구에서 보이기로 잠정 합의함)

9) 뜻풀이: 다음 장(4장)에서 자세히 논의함

10) 용례: 올림말의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용례(예구와 예문)를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어, 외래어, 전문어 등에도 용례를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표준어에는 용례를 보이지 않는다. 용례는 되도록 간결하고, 전형적인 문형이 잘 드러나는 표현, 올림말과 자주 어울리는 표현을 들도록 한다. 용례는 상대측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가급적 신지 않는다. 예문은 인용례를 우선으로 하되, 적절한 인용례가 없을 때에는 작성례를 보인다. 이 사전의 올림말로 오르지 않은 말이 들어간 용례는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례는 원전 그대로 인용 하되, 철자는 남북 합의된 표기법에 맞추어 고친다. 모든 인용례에서는 출전을 보인다.

11) 관련 정보: 올림말과 직접적으로 ‘본말, 준말, 동의어, 비슷한말, 반대말’ 관계에 있는 낱말을 관련 정보로 보인다. 여기에서 보이는 낱말은 이 사전의 올림말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의 낱말은 해당 올림말의 뜻풀이에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정보: 올림말과 명시적이거나 체계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으나 올림말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말로, ‘큰말, 작은말, 여린말, 센말, 높임말, 낮춤말, 혼동하기 쉬운 말, 상위어, 하위어, 주동형, 능동형’ 등을 보인다. 원말이나 변한말은 뜻풀이항에서 부가 설명으로 다룬다. 어감의 차이, 화용적 용법의 차이 등은 [붙임]에서 설명한다.

13) 붙임 정보: 뜻풀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붙임]을 보일 수 있다. 어감의 차이, 화용적 용법의 차이, 문형과 관련하여 필수 성분의 통사적 의미적 제약이나 교체 현상, 지역어의 지역명에 더하는 군 이하 단위, 한자 고사성어나 어원의 유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을 ‘붙임’에서 다룬다.

14) 형태 분석 정보 및 어원 정보: 복합어에는 형태 분석 정보를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원을 밝힐 수 있는 고유어 올림말에는 어원 정보를 출전과 함께 보인다. 순수 외래어 복합어는 형태 분석 정보를 보이지 않는다. 개별 형태소는 층위 구분 없이 되도록 자세히 분석하여 더하기표(+)로 구분하며, 의존형태소는 붙임표(-)를 쓴다. 실질 의미를 가진 형태(특히 용언의 말줄기)는 대표 형태를 보이고, 형식 의미를 가진 토, 접사 등은 올림말 표기 형태를 그대로 보인다. 어원의 출전은 해당 어원 표기가 발견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한다. 출전 목록과 약호는 따로 정한다.

15) 갈래말 정보: 고유어 올림말과 의미상, 형태상 관련된 말의 부류를 갈래말로 보일 수 있다. 갈래말은 이 사전의 올림말에 한정하며, 갈래말 정보 간에는 체계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흉내말(의성어, 의태어)는 갈래말에서 보이지 않는다.

16) 관용구와 속담: 관용구와 속담은 그 첫 어절이 속한 올림말의 부올림말로 신는다. 한자 성어와 뜻이 같은 속담이 있을 때는 속담을 기본으로 삼고, 한자 성어의 뜻풀이는 뜻이 같은 속담으로 돌린다.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오비리락#오비이락)

17) 삽화 및 사진: 올림말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그림이나 사진을 실을 수 있다.

#### ④ 뜻풀이의 형식과 내용

사전에서 뜻풀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대부분

의 사전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내용이다. 이 사전의 편찬 회의에서도 뜻풀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사전 뜻풀이의 일반 원칙과 일반 형식, 이 사전에서 사용하는 뜻풀이의 용어, 다의어의 풀이 등을 소개하고, 품사별로 뜻풀이에서 유의하는 문제들을 간략히 보인다.

이 사전에서는 뜻풀이의 일반 원칙으로 몇 가지를 정하였다. 뜻풀이는 올림말의 뜻바탕을 분명히 밝혀 쉽고 간결하게 하며, 문장이 어떤 격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 언어사전적 풀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 용어 등에서는 백과사전적인 풀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뜻의 객관성과 일반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뜻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밝혀 기본뜻과 갈라진 뜻, 문체론적인 뜻 등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어휘의미적인 것과 문법적 결합 속에서 생기는 뜻 등을 잘 분석해 내도록 한다. 나라 안과 밖에서 쓰이는 뜻이 서로 다를 때에는 나라 안에서 쓰는 것을 기본뜻으로 인정한다. 남과 북 어느 한쪽에서 잘 쓰지 않는 어휘나 표현은 풀이말에서 되도록 삼간다. 뜻풀이에서는 올림말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되도록 쓰지 않으며, 다른 올림말로 뜻풀이를 갈음하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 한 단어만으로 뜻풀이를 하지 않는다. 같은 부류의 올림말은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한다. 뜻갈래의 수는 「조대」와 「표대」에서 너무 많이 줄이거나 늘리지 않도록 한다.

이 사전에서는 「조대」와 「표대」에 기술된 내용을 포괄하여 뜻풀이하되, 각각 상대방 뜻풀이에서 합리적인 것을 찾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느 한 사전과 똑같이 풀이하는 것은 되도록 피한다. 체제나 이념이 달라 두 사전의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 올림말은 따로 정리하여 논의하되, 이러한 차이를 부각하는 뜻풀이는 되도록 배제한다. 어느 한 쪽의 사전에서 비규범

어로 처리하였더라도 이 사전의 올림말 선정 원칙에 부합하는 말은 <예3>과 같이 어느 올림말과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한다.

<예3>

꼬시다 [꼬시어(꼬서), 꼬시니(동(타)) <자기 생각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럴 듯한 말로 남을 속이거나 유혹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sup>2)</sup>

같은 개념의 전문어의 표기가 남과 북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서로 합의하여 하나를 기본 올림말로, 그 밖은 동의어로 처리한다. 대립하는 두 전문어가 ‘고유어 : 비고유어’, ‘한자어 : 서구 외래어’의 대립을 보이면 각각 되도록 전자를 기본 올림말로 정한다.

뜻풀이의 일반 형식으로도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올림말의 뜻은 품사의 특성에 맞게 풀이한다.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여 부가 설명을 할 때에는 ‘-다’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에 의한 입음형과 시김형은 다른 올림말로 돌리지 않고 직접 뜻풀이한다. ‘-하다, -되다’가 붙은 용언, 용언 말줄기에 ‘-이, -히’가 붙은 부사도 직접 뜻풀이한다.

이 사전의 올림말에 오르지 않은 말은 뜻풀이에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뜻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고 쉬운 낱말을 고르며, 문장도 외국어 번역투가 되지 않게 주의한다. 같은 뜻을 가진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고유어를 쓰며, 준말이 특별히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자연스러운 경우가 아닌면 준말보다 본말을 우선하여 쓴다<sup>3)</sup>. 어느 한 쪽의 어휘로 통일시키려고 무리하게 애쓰지 않는다.

문법 용어는 이 사전의 단일어문규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른다. 문법 용어는 그것을 써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유용할 때에 제한적으로 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문법 용어를 쓰고 있으나 단일어

2) 「표대」는 ‘꼬시다’를 “‘꼬이다’의 잘못”으로 처리하였다.

3) ‘아니하다’와 ‘않다’는 문맥에 따라 자유롭게 쓰되, 부가 설명에서는 ‘않다’로 통일한다. ‘-하다’와 ‘되다’의 활용형을 뜻풀이에 쓸 때는 본딴말만 쓴다.



문규범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문법 형태를 직접 밝혀서 뜻풀이한다. 뜻풀이에서 문법 형태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표형 외에 일정한 변이형태도 함께 보인다.

뜻풀이에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를 병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뜻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할 때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km, m2, ha, dB, kl, cc, m/s' 등과 같은 국제도량형 기호는 한글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쓴다.

이 밖에 뜻풀이에서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중, 등/들/같은 것, 일부, 주로, 흔히, ...이 있다/...을 이른다, ~ 등이 있다, 뒤에(는)/앞에(는) -이 온다, 또는, -을 나타내는 말, -의 하나/한 종류/한 가지, 모양/형태/형, 그/그러한, 예전에<sup>4)</sup>, -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을 통털어 이르는 말, -다는 학설/이론/사상/경향/태도/이론, -을 연구하는 학문, -하는 방식/방법, 상대편/상대방, ~ 때/시대(에)<sup>5)</sup>, -에서 -를 이르는 말, -을 (어떠하게) 이르는 말' 등에 대한 사용 지침을 만들었다.

다의어의 뜻갈래는 기본적인 뜻갈래를 먼저 보이고, 뜻이 번져나간 차례로 뜻갈래를 배열한다. 문법 정보가 없는 뜻갈래를 문법 정보가 있는 것보다 앞에 둔다. 뜻갈래는 대의미별 분류인 대번호와, 세부 의미별 분류인 소번호의 2단계로 나눈다. 대번호는 로마숫자 대문자(I, II, III...)로, 소번호는 원숫자(①②③...)로 구분한다. 올림말이 어느 한 형태로 한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그 제약된 형태에 맞추어 < > 안에 관형사형(규정형)이나 부사형(상황형)으로 풀이하고, 별도의 로마숫자로 묶는다. 한 올림말이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일 때에는 별도의 뜻갈래 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줄을 바꿔 품사 정보만 보

인다.

「조대」와 「표대」의 뜻갈래를 참고하고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뜻갈래를 모두 실을 수 있도록 한다. 뜻갈래 구분에서 남과 북의 판단이 다를 때는 논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뜻갈래 수가 많은 쪽을 따르며, 동형어와 다의어로 차이가 날 때는 동형어로 인정한다.

한 어휘 형태가 서로 다른 품사로 통용되면서 의미적으로 연관 관계가 뚜렷할 때에는 한 올림말의 다의어로 처리한다. 단, 이전 사전에서 체언과 관형사로 통용되는 올림말은 체언으로만 처리하며(예: 경제적), 보조용언은 같은 형태의 본용언의 하위 뜻갈래로 다룬다. 한글 표기가 같은 어휘 형태와 문법 형태는 동형어로 처리한다.(예: 님1, -님2) 표기는 같으나 서로 다른 문법 범주로 쓰이는 문법 형태들은 동형어로 처리한다.(-어1, -어2) 원어가 같더라도 의미적 연관성이 아주 떨어진 경우에는 <예4>와 같이 동형어로 처리한다.

<예4>

대체 [대:체] (大體) [명] 일이나 내용에서 기본적인 큰 줄거리.

대체<sup>2)</sup> [대:체] (大體) [부] =도대체.

뜻풀이를 할 때에 품사별로 유의할 내용에 대한 집필 지침은 따로 마련하였다.

명사의 뜻풀이는 명사나 명사형으로 끝맺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어색하면 상위언어적으로 뜻풀이를 할 수 있다. 대명사의 뜻풀이에는 지시 대상, 지시 대상의 수, 인칭의 종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 올림말이 쓰이는 환경이 일정할 때에는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문체적 환경 또는 특이한 곡용 현상 등이 이에 속한다. 수사 가운데 기수사는 '-(한) 수'로, 서수사는 '-(한) 차례'와 같이 뜻풀이한다. 의존명사는 일반명사와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를 하되, 그 올림말이 갖는 제약은 모두 문법 정보로 보인다. 단위 의존명사의 뜻풀이에서는 단위의 종류와 용도를 기본으로 보이고, 단위의 크기 및 표시 기호 등은 부가 설명으로 한다.

동사와 형용사의 뜻풀이는 올림말의 문법 범주에 따라 각각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로 끝맺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어색할 때에는 상위언어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다, -되다' 파생어는 주올림말로 다루고 일반적으로 뜻풀이한다.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같은 방식으로 뜻풀이를 하나, 추상적이거나 문법적인 뜻 내용은 '-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상위언어적으로 뜻풀이한다.

관형사는 체언의 속격형이나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어색할 때에는 상위언어적으로 뜻풀이할 수 있다. 부사도 부사나 부사형으로 뜻풀이하되, 이것이 어색할 때에는 상위언어적으로 뜻풀이를 할 수 있다. 소리흉내말은 무엇이 내는 소리인지, 어떻게 나는 소리인지, 소리의 크기와 성질은 어떠한지가 드러나도록 풀이한다. 모양 흉내말은 본판 대상이 어떤 모양인지, 모양의 색깔과 성질 등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도록 뜻풀이한다. 계열을 이루는 흉내말은 기준 낱말을 정확히 잡아 구성 요소의 차이에 따라 각 올림말 간의 공통성과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나게 한다. 감탄사는 모두 상위언어적으로 뜻풀이한다.

토를 뜻풀이할 때에는 문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문체적 특성과 뜻빛깔도 잘 드러나도록 한다. 토는 '체언토의/용언토의 하나, -함을 나타낸다'와 같이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형태 토의 올림말에서는 결합 조건만 보이고, 구체적인 뜻풀이는 대표 형태로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 앞에 붙어> -의/-는 뜻을 더하는 말'과 같

이 뜻풀이한다. 접미사가 뜻을 더하되 품사를 바꾸지 않을 때에는 '<~ 뒤에 붙어> -의 뜻을 더하는 말'과 같이 뜻풀이한다. 접미사가 뜻을 더하지 않고 품사만 바꿀 때에는 '<~ 뒤에 붙어> [품사]를 만드는 말'과 같이 뜻풀이한다. 접미사가 뜻을 더하고 품사를 바꿀 때는 위의 두 내용을 결합한 뜻풀이를 한다.

다듬은말은 낱말에 한해서 올림말로 선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뜻풀이하고 '-의 다듬은 말'이라는 부가 설명을 한다. 다듬은말의 뜻풀이는 '다듬은말로 ~으로' 같음한다. 다듬은말이 남과 북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에서만 다듬은 경우에는, 다듬은말은 일반적인 뜻풀이를 하고 '-을 남에서/북에서 다듬은 말'이라는 정보를 부가 설명 또는 [붙임]에서 보이며, 다듬은말은 일반적인 뜻풀이를 하고 '남에서는/북에서는 ~으로 다듬음'이라는 정보를 부가 설명 또는 [붙임]에서 보인다.

## 5 마무리

남북이 분단되고 60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의 통일 조국을 위한 적극적인 작업을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민족어의 통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앞서야 함을 인식한 남북의 국어학자와 사전 편찬자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데 모여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어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분단 60년은 우리말과 우리말 연구, 그리고 사전 편찬 등에서 다소간 차이를 가져왔다.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간극은, 이 사전의 관계자들이 우리 민족어의 통일 발전에 대해 갖는 끝없는 열망과 의무감으로, 남과 북의 사전 편찬위원 및 연구자들이 서로 갖는 깊은 믿음과 이해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4) '지난날'나 '전날'은 쓰지 않는다. 단, 역사 전문어에는 '예전에'도 쓰지 않는다. '삼국시대에/세나라시기에'는 '세나라시기에'로 단일화하였고, '조선 때/리조 때'에 대해서는 '조선왕조 때'와 '리조 때'라는 두 가지 의견에서 좀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5) 부정적인 뜻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낡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다.

사전에서 뜻풀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섬세하여 이에 따르는 어려움이 크다. 더구나 남과 북이 그 동안 가져 온 사전 편찬의 전통과 연구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큰 이해와 우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전의 논의 과정은 매우 잘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기대한다. 현재 《겨레말큰사전》 종합집필요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사전 집필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집필 요강에서 아직 합의되지 못한 문제들과 세부적인 내용을 곧 보강하여 사전 집필을 완성토록 할 예정이다. 민족 앞에 훌륭한 우리말 사전을 보람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 사전의 남북 관계자들은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간노 1992. 외국인 편찬 한국어 대역 사전의 현황과 문제점. 『새국어생활』 2-4.  
 국립국어연구원 1995. 『집필 지침』.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실.  
 국립국어연구원 1997. 『통합 교열 지침』.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김민수 1996. 우리말의 국제적 분포와 통합의 전망.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IAKLE) 주최, 파리국제학술대회 발표문.  
 김민수 외 1991, 1996. 『국어 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김현권 1989. 언어사전 정의의 구성과 유형에 대하여. 『언어학』 11.  
 남기심 1987. 국어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성곡논총』 18.  
 대판외국어대학 조선어연구실 1986. 『조선어대사전』. 각천서점.  
 도원영 2003. 『민연국어사전』(가칭)의 특징. 『한국사전학』 2, 85-110면.

문세영 1938. 『조선어사전』. 조선어사전 간행회.  
 미야지마 1992. 일본어의 사전. 『새국어생활』 2-4.  
 박형익 2000.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1.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 2007.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신기철·신용철 1989. 『새 우리말 대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안상순 2005. 국어사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전학』 6, 69-86면.  
 연변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1995.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연세 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이기동 1988. 사전 뜻풀이의 검토. 『사전편찬학연구』 2.  
 이병근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이병근·박진호 2000.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인문논총』(서울대) 43.  
 이상섭 1989. 현대 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연세대) 61.  
 이상혁 2005. 국어 사전 편찬에서 어휘관계 정보와 그 사전적 처리. 『국어연구와 의미정보』 월인.  
 이희승 1961, 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정순기·리기원 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재수 1984. 『국어 사전 편찬론』. 과학사.  
 조재수 2000. 문제점이 많은 표준국어대사전. 『새국어생활』 10-1.  
 한글학회 1957. 『큰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한재영 1991. 국어대사전과 우리말 큰사전. 『문학과 사회』 18.  
 홍재성 1987.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정보. 『어학연구』 23-1.  
 홍재성·김현권 2003. Mel'čuk의 설명결합사전과 한국어동사 '사다/팔다'의 의미기술. 『언어학』 35.  
 홍중선 1996. 국어사전 편찬, 그 성과와 과제(1). 『한국어학』 3.  
 홍중선 1998. 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菅野裕臣 1992. 朝鮮語辭書(“世界辭書”. 竹林滋 외 저) 研究社.  
 Mel'čuk, I.A. et al. 1984.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1*,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겨레말큰사전》과 새 어휘

김재용

원광대학교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겨레말큰사전》의 여러 분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새 어휘 분과이다. 남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의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들을 문헌과 현장에서 찾아내어 《겨레말큰사전》에 올리는 것이 새 어휘 분과의 일이기 때문에 본 작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겨레말큰사전》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할 것이 이 새로운 사전이 기존의 남북 사전에 없는 좋은 말을 얼마나 올렸는가 하는 것일 터이기에 그 사명은 더욱 무겁다.

남북의 새 어휘 분과에서 새 어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남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의 조선말대사전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남과 북에는 이 두 사전 이외에 다른 많은 사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 남북이 새로운 어휘라고 규정하는 것은 남과 북의 대표적인 사전이라 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어휘들은 지칭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고 이 기준에 바탕을 두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은 매우 많은 양의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문헌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의 상당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생산된 문헌들

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어휘를 추출하는 작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하에 출판된 문학 작품들을 들추어보면 현재 남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의 조선말대사전에 없는 어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우선 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1936년에 발간된 백석의 시집 『사슴』에 수록된 유명한 시 『북관』을 훑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명태 창난젓에 고추무거리에 막갈질한 무이를 비벼 익힌 것을  
 이 투박한 북관을 한없이 끼밀고 있노라면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

시름한 배척한 귀귀한 이 내용새 속에  
 나는 가느스히 여진의 살내음새를 맡는다

얼근한 비릿한 구릿한 이 맛 속에선  
 까마득히 신라 백성의 향수도 맞본다.

끼밀다, 배척하다의 두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끼밀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될 정도로 아주 가까이 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척하다라는 것은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어휘는 일제하에서 분명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오르지 못하였다. ‘가느스히’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이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지만 조선말대사전에는 들어 있다. 하지만 그 뜻풀이가 다르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가느스름하게라는 의미로 이 어휘의 뜻풀이를 하고 있지만 백석 시의 문맥을 볼 때 이 어휘의 뜻은 희미하게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다. 백석은 이 낱말을 비단 이 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겨레말큰사전》에 이 어휘는 새로운 어휘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자체는 이미 올림말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뜻풀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끼밀다’, ‘배척하다’ 그리고 ‘가느스비’와 같은 아름다운 토박이 우리말을 《겨레말큰사전》에 올려 자칫 사라질 수 있는 우리 말의 유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누군가 백석의 시를 읽다가 이 낱말의 뜻을 몰라 《겨레말큰사전》을 들추게 되고 거기서 이 낱말들의 상세한 뜻풀이와 용례를 만나게 되면 매우 기뻐 할 것이며 사전의 소중함을 실감할 것이다. 또한 사전이 만들어진 이후 훗날 누군가 이 새로운 낱말을 접한 후 더욱 풍부하게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것은 비단 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설 작품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 올려져 있지 않은 많은 어휘들을 만날 수 있다. 1939년에 출판된 한설야의 장편소설 《청춘기》에는 두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어휘들을 만날 수 있다. ‘건염하다’, ‘강혀’, ‘나꿨다’, ‘눗눗하다’, ‘땀부룩하다’, ‘들여짜이다’, ‘땀’, ‘맘싸다’, ‘무틀하다’, ‘땀살머리맛다’, ‘바툼이’, ‘뵈디치다’, ‘베차맛다’, ‘삼작’, ‘씨연히’, ‘허무지르다’, ‘호조구러’, ‘휘엿하다’, ‘부르께이다’ 등의 어휘들은 한설야의 소설에 자주 나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광복전 작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광복 후 남북의 작품에서도 두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많은 어휘들을 발견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은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광복전 문헌과 광복 후 문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우리말들이 사전에 오르지 못하고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겨레말큰사전》이 추구하는 바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새 어휘 분과에서는 비단 문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좋은 우리 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현재 남북은 각 지역의 현장에서 기존의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될 가치가 있는 어휘 조사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어휘화 수준이 높지 않은

음운론적 방언의 경우 수록하지 않고, 어휘화 수준이 높은 어휘론적 방언은 가급적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현재 작업을 행하고 있다. 물론 수록 여부의 기준이 항상 뚜렷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찬원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감각 조정을 하고 있다.

남북은 각각 자신들이 검토하는 대상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방 이후 남의 것은 남에서 하고, 해방 이전의 것은 북에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전의 것은 부주의로 인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작품과 잡지를 엄격하게 나누어서 작업을 행하고 있다. 남북 각각은 문헌과 현장에서 수집한 어휘들을 놓고, 남북이 합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록해야 할 어휘와 수록하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어휘로 나눈다. 수록해야 할 어휘라고 판단된 어휘들을 매 분기 남북 회의 때마다 500개씩 교환한다. 이후 이를 각자 검토하여 다음 모임에서 의견을 주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행하고 있다. 8차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 각각 4000개, 합쳐 8000개의 새 어휘를 이미 모았다.

《겨레말큰사전》은 규범사전이 아니고 유산사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토박이 말을 찾아내어 올리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조사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조사 작업을 하였고 그 동안 조사된 3,711개 중에서 1,185개가 《겨레말큰사전》에 수록되어도 좋다는 판단이 잠정적으로 내려진 상태이다. 《겨레말큰사전》의 동시대성을 고려하여 문헌은 20세기 이후로 한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숨어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의 보석을 캐내는 이 작업은 품이 많이 들고 세심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서는 《겨레말큰사전》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려말의 규범 (MOOD를 중심으로)

박 벨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교 교수

### ② 평서문 형태

평서문이란 실제로 있는 것, 있었던 것, 앞으로 있을 동작을 가리킨다.

〈종결어미 현재형〉

Neutral, Plain	간다	본다	먹는다
Polite	가네	보네	먹네
Deferential	가오	보우	먹소
Honorific	가구마	보구마	먹스구마
	[kaakkuma]	[pookkuma]	[moksyykkuma]

〈과거형〉

Honorific	갔으구마	[kassykkuma]
-----------	------	--------------

〈미래형〉

Honorific	가겠으구마	[kagaessykkuma]
-----------	-------	-----------------

고려말에는 평서문 형태가 ㄴ다 / 오 / 우 / 구마 로 끝난다. ‘ㄴ다’라는 형태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3인칭한테 이야기한다. 종결어미 ‘오/우/소’는 나이가 같고 지위도 비슷한 경우에 사용이 된다. 소련 때부터 지금까지 고려인들은 한다고 연구했다.

고려말 평서문 존대형태는 ‘네’로 끝난다. 이 형태는 70세 노인이 어린이한테 쓰는 형태이다. 1917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네]로 끝난 형태가 체계되었다. 또는 남성이 어린이한테 쓰는 [자네] 대명사는 구어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경우에는 [애기]가 자주 쓰는 형태이다. [자네 왔네] - ‘그가 왔다’. 표준어에

### ① 머리말

이 논문은 고려말 MOOD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MOOD는 문법범주 중에 하나이다. 또는 말하는 사람이 사실의 관계를 설명한다.[1]

이러한 정의는 여럿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정의이다.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이 정의는 어형변화하는 언어하고 더 비슷할 것 같다. 한국어에는 다른 교착어처럼 MOOD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다.

우리는 고려말과 표준어에 있는 MOOD를 조직하고 비교했다. 고려말은 고이네이라고 한다. 고이네라는 말은 소련 시대에서 썼던 말이다. 고이네는 여러 방언이 혼동한 이유로 나타났다.

MOOD 형태를 비교하는 조건은 형태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규범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은 MOOD 형태를 합동하고 분간한다. 의미론적 규범이 모든 형태에 양상이 있는 것이다. 형태론적 규범은 똑같은 한 형태에서 합동하고 분간한다. 통사론적 규범으로는 모든 MOOD 형태는 종결의미로 비교된다.

한국어에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과 명령문 형태가 있다. MOOD 형태 도구는 술어접사라고 할 수 있다. 술어접사는 양상, 종결의미, 통사론적 태도를 가리켜 준다. 술어접사는 여러 역할을 한다. 즉 문

서는 이 대명사가 없다. 연구한 형태가 다른 접두사로 끝난 경우도 있다. 예문에 따라서는 [나라], [네], [귀니]도 종결어미를 갖고 있다.

Plain	가-나라
Polite	갑네 [kaamne]
Honorific	갑귀니[kaakkwöni]

[가나라] 라는 접사가 어른이 어린이한테 갈 때 말하는 형태이다. [가나라]는 어른이 어린이한테 말한다. [갑네]는 어린이가 어른한테 사용하는 종결형태이다. [갑네]는 어린이가 어른한테 사용한다. [갑귀니]라는 형태가 듣는 사람에게 종결하는 뜻으로 '간다' 고 한다.

### ③ 의문문 형태

Neutral	가는가	보는가	먹는가
Plain	가냐	보냐	먹냐
Polite	가네	보네	먹네
Deferential	가오	보우	먹소
Honorific	갑두[kaamdu]	봄두	먹슴두

의문형 '는가', '냐', '오' 는 고려말과 표준어 대화에서는 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이는 높임말형에 있다. 종결어미 '에요' 는 한국어회화에서 쓰지만 고려말에는 독특하지 않다. 종결어미 /mdu/ 는 북동 지역에 있는 함경도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다. 종결어미 /mnida/ 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쓰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쓴다.

### ④ 감탄문 형태

Neutral, Plain	가는구나
Honorific	가는구마

고려말에는 감탄을 나타내는 동사형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위 예문을 보면 예사말에 '구나' 를 사용한다. [구마]로 된 형태는 감탄의미를 갖고 있고 종결어미 역할도 한다. 형용사도 [구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결어미가 있다. 고려말에는 감탄을 나타낸 동사형이 적다. 예문에 [구나]는 예사말형으로 되었다. [구마]형태는 높임말형이다.

### ⑤ 명령형 형태

Neutral	가래리	보래리	먹으래리
Plain	가거라	보아라	먹어라
Polite	가세	보세	먹으세
Deferential	가오	보우	먹소/잡소
Honorific	갑서[kaapsö]	봄서	잡습서

명령형은 현재형태로만 쓰여 있다. [래리]는 예사말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3인칭에게는 명령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명령형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래리]로 끝난 형태를 예사말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어로 '가라고 해' 란 뜻을 갖고 있다. 표준어에는 이런 형태가 폐지된 형태로 고려한다. 그렇지만 고려말에는 많이 사용한다.

다음 종결어미단계 4개가 1인칭 명령을 의미한다. [거라] 형태는 어른이 아이들한테 쓴 형태이다. [거라]는 어른이 어린사람한테 명령하는 것을 표현한다. [세] 접사도 명령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른이 어린이한테 예의를 보여 준다. 하지만 [거라] 보다 더 예의 있는 태도를 보여 준다. 손호민 입장은 이런 형태를 완전히 명령형이라고 한다. 램스테트는 이 형태

는 사람이 바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 [3]. 고려말에는 [세] 접사가 현대표준어로 체계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높임말 [갑서]는 방언이라서 표준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

고려말에는 명령형은 [래], [계]접사로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래' 는 '가려면 좋을텐데'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러시아어로는 [브] 접두사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어른이 어린이한테 자주 쓰고 있다.

[계]는 표준어에 따라서는 예사말이라고 한다. 비슷한 나이고 친척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접사이다. 예를 들어서 [자아아께/잔다] 잡게 - '좀 자' .

또는 명령형은 간단한 형태도 있다. 예를 들어서 [먹어], [가지 마]. 손호민은 이 형태를 여러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말에서 여러 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예: 대구 '주어라'  
오나라 '이 쪽으로 와'

그런데 고려말에 '이리 와' 는 표준어하고 맞다.

### ⑥ 청유문 형태

Neutral	가래리	보래리	먹으래리
Plain	가자	보자	먹자
Deferential	가기오	보기오	먹기오
Honorific	가갑서	보갑서	먹갑서

고려말의 청유문형은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다. [라러리]가 고려말로 하는 사람에게는 폐지된 형태라고 한다. [기요] 남사람. 동갑, 친척사이에 쓴다.

예: 가기요 - '갑시다'

[갑소]는 최고의 예의의미를 갖고 있다. [기] 접사는 '같이 하자' 라는 뜻이다.

예: 가갑소 - '갑시다' 모든 형태가 많이 사용한다.

표준어로 쓴 [어요, 아요]와 [브니다] 어미는 고려말에 고유하지 않다. 하지만 [세]로 된 말은 '같이 보세' (봄시다) 70세이후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그리고 어른이 어린이한테 쓰는 표현이다. 높임말은 /어요/는 고려말에 [갑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 ⑦ 추측 형태

Neutral	가리라
Plain	갈게다
Deferential	갈게오
Honorific	갈게구마

[리라] 형태는 어른들이 쓰는 표현이다. 예: 빨리 가 소리르 해라 가리라 '가니까 빨리 가서 인사 해'. 다른 형태는 고려인들은 자주 쓴다. [구마] 접사는 평서문 형이 조직된다.

### ⑧ 직접 표현

Neutral	가리라
Deferential	갑데[kaapttel]
Honorific	갑더구마[kaapttöguma]

통보하는 형태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듣는 사람에게 3인칭 행동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3인칭이 문장에서 주어로 된다.

## Summary

We have considered the Category of Mood in Korean. The Mood is one of the grammatical-semantic categories, that expresses relation of the action to reality.

In KM the following moods can be distinguished: Indicative, Imperative, Retrospective, Prospective, Propositiv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KM and Standard shows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We managed to specify some peculiarities, typical for the KM.

1. ЛЭС, М., 1990.—С.321.  
Виноградов В.В.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 2 изд., М., 1972.
2. Сон Хо Ми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ью Йорк, Лондон, 1994.
3. Рамстедт Г.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1951.

# 남북 언어 표기의 단일화에 대하여<sup>1)</sup>

최호철

고려대학교 교수, 거례말큰사전 편찬위원

남북의 단일어문규범 작성위원회는 2005년 11월 개성에서 열린 제4차 남북편찬위원회에서 단일 어문 규범의 성격과 작성 원칙 및 범위를 정하고, 토론할 대상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단일 어문 규범의 성격은 《거례말큰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작성 되는 것으로서 남북에서 사용하는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4차 회의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남북 단일어문규범 작성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사항별로 기술하기로 한다.

## ① 자모의 배열 순서와 이름

초성 글자의 배열 순서에서 남북의 차이는 ㅇ과 ㄱ, ㄲ, ㅃ, ㅅ, ㅆ에 있다. ㅇ을 남에서는 ㅅ과 ㅆ 사이에 두고 있는데 북에서는 자음 글자의 맨 뒤에 두고 있으며, ㄱ, ㄲ, ㅃ, ㅅ, ㅆ을 남에서는 홀글자의 결합으로 보아 해당 홀글자 뒤에 분산하여 두고 있는데 북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보아 ㄱ, ㄲ, ㅃ, ㅅ, ㅆ 순서로 ㅎ 뒤에 한데 모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ㅇ은 ㅅ과 ㅆ 사이에 두고, ㄱ, ㄲ, ㅃ, ㅅ, ㅆ은 이 순서로

ㅎ 뒤에 두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중성 글자의 배열 순서에서 남북의 차이는 겹글자에 있다. 이들 겹글자를 남에서는 홀글자의 결합으로 보아 홀글자 사이사이에 분산하여 두고 있는데 북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보아 홀글자를 한데 모은 뒤에 두겹글자를 모아 두고 그 뒤에 세겹글자를 모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홀글자 10개를 한데 모아 먼저 배열하고 그 뒤에 겹글자 11개를 한데 모아 배열하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홀글자 10개의 순서는 남북의 차이가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겹글자 11개의 순서는 ㄱ, ㄲ, ㄴ, ㄷ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중성 글자의 배열 순서에서 남북의 차이는 쌍글자 ㅍ, ㅍ에 있다. 이들 ㅍ, ㅍ을 남에서는 홀글자의 결합으로 보아 해당 홀글자 뒤에 분산하여 두고 있는데 북에서는 하나의 단위로 보아 ㅍ, ㅍ 순서로 ㅎ 뒤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ㅍ, ㅍ 순서로 ㅎ 뒤에 두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그런데 초성과 중성 글자 배열에서 홀글자 전체를 앞에 두고 그 뒤에 쌍글자나 겹글자를 두는 대원칙에 따라 중성 글자의 배열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재조정하는 문제를 추후 중성 겹글자 배열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기로 하였다.

자모의 이름에서 남북의 차이는 ㄱ, ㄲ, ㅅ과 ㄱ, ㅃ, ㅅ, ㅆ에 있다. ㄱ, ㄲ, ㅅ을 남에서는 ‘기역, 디귤, 시읏’으로 부르는데 북에서는 ‘기읍, 디읍, 시읏’으로 부르며, ㄱ, ㅃ, ㅅ을 남에서는 ‘쌍기역, 쌍디귤, 쌍시읏’으로 부르는데 북에서는 ‘된기읍, 된디읍, 된시읏’으로 부른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기읍, 디읍, 시읏, 쌍기읍, 쌍디읍, 쌍시읏’으로 부르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1) 이 글은 《거례말》(이천팔년 상반기)에 실린 것임.

## ② 띄어쓰기

남북의 띄어쓰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의존 명사, 보조 용언, 명사 연결체, 수사의 띄어쓰기이다.

먼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에서 남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단위 명사에 대해서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은 모든 의존 명사를 붙여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일반 의존 명사는 띄어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붙여 쓰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그리고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서 남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미 '어' 바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북은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원칙적으로 보조 용언은 띄어 쓰되, 어미 '어' 바로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또한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에서 남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북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전체적으로 의미 단위에 따라 띄어 쓰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고 구체적으로 사전 집필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사의 띄어쓰기에서 남은 만, 억, 조 단위에서 띄어 쓰고 있는데, 북은 백, 천, 만, 억, 조 단위에서 띄어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 남북은 만, 억, 조 단위에서 띄어 쓰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 ③ 문법 용어

사전 집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문법 용어에 대하여 남북은 아래와 같이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 ④ 고유어의 형태 표기

고유어의 형태 표기에서 남북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적인 단어 외에 어미 '어, 오' 나 접사 등의 표기가 있다. 이 가운데 북에서 '여' 로 적고 있는 어미 '어' 의 표기와 북에서 '균' 으로 적고 있는 접사 '꾼' 의 표기에서는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하고 나머지는

〈표1〉 문법 용어에 대한 남북의 의견 접근

남측	북측	단일
어미/조사	용언토/체언토	용언/체언 뒤에 붙는 토
자립명사/의존명사	완전명사/불완전명사	자립명사/의존명사
단위명사	단위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인칭대명사	사람대명사	인칭대명사(1인칭, 2인칭, 3인칭, 부정칭)
지시대명사/의문대명사	가리킴대명사/물음대명사	지시대명사/의문대명사
양수사/서수사	수량수사/순서수사	수량수사/순서수사
성상형용사		성질 및 상태 형용사(성질형용사, 상태형용사)
성상관형사	성질관형사	성질 및 상태 관형사(성질관형사, 상태관형사)
수(량)관형사	분량관형사	수량관형사
감탄사	감동사	감탄사

〈표2〉 고유어의 형태 표기에 대한 의견 접근

	남측	북측	단일
어미	-을까/을꼬/을쏘냐/을게	-을가/을가/을소냐/을게	-을까/을꼬/을쏘냐/을게
접사	-장이, -쟁이 -배기, -빼기, -박이 -바리/바지/직하다 -뜨리다, -트리다	-쟁이 -배기, -빼기, -박이 -발이/받이/찍하다 -뜨리다	-쟁이 -배기, -박이 -바리/바지/직하다 -뜨리다/트리다

대체로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단어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견의 접근을 본 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우므로 생략하고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이면 위와 같다.

## ⑤ 사이시옷

남북의 사이시옷 표기에서 남은 고유어가 들어 있는 합성어에 한하여, 북은 철자가 같은 일부 단어에 한하여 앞말의 받침으로 ㅅ을 적음으로써 차이가 난다. 이 문제는 남북의 표기에서 큰 차이이므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로 하였다.

## ⑥ 한자어 두음 ㄴ, ㄹ 표기

남북의 한자어 두음 표기에서 남은 발음을 기준하여 ㄹ은 ㄴ이나 ㄹ로 적고, ㄴ은 ㄹ로 적기도 하지만, 북은 형태를 기준하여 ㄹ이나 ㄴ을 그대로 적는다. 이 문제 역시 남북의 표기에서 눈에 띄는 큰 차이이므로 이론적·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⑦ 문장 부호

사전 집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문장 부호의 차이에 대하여 남북은 다음과 같이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뎛점(·)과 중괄호( ( ) ), 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두점(:)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남의 따옴표와 북의 인용표는 둘 다 인정하되 그 사용의 범위에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즉, 남의 큰따옴표(“ ”)는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하는 데에, 작은따옴표(‘ ’)는 큰 단위를 표시하는 큰따옴표(“ ”) 안에서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고, 북의 인용표(《 》)는 출전을 나타내는 데에, 거듭인용표(〈 〉)는 단어나 어구를 강조해서 드러내는 데와 큰 단위를 표시하는 인용표(《 》) 안에서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 ⑧ 외래어 표기

외래어는 우리말에 들어와서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맞게 조정되어 사용되므로 모든 외래어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은 사전의 올림말 후보로 선정된 단어에 대하여 남북의 외래어 표기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각 측의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논의를 거쳐 의견의 접근을 보기로 하였다.

〈표3〉 외래어 표기에 대한 의견 접근

남/북 외래어	남측	북측	단일안
남북 각 측이 제안한 단일안이 서로 같은 것(보기)			
가솔린(gasoline)/가소링(gasoline)	가솔린	가솔린	가솔린
갈락토오스(galactose)/갈락토즈(英galactose)	갈락토즈	갈락토즈	갈락토즈
남측의 안으로 단일화되는 것(보기)			
뉘앙스(프nuance)/뉴앙스(프nuance)	뉘앙스	뉴앙스	뉘앙스
마네킹(mannequin)/마네퀸(英mannequin)	마네킹	마네퀸	마네킹
북측의 안으로 단일화되는 것(보기)			
러닝(running)/런닝(英running)	러닝	런닝	런닝
로봇(robot)/로보트(英robot)	로봇	로보트	로보트
남북의 안을 모두 수용하는 복수의 것(보기)			
갤런(gallon)/갈론(英gallon)	갤런	갈론	갤런/갈론
달리아(dahlia)/다리아(英dahlia)	달리아	다리아	달리아/다리아

그리하여 남북 각 측이 제안한 단일안이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 각 측이 제안한 단일안에 차이가 있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첫째는 남측의 안으로 단일화되는 것이고, 둘째는 북측의 안으로 단일화되는 것이며, 셋째는 남북의 안을 모두 수용하는 복수의 것이다.

이상의 의견 접근을 바탕으로 앞으로 단일어문규범 작성위원회에서는 사전의 집필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남북이 함께 논의하여 의견의 접근을 보게 될 것이며, 남북 규범의 차이에서 크게 부각되는 사이시옷과 한자어 두음 ㄴ, ㄹ 표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여 최선의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방언(고려말)의 분류와 특징

황 나제취다

국립타슈켄트사범대학 연구원

## ① 머리말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립 이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현재는 경제, 정치, 문화의 다방면에서 많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야 이곳에도 한국 동포(고려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 인식되게 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 사람들을 위해 한국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H2 비자를 만들어 한국에서 일정기간 노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청소년들을 위한 모국 방문이나 유학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다. 또한 우즈베크 현지에 합작회사들을 만들어 투자를 하고 있고, 의료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위한 단체들도 우즈베키스탄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높은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

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아주 높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졌고,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현지인들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가 보급되면서 고려 사람들 또한 모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재미있는 현상은 아이들이 먼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고려 사람들의 중장년층은 고려말을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기 때문에 고려말은 러시아어와 새로 보급된 한국어에 밀려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비록 고려말이 표준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동지역에서부터 유래되어 변형된 시대적인 특징과 지역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려말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우즈베키스탄 고려말 속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주(州)의 유코리-치르칙 지역에 위치한 '시온고'(현재는 '아흐마드 야사비' 라고 불림) 마을에서 수집된 것이다.<sup>1)</sup>

## ② 우즈베키스탄 고려말의 분류

언어는 계속적으로 바뀐다. 어느 나라이던지 언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고, 또한 어휘의 수도 변한다. 언어도 유행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고려말도 다민족 사회에서 다른 민족 언어와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였던 고려 사람들은 구소련 시대에 러시아어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1언어가 러시아어이다. 고려말은 고려 사람들끼리의 대화에만 사용되었고, 따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모국어와의 교류가 단절되고 점점 고려말의 단어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러시아어의 차용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려말에는 양복 윗저고리에 해당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고려말식으로 발음하여 '빠자께'가 되었다.

또한 고려말에는 정확한 표준 발음이 없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낱말을 말할 때 발음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당사자가 들었던 방식대로 발음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지저분하다' 라는 말은 고려사람들은 '지제브레하다'로 '자식'은 '저석'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 (1) 한국어와 비슷하나 발음의 차이가 있는 단어

여기에 수집된 단어들은 한국어와 발음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고려말	한국어
계회	교회
꺼부리다	구부리다
껍지	껍질
가매	가마
꺼드럽게	까다롭게
기티, 구티	귀
눈세비	눈썹
논새	농사
누기	누가, 누구
낭기	나무
들어오길래	들어오길래
단기다	다니다
두레메기	두루마기

고려말	한국어
무사하오	무사히
문보이	문보
만저	먼저
버버리	병어리
복새	복숭아
배우리	병아리
지낙	저녁
버므리다	버무리다
베	벼
부섯어	부었다
쌍디	쌍둥이
시미	수염
이기로	여기로
일굽	일곱
연치	연세
이틸이	이틀
이시래	이사
옥수기	옥수수
이매	이마
자석	자식
지저브레하다	지저분하다
초매	치마
코이	코
태기	턱
핵교	학교
하나 빼께	하나 밖에
했음도	했어요
현지가이	형제자매
지부로	집으로

### (2) 고려말만의 특색있는 단어

여기에 수집된 자료들은 원동지역에서부터 사용되었던 고려인들만의 특색있는 단어들이며 한국어에서도 예전에는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고려말에만 남아있는 단어들이다

1)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 올기(1924년생), 김만수(1924년생), 최본영(1931년생), 박 바체슬라브(1934년생), 이봉성(1933년생), 김 니콜라이(1924년생), 황 블라지미르(1934년생), 안 타미라(1933년생), 이 라리사(1937년생), 이올가(1939년생)



고려말	한국어
구두리	온돌
구수 본다	좋은 경우를 기다리고 있다
개맨차이타	깨끗하지 못하다
데림들	중국 군인들
드따바,뜨 가발	작은여행용가방
땡때기	확실하게, 정확히
벌거지	벌레
방치	빨래 막대기
버새벗	친구
봉각짜이	여자의 친척
베림배	거지
부뜨다	잡다
모태	옆에, 곁에
소이 없다	이익이 없다
연치	연세
오르지게	올 때
고본, 고본질	농사짓고 있다
달레따	의존하다
미담씨 없다	못 믿는 사람
벨라다	이상하다
배깨미	개미
서답	빨래
세깨	거울
예베따	살이 빠지다, 마르다
슬금치, 버채	실금치
서답	빨래
아슴차이타	감사합니다
암개 집	어떤 아는 집
아새빠자고 그런다	빼앗으려고 한다
엠나	어떤 처녀
재철이	프라이팬
진철	전혀, 원래
트가다	거칠다
궁기	구멍
눅다	싸다
동쌔	겨울
보이 꺼다	그거 보니까
살자이궤어	살아가는것이 아니궤어
어씨	부모
재비	자기

고려말	한국어
구새	굴뚝
대간, 대수	대충대충
베린다	참고 있다
부시캐, 아구리	아궁이
부수르기	기차
성세나다	돌아가시다
악때하다	고집스럽다
새가 차고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 (3) '이' 발음이 활용된 단어

고려말	한국어
가이	가니까
그러이	그러니까
누이	눈
남페이	남편
야든 너이	여든 넷
지바이	지방
처러이	처럼
서이	셋
오이	오니까

### (4) 외래어(러시아어나 우즈벱어)에서 차용된 말

원래 고려말에 없던 단어들이나 혹은 외래어로서 아주 쉬운 단어들은 그대로 고려말 단어로 차용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즈벱 사람을 고려인들은 끝의 말만 따서 '베깨' 라고 사용한다.

외래어	고려말	한국어
калопи	갈로쉬	고무신
пиджак	베자께	양복
папа	빠빠	아빠
радио	나발터	라디오
герой	게로이	영웅

외래어	고려말	한국어
мама	마마	엄마
мрамор	므라모르	대리석
колхоз	꼬르호즈	집단농장
барак	바라크	노동자들의 숙소
трактор	트라크터	트랙터
ракета	로켓	로켓
холодильник	홀로질니크	냉장고
пенсия	펜시아	연금
лампа	람파	램프
бригадор	브리가지르	노동반장
ведро	베드레	물통
рубль	루블	루블
коридор	꼬리도르	복도
костюм	코스쭈	양복

### ③ 우즈벱어 고려말의 문법적 특징

고려말은 문자로서 전달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언어습관에 의한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는 표준어가 존재하고 학교에서 표준어를 학습하게 되지만, 고려말은 한국어의 문법과 맞춤법이 전해지기 이전의 언어에 기원을 두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차이가 있는 문법 규칙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날씨'는 '나르씨'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ㄹ' 받침을 'ㄴ'이 아니라 'ㄹ'로 발음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불규칙 동사는 'ㅂ'이 탈락하고 '우'가 첨가되지 않고 발음이 나는 데로 말한다. 예를 들어 '맵다'는 '매워서'가 아닌 '매바서'(맵+아서)로, '덥다'는 '더워서'가 아닌 '더버서'(덥+아서)로 발음한다. 또한 아주 간단하게 줄임말이 나타나는 것도 고려말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 '집에 없는 모양이다'는 '집에 없느매다'라고 말한다.

다음은 이와 같은 문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단어들을 분류한 것이다.

#### (1) 'ㄹ' 받침을 'ㄴ'이 아니라 'ㄹ'로 발음하는 것

한국어	고려말
날씨	나르씨, 나르쌔
알 수가 없지	아르 수가 없짐싸
열심히	여르시미
날짜	나르짜
일시	이르시

#### (2) 'ㅅ', 'ㅈ' 받침을 읽지않고 '디'나 '티'를 붙임

한국어	고려말
옷	오티
옷을	우틀
못	모디
곳	고디
빛	비디

#### (3) 이중모음을 발음하지 못함

한국어	고려말
위	우이
뒤에	두에

#### (4) 'ㅂ' 불규칙 동사

한국어	고려말
굽다-구워서	구버서(굽+어서)
구워먹다	굽어먹다
눅다	누버서
덥다-더워서	더버서
맵다-매워서	매바서
밉다-미워서	밉어서
어둡다-어두운데	어드번데
춡다	칩아서

(5) 단어의 처음에 오는 ‘ㄱ’은 ‘ㅈ’으로 바뀌는  
두음법칙이 있음

한국어	고려말
기름	지름
김치	짐치
기침	지침
길	질
기둥	지둥이
길다	질다

(6) ‘여’를 ‘에’로 발음함

한국어	고려말
남편	남편
별이	베리
벽	벙이
마련하다	마렌하다
벼를 심다	베를 심다
벼락	베락
며느리	메느리

(7) 줄어들은 말

고려말	한국어
밥주기	밥을 주는 기계
절미기, 절매기	젊은 애기, 막내
집에 없느매다	집에 없는 모양이다
오르케 마라매다	옳게 말하는 모양이다
아이 가겠어	안 가겠어
이느가이	있는거 알고 있었는데
웅감이	유행하는 감기
싫어하느매다	싫어하는 모양이다
범베기	법을 모르는 계집이
보르모가 없다	볼 모양이 없다
마메 있지	마음에 있지

고려말	한국어
내 놓고 말지	꺼내 놓고 말하는 것이지요
가느매다	가는 모양이다
그러다나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보이	그거 보세요
갑데, 가드라	(강접)가는 거다

④ 맺음말

이상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방언(고려말)을 수집·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고려말)는 원동지역에서 사용하던 함경도 방언에서 기원한 것으로, 함경도 지역 방언의 발음적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비록 러시아어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려말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려인 집단 농장이 도시 근교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려인 공동체가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독립 이후 농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려인 집단농장은 거의 해체되었고, 또한 한국어의 보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고려말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고려말은 단순하게 하나의 방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 커다란 문화이다. 따라서 한 시대를 생존한 고려말에 대한 연구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일부 학자들에 의해 고려말의 수집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협동작업으로 문법적인 정리와 더불어 고려말 사전의 편집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CIS 지역에서 한국어 특징에 대하여

김 나탈리아

타슈켄트 동양학대학교

하게 이루어진다.

말은 개인의 인격을 반영하므로 비속어 은어 유행어 등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래어를 남용하는 언어 습관도 좋지 못하다. 또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예문>

(가)영희가 학교로 간다.

(나)그 때에 가서 다시 생각하여 보자.

(다)거울에 실 같은 금이 가 있다.

(라)이 김치는 맛이 가 있다.

① 머리말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단계로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목표에 따른 교육 내용이 선정된 후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진 후 이를 사용하여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여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수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있어도 수업효과는 교사가 선택한 교수법에 달려 있다. 특히 이 상태는 CIS 지역에서 연구해야 한다.

② 본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은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통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해진 말이 표준어이다.

어떤 지역 사회나 집단 내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해도 의사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의사 소통이 원활

예문에서 사용된 ‘가다’의 의미는 각각 조금씩 다르다. (가)에서는 ‘움직여 이동한다’, (나)에서는 ‘생기어’, (다)에서는 ‘변했다’, (라)에서는 ‘죽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보통 ‘가다’라는 단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가)의 의미를 떠올리지만, ‘가다’는 문맥에 따라 (나)와 (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려운 부분은 ‘가다’의 의미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단어 중에는 한자어가 많다. 한자어는 중국 문자인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를 말한다. 한자어가 많은 이유는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적는 데 한글을 사용한 것은 주로 20세기에 들어와서이며 그 이전에는 한자를 많이 사용한다. 이처럼 한자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자뜻과 고려말은 (CIS지역 사투리) 차이점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친구 - ‘동미’

남편 - ‘남제’

노인 - ‘나르그네’

위에 든 단어들은 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같은 한자가 여러 단어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와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 한국어에는 많다.

한자어는 학문을 할 때 사용하는 말에 많고, 고유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많다. 그래서 글에 따라 한자어가 많기도 하고 고유어가 많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문 서적에는 한자어가 많고,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는 한자어가 적다.

한국어에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짝이 적지 않다. 아래에 일부 예를 보인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CIS지역 사투리이다.

- 값 - 가격 - '값이'
- 집안일 - 가사 - '집일이'
- 책 - 도서 - '책이'
- 돈 - 화폐 - '돈이'
- 올해 - 금년 - '오르해'

최근에 들어서 한자를 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한자어도 점점 쓰이지 않고 있다. 자주 사용되는 말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어려운 한자어는 아예 쓰지 않거나 쉬운 말로 바꾸고 있다.

한자어를 빼도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온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왔다고 하여 외래어라고 한다. 외래어가 많이 늘고 있다. 한국은 20 세기 초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일본

어에서 온 말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들 말은 잘 안 쓰려고 하고 또 계속 다른 말로 바꾸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CIS지역 사투리는 러시아어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물통'을 물통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드레[vedro]'라고 한다. 또는 음성 한국말에서보다 더 강하다.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발달해 있어 단어도 상대에 따라 골라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사장님', '선생님' 처럼 단어 뒤에 '님'을 붙이는 것이다. 친한 사이거나 아랫사람이면 그냥 '사장', '선생'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한다. 최근에 들어와서 '님'은 더욱 많이 쓰이고 있다. CIS지역 사투리는 가끔 '님'을 '놈' 대신 사용한다. 예를 들면 시골노인들이 '도둑놈' 대신 '도둑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가족을 부르는 말에서도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가르키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른 말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말에는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님'이라고 해야 하고, 자식이 있는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자기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는 '아비'나 '아빤'이라고 해야 한다. 어머니와 관련된 말에서도 '어머님 어머니 어미 어멈'처럼 구분이 된다. CIS 지역 사투리는 아버지를 '아비'라고 할때도 있고 '빠빠'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시부모 앞에서는 며느리가 남편 이름을 불러도 된다.

#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어휘

—한자어·차용어·신조어—

이기갑

목포대학교 교수

## ① 고려말의 요소

고려말은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고려말은 '원동 고려말'과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두 시기를 구별할 수 있다. 원동 고려말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 이전까지 러시아 연해주 지역(고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원동(遠東)'이라 부른다)에서 사용되었던 말이라면, 중앙아시아 고려말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 사용된 말이다.

원동 고려말의 줄기는 동북 방언이다. 동북 방언은 내부적으로 함북 방언, 함남 방언, 육진 방언의 세 하위 방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 하위 방언은 모두 원동 고려말의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고려 사람들은 그 선대가 어느 방언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하위 방언의 차이를 드러낸다. 연해주 지역에 사는 고려 사람들은 중국말과 러시아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원동 고려말에 반영된다. 따라서 원동 고려말은 기본적으로 동북 방언을 줄기로 하고, 중국말과 러시아말로부터 차용된 말들이 섞여진 복합체였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이래 중국과의 지

리적, 정치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중국말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러시아말을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수많은 러시아말이 고려말에 유입되었다. 그밖에 중앙아시아 토박이말인 우즈베크어나 카자흐어 등으로부터 부분적인 차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 하의 소련, 그리고 꼴호즈의 집단농장에서 주로 살아가는 동안 고려 사람들은 원동 시절과 다른 다양한 신개념을 필요로 하였고, 이런 필요에 따라 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중앙아시아 고려말은 원동 고려말에 러시아 차용어, 중앙아시아 토박이 민족어의 차용어 그리고 고유어 신조어들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a. 원동 고려말 = 동북 방언 + 중국말(한자어) + 러시아말
- b. 중앙아시아 고려말 = 원동 고려말 + 러시아말<sup>2</sup> + 중앙아시아 토박이말 + 고유어 신조어

이 글은 중앙아시아 고려말 가운데 동북 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원동 시절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자어와 중국말 차용어, 중앙아시아로 옮겨온 뒤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러시아말과 현지 토박이어로부터의 차용어,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체제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조어 등이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 ② 분석 자료

이 글에서 분석할 고려말 자료는 1999년 7월(7일~24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녹취한 자연 발화이다. 당시의 조사 결과는 이미 이기갑 외(2000)으로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고려말의 음성/음운, 문법, 어휘적 특징 등이 기술된 바 있다. 이기갑 외(2000)에는 질문을 통해 확인한 고려말 어휘들의 목록이 다수 제

시되었는데, 이번 글은 제보자의 자연스러운 구술 담화 자료에서 사용된 것을 골라, 그 용법, 어원, 문화적 배경 등을 논의한 것이 다른 점이다.

구술 발화는 리계옥(바바나, 당시 82세)과 신영희(로사, 당시 74세) 두 분의 것이다. 리계옥은 3년제 사범대학을 나온 인텔리이며 공산당원으로 활동했었고, 신영희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를 마친 학력이 전부이며 주로 집단농장(꼴호즈)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리계옥과 신영희는 약간의 방언적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표준말에서 접두사로 쓰이는 '되-'가 고려말에서는 부사로 쓰이는데, 아래 (1)처럼 리계옥은 '되', 신영희는 '되비'를 사용하여 모음 사이의 /ㅂ/의 유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2)에서와 같이 '오누이'를 리계옥은 '오람누이', 신영희는 '오람누비'라고 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1)  
가. 그래 거길 되 짝 가져갔소(리)  
나. 더러는 저 되비 제 깎까즈로 나가구(신)

(2)  
가. 중국에 갔다가 그께 야:덜이 그 오람누이 내게 손자 손녀 있는데(리)  
나. 개 우리네는 오람누비 아이 들어오자이까나 무스 그 주구 우리르 싸 맥이겠소?(신)

조사 '처럼'에 대해서도 리계옥은 '처럼', 신영희는 '처럼'라고 말하였다. 아래 (3)이 이를 보여 준다.

(3)  
가. 죄인처럼(리)  
나. 어시르 돕는 것처럼 나가 일했지(신)

예 (1)-(3)을 보면 신영희는 전형적인 동북 방언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리계옥은 한반도의 서부 방언적 특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음 사이의 /ㅂ/가 탈락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구술 발화에서 리계옥은 부모의 고향이 '봉천 백골'이라고 증언하고 있지만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고려 사람들의 언어 차이는 부모를 비롯한 선대의 방언적 차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언 차이는 무시하고 두 사람의 말을 모두 전형적인 고려말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리계옥의 2시간 발화와 신영희의 4시간 발화를 전사한 자료이다. 전사는 형태 전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사에 사용된 기호 가운데 =는 고려말을 사용하는 제보자를 가리키고 -는 조사자를 가리킨다. 제보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2와 같이 숫자를 덧붙였다. 조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리계옥의 답화일 경우에는 =(리)라 표시하고 신영희의 답화는 =(신)이라 표시한다. 두 사람의 말이 부분적으로 동시 발화 될 때에는 겹치는 부분을 {}로 묶어 표시하였다.

## ③ 러시아말

리계옥과 신영희는 모두 고려말과 함께 러시아말을 드문드문 섞어서 말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리계옥의 답화가 신영희에 비해 러시아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신영희는 정규적인 러시아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하는 러시아말은 매우 기초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 신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러시아말 구사 능력을 '바사레말'이나 할 정도라고 표현하였다. '바사레' 또는 '바사르'는 시장을 가리키므로 '바사레말'이란 곧 시장에서 사용하는 극히 초보적인 러시아말이란 뜻이다.

신영희 할머니가 사용하는 러시아말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문화어나 정치적 어휘이다. 이런 범주에 드는 것으로는 '끼노(영화), 마시나(자동차), 무제(박물관), 뽀미드(도마도), 스페온(첩자), 고시니차(국경선), 아까르존(아코디온), 빠스쁘드(여권)' 등이 있다. 대응하는 고려말이 없어 러시아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로서, 원동 시절과 달라진 사회 체제나 문화 때문에 필요해진 말이다. '울뜨르두어' 같은 낱말이 이런 사정을 극명히 보여 준다. 이 말은 '노역전쟁'이라는 뜻으로, 이차세계대전 당시 고려의 성인 남자들을 독일군과의 직접적인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대신 후방의 광산 등지에서 노역을 담당하도록 한 일을 말한다. 이런 말은 이차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진 말이므로 러시아말이 직접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상적인 기초어휘가 러시아말로 쓰이는 수가 있다. '몰로도이(젊은이), 읍셈(아주), 헐레브(빵), 쪼짜(아주머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경우는 같은 뜻의 고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말을 혼용하는 예이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초적인 낱말들이기 때문에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기초적인 낱말이기 때문에 현지 토박이들이나 러시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빈번하게 소용되는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빵의 고려말은 '떡이'지만, 가게에 가서 빵을 살 경우 '헐레브'라는 러시아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교육 받지 않은 고려 노인들이라 이러한 기초적인 러시아말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말과 고유어가 공존하는 낱말로써 '전보'와 '쩨리폰'은 흥미로운 예이다. '전보'와 '쩨리폰'은 모두 전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전보'란 문자나 숫자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전파나 전류로 보내는 통신이다. 전보는 전화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통신수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려 사람들이 '전보'라는 말로 전화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전보에 뒤이어 전화가 널리 쓰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써 왔던 '전보'의 의미를 전화에까지 넓혀

사용한 탓일 것이다. 이런 결과로 오늘날 중앙아시아 고려말에서 '전보'는 전화를 가리키는 고려말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전화를 가리키는 러시아말 '쩨리폰'이 도입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담화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전보'는 '전보를 하다'와 같은 동사적 구성에 나타나지만 '쩨리폰'은 모두 명사로 쓰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아래 예 (4)가 이를 보여 준다. 이것은 고유어와 외래어가 공존하면서 그 사용 환경이 차이는 경우이다.

(4) 가. =(신) 개 너무도 소식이 없이 수부닐 하이 또 까까라스(러) 이 기림이 이 시월혁명 기림날으 전보라 하터라이 왔지. 갔지 내.

나. =(신) 우리 이 상새난 아바이 딸이 그저 미쩨리(러) 한 번씩 어 새~일날 기림날 그양 쩨리폰으 수부닐 하오.

다. =(신) 지네 집이 쩨리폰 있다나이

명사적으로 쓰이는 '쩨리폰'은 특히 전화의 종류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어부렁 쨨리폰'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어부렁 쨨리폰'이란 두 집이 함께 사용하는 전화를 말한다. 전화번호의 끝자리만 달리 함으로써 한 개의 전화로 두 집이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어부렁 쨨리폰'의 '어부렁'은 표준말 '어우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 '어불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어부렁 쨨리폰'에 대립하여 홀로 쓰는 전화를 지칭할 경우 '쩨리폰'을 합성한 이름은 따로 없다. 대신 신영희의 발화에서는 '독(獨)을루 하다'나 '독기(獨器)'와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아래의 (5)와 (6)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신) 쩨리폰 내 어부렁 쩨리포이 돼나йка나 내건 양 배열래지.

- 어부렁 (쩨리폰이 뭐예요?)  
= {입에} 눈~이 이시리(?) 내 이기 사구 또 다른 집이 저쪽에 살 하루 <-어~> 뉘닌 하닌이진(?) 늬이라 한 내 따지. 야 숫자가 한나이 따지. <-어> 그러다나йка 뽕노시느(러) 뽕느 제가 다 하자무 독을르 할 쉬 있지. 독을르 하루 도이 더 많지. <-아하하>

(6) =(신) 저 쨨리폰 값은 저는 독기이까나 더 우리마 더 물겠지  
=2 두이 있습구마.  
= 둘이 있소? 응 그럼 내 마이 물겠구마. 나두 두 집이 이까나 양백열랴 무지 한 집이서. 이것두 절바이던 게 더 재 뵈소. 야~.

#### ④ 한자어와 중국말

##### 4.1 한자어

고려말은 표준말과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단음절 한자를 어근 또는 명사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단음절 한자어 어근은 '順하다, 强하다, 虛하다 ...'처럼 형용사에 흔하다. 물론 '請하다, 命하다, 亡하다'와 같은 동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려말에서는 '畢하다, 養하다'처럼 표준말에 없거나 그 용법이 다른 단음절 어근 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畢하다'는 표준말에서도 쓰이지만 '병역을 필하다', '등기를 필하다'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다. 반면 고려말에서는 예 (7)에서 보듯이 '일', '전쟁', '학교'에도 쓰일 수 있어 표준말과 같은 의미적 제약이 없다. 그렇다면 고려말의 '필하다'는 목적어에 아무런 의미적 제약이 없는 표준말의 타동사 '마치다'에 대응하는 셈이다.

(7) 가. 니 올라가 맥에라 저거 오늘으 다 우리 필하겠는 테느 니 없이 못 하겠다.(신)  
나. 오래 그저 전제~에 필하구 한 양년 사다가 떠났 소.(리)  
다. 내 칠년제르 필하구(리)

고려말에는 '기르다'나 '키우다'의 뜻으로 '재리우다'라는 말이 쓰이는데 '養하다'라는 한자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아래 예 (8)의 '양합데'는 대나무를 기르는 경우이다. '養하다'라는 동사가 아예 없는 표준말과 달리 고려말에는 단음절 어근 동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이다.

(8) 그거 쪼통 양합데. 거그서. 재리우데. <-어> 그래 그 갔든 집에 참대도 조끔 가져오구. 예떠 원산에 돌도 좀 가져오구(신)

그러나 고려말이 단음절 한자어를 즐겨 쓰는 더 분명한 증거는 조사와 결합하는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말에서는 단음절 한자어에 조사가 결합하여 그 한자어가 명사적으로 쓰이는 예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 4.1.1 파이 나다

(9) =(신) 개 내 또 아 때 또 장난~이 췌소. 거저 선선아들 가 같이 때게 땡겠지. 그러다나йка나 좋은 거 모 입었지 뉘. 나가무 이내 파이 나구 나가무 이내 파이 나구 좋은 걸루 아이 입히지야. 그저 질긴 걸루야 막 어 드메 걸어놔두 메두 아이 지구 이런 걸루 해 입혔소, 우리 받아바이.

위의 예 (9)에서 보듯이 '파이 나다'는 어린이가 밖

에서 험하게 놀다가 옷을 망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때의 ‘파’는 한자 破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표준말에서도 破가 ‘깨어지거나 상한 물품’ 또는 ‘사람의 결점’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재료가 불량해서 이번에는 파가 많이 났다’처럼 쓰일 수 있다. 그렇지만 옷을 망치는 경우를 가리켜 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같은 ‘파’라 하더라도 고려말과 표준말은 용법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 4.1.2 독을루

(10)  
 =(신) 켈리폰 내 어부령 켈리포이 돼나йка나 내건 양 배열래지.  
 - 어부령 {켈리폰이 뭐예요?}  
 = (입에) 눈~이 이시리(?) 내 이기 사구 또 다른 집이 저쪽에 살 하루 <-어~> 뉘닌 하닌이진(?) 놈이라 한 내 따지. 야 숫자가 한나이 따지. <-어> 그러다나이 끼 뽕노시느(러) 뽕느 제가 다 하자무 독을루 할 쉬 있지. 독을루 하루 도이 더 많지. <-아하하>

‘獨을루 하다’의 ‘獨을루’는 ‘혼자’나 ‘홀로’의 의미로 쓰였다. 전화기를 이웃집과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쓸 경우 ‘獨을루 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獨을루’는 단음절 한자 獨에 도구격 조사 ‘을루’가 결합한 것이다. 표준말에서 獨에 조사가 붙어 명사적으로 쓰이는 예는 없다. 이런 점에서 고려말은 단음절 한자어 獨을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1.3 와느르

(11)  
 가. =(리) 다 못 그렇지. 어 고려사람 고려글은 마이 아

는 사람들 그렇게 받아 외오지. 어떤 사람들은 망 마들이 모르는 거 어떻게 받아 외우겠소. 모 외우지. 그렇소. 그래 재밌소. <-음> 거저 완왈 재밌소.

나. =(리) 그래 쪼련땅~ 와 귀건하거든~야~? <-예>;  
 예. 개 이전 같음 좋았겠는데 시바느 와느르 좀 새십하지(=위험하다). 잘 못 나가 뎅기두 아~니~ 되구. <- 예 그런 것 000>; 어! 예! 뎅기지 말아야 되구. 거러구 문으 명심해 걸어야 되오. <-예> 음 그래야 되오. 시방 아주 몸 조심 해야 되오. <-예>

다. =(리) 그러구 일년으 뎅게래두 그렇게 추미르 못 붙였지. 그렇게 어저느 와느르 재밌지. 음. 그렇소.  
 라. =(리) 그래구 한 구들 가니~ 야! 이 (2초) 거저 식당 같은 게 와느로 큰 그런 텨데. 그런데 중국 여자가 고려 여자들으 분간으 못하겠거든. 거저 나이 어리나 젊으나 짝 머리르 찌지구 바램이 부니~ 문지 올라서 가투리(=까투리) 같으오. 그러구서 리 자전거르 짝 타구 뎅기지. 바지르 짝 입지.

고려말에는 ‘와느로’, ‘와느르’, ‘완왈’과 같은 부사가 있다. 위의 예 (11)에서 보듯이 ‘아주’ 또는 ‘매우’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들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의미로 미루어 보면 ‘와느르’는 한자 完에 도구격 조사 ‘으로’가 결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으로’는 고려말에서 ‘으르’나 ‘을르’등으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인데, 위의 발화에서는 ‘으르’나 ‘으로’가 결합되어 ‘와느르’나 ‘와느로’로 쓰였다. 이밖에 ‘완왈’도 나타나는데 ‘완을르’로부터 변이된 것으로 추정된다.

‘와느르’를 사용하는 리계옥의 담화에서 도구격 조사는 ‘-을르’가 쓰인다. ‘새을르’(새로), ‘병을루’, ‘청년회원을루’, ‘당원을루’, ‘선봉잘루’, ‘재빌르’(스스로), ‘첫번을루’ 등이 이를 보여 준다. 그리고 /르/ 다음에서는 ‘고려말로’, ‘노시아글루’처럼 ‘-로’나

‘-루’만 나타난다. 따라서 ‘와느르’를 ‘완을르’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기갑 외(2000:35)에는 도구격 조사가 ‘-을르’ 외에 ‘-으르’로 쓰이는 예가 보고된 바 있다(예; 내 눈으로 보재이 했는데). 아마도 고려말의 도구격 조사는 ‘-으르’와 ‘-을르’가 혼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와느르’를 ‘완을르’로 분석하는 것도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완전함’이 정도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 예는 흔하다. ‘완전히’나 ‘온통’ 등이 이런 예에 속하고, ‘온통’에 대응하는 고려말 ‘옴판’에서도 이러한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 (12)가 이를 보인다. ‘완을르’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일 것이다.

(12)  
 옴:판 나느 같이 야:때 일은 거 한나또 없소. 오 만나 못 봤소.(리)

#### 4.1.4 호(戶)

‘집’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뜻이다. 둘째는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의 뜻이다. 표준말에서 이 두 경우를 셀 때 사용하는 분류사가 다르다. 전자처럼 건물의 뜻일 때에는 ‘채’와 ‘집’이 쓰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집’과 ‘호(戶)’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진으로 집 두 채가 무너졌다’라고 할 때는 ‘채’와 ‘집’을 쓸 수 있지만, ‘모두들 떠나고 오직 두 집만 남았다’에서는 ‘집’과 ‘호’의 분류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호’는 예스러운 표현이나 글말에 쓰여 입말에 쓰이는 ‘집’과 문체상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말도 ‘집’의 의미에 따라 분류사를 달리 쓴다. 건물의 경우에는 분류사 座를 쓰고 집안을 가리킬 때

는 家와 戶를 쓰되, 家는 입말, 戶는 글말에 쓴다. 중국말의 家와 戶를 쓰는 양상은 한국말에서 ‘집’과 ‘호’를 쓰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고려말은 예 (13)에서 보듯이 집안을 뜻할 때 분류사로 ‘호(戶)’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표준말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말에서 ‘호’는 주로 글말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3)처럼 자연스러운 입말에서 戶를 쓰는 것이 고려말이기 때문이다.

(13)  
 가. =(신) 이 얼마따서 그때 그래 고레 사람들이 세 호이 갔소.  
 나. =(신) 할름으느 그저 군대 술기들이 마술기들이 후르르르 들어오데마는 내리 실습데. 개 내리 실으이까느 우리 찬으 예떠 그 풀호 풀호즈 사 람들으 다 만져 나가 우리 술기 모자라 두 희이 떨어졌소.

## 4.2 중국말

### 4.2.1 양백(兩百)

제보자 신영희는 (14)와 (15)에서 二百을 ‘양백’으로 말하지만, 二千은 ‘이천’과 ‘두천’이라 표현한다. 반면 리계옥은 ‘양천’이란 표현을 써서 신영희와 대조를 보인다.<sup>1)</sup> 표준말에서 二와 兩은 구별되어 사용된다. 兩은 ‘양면(兩面)’, ‘양측(兩側)’, ‘양가(兩家)’, ‘양자(兩者)’ 등과 같이 서로 대립되는 두 경우를 가리킬 때 흔히 쓰인다. 반면 二는 수를 셀 때 쓰인다. 그래서 분류사와 더불어 쓰이거나 아니면 수 단위인 ‘십’, ‘백’, ‘천’ 등과 함께 쓰인다. 물론 ‘양분(兩分)’이나 ‘이분(二分)’처럼 혼용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표준말 어법에 따른다면 ‘백’이나 ‘천’은 당연히

1) 이기갑 외(2000:33)에서도 ‘양천 년’의 ‘양’을 중국어의 영향으로 해석한 바 있다.

가 결합되어 '이백'이나 '이천'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고려말에서는 '이백' 대신 '양백'으로 쓰며,二千은 '이천'으로도 쓰지만 그밖에 '양천'이나 '두 천'처럼 쓰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고려말에서 '이백'이나 '두 백'과 같은 말은 전혀 쓰이지 않는다. 반면 '이천'에 대해서는 '이천', '양천', '두 천'의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셈이다.

二百과 二千을 각각 '양백'과 '양천'이라 표현하는 것은 중국말의 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중국말의 경우 백이 둘일 경우 二百과 兩百이 모두 가능하지만, 천이 둘일 때는 오로지 兩千으로만 쓰인다. 따라서 수의 자릿수에 兩을 붙여 표현하는 것은 중국말 고유의 방식인데, 고려말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두 천'은 고려말의 전형적인 표현법이다. 三千, 四千을 고려말에서 '세 천', '네 천'이라 하는데 이런 식의 표현법을 따른 것이 '두 천'이기 때문이다.

(14)  
=(신) 일한 쌀 그런 버리 <-아> 버르크 양백그람인단 한 푸르다다 <-어> 푸르두르 한나 버면 양백그람 에 이무 삼백그람씩 이래 <-음> 태와주지. <-으흠> 그래 그쩍에느 거저 푸르두르 마이 별게 요구지. <-으흠> 야 마이 별어야 베두 마이 타지. <-으흠> 개 일년에 기껌 타서 거저 한 말 끄끄 양백꺀로나 삼백꺀로르 타 들에오지. 일년에.

(15)  
가. =(신) 돌아오는 해느 시장 없단디 그래구 여그 식 료[싱노] 값이 얼마 올라간 줄 아오? <-아하> 가 뜯 올라갔소. <-아하> 가루 한 칸에 아아 이천 어 양백이 했오.  
- 일천 양백  
= 의천냥  
나. =(신) 그런던 기 지금 와선 어전으 두천이 됐소.

(16)  
지금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으 양천여 명~ 부씩볼까 여(пускают)(=석방). 내나 무조방서 했소.(리)

#### 4.2.2 고려하(話)

고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보통 '고려말'이라 하는데, 리계옥 할머니는 '고려말'과 함께 '고려하'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고려하'는 물론 '고려'에 한자어 話가 결합한 말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시아말'과 함께 '노시아하'란 말도 쓰고 있다. 아래의 발화 (1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말에서 話는 언어를 뜻하며 話는 방언을 가리킨다. 그래서 '중국말'은 中國語나 漢語이지만 '북경 방언'은 北京話라고 한다. 다만 교육을 받지 못한 중국 사람들은 話를 '언어'의 뜻으로 쓰기도 한다. 그래서 '외국어'를 표준 중국말로 外語라 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外國話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려하'와 '노시아하'의 '하'는 중국의 시골 사람들의 용법처럼 話를 확대해서 사용한 결과이다.

(17)  
=(리) 여 아, 아라파크 프레치 쿠르쓰 거저 사범학교 프레치 쿠르쓰저 마감으 쿠르쓰서 읽었소. <-음> 그래 일으메 발써 들오와서 삼십팔년도에 아우! 발써 프리찌찌(리)(тридцать) 삼십칠년도 동짓달부터 <-으음> 발써 고려하르 없이우. 노시아하르 노시아글 어 전으 막 할랄에 네 과정씩 막 영지. <-음> 바빻소. 야! <-음> 고려하르 없었소.

#### 4.2.3 마오재(毛子)

고려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을 가리켜 '노시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 '마오재'라는 말도 쓴다. 그래서 러시아말을 (19)에서처럼 '노시아말'이

라고도 하고 '마오재말'이라고도 한다. 다만 '마오재'는 '노시아'와 달리 낮추어 말하는 말맛이 있다. (20)에서 '천한 말'이라고 하는 신영희 할머니의 증언이 이를 보여 준다.

(18)  
=(리) 그래 그저 이 마오재 마따나 니수단이푸다(러)  
- 무슨 말이에요?  
= 이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단 말이오. <-으음> 그렇게 되오. <-으음> 그래 무슨 어찌겠소?

(19)  
=(신) 개 노시아말도 어떤 건 뽕너시(러) 번지구 어떤 건 절반 번지지. <-어~> 말으 몰라서. <-어~> 그랜 녀으느 우리 궂헤 여자들으 발써 내 말이 나무 웃으며 서두 다 알아들지 내 말 하는 거. <-2 예> <-엄> 그래 어떤 건 그르지. 말 하는 건 알아 못 들겠다 그래. 알아 못 들음 가마 있어라. <-영> 내게. 그럼 어떤 머나 그래두 어트게 되든디 어트게 번지든지 개도 마오재 말로 번진다. (-, -2 웃음)

(20)  
=(신) 노시아 사람은 우리네느 보토 로시아 사람이라 구 부르오 <-어음> 야.  
- 다른 말 없구요?  
-3 마오재라 허드라고  
= 마오재라고도 하고  
- 마오재가 무슨 뜻이에요?  
= 개 마오재라고 음썸 천한 말이지.  
- 천한 말이에요?  
= 야 그래 로시아 사람이라고 보통 부르지.

'마오재'는 털북숭이, 즉 털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중국말 毛子(maozi)의 발음을 그대로 차용한 말이다. 毛子는 러시아 사람들을 아시아계와 구분하는 신체적

특징으로서 몸에 털이 많음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毛子 대신 老毛子라는 말을 쓴다. 중국말에서 老는 원래 존경의 표시(예: 老師) 또는 어른(예: 老張)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그러나 老毛子에 쓰인 老는 존경이나 어른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상대를 놀리는 듯한 감정 또는 친밀한 느낌을 드러내는 접두사로 기능한다.

老毛子는 러시아와 접촉이 많은 중국의 동북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얕잡아 부른 말에서 유래하였다. 오늘날에는 비하의 의미가 사라지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로 변하여 쓰인다(www.yznews.com.cn). 그렇다면 '마오재'는 이미 원동 시절부터 사용되었던 말로 보인다. 다만 중국말 老毛子의 老가 갖는 조롱이나 친밀감을 한국인들은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여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언학 사전」에 의하면 '마오재'는 동북 방언에서도 쓰였던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동북 방언에서 원동의 고려말로 유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체적 특징으로써 종족을 지칭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코쟁이'는 코가 큰 서양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푸른 눈'이나 한자어 碧眼 역시 서양 사람을 가리키지만 '코쟁이'와 달리 비하의 말맛은 없다. '코쟁이'와 '벽안'은 모두 얼굴에 있는 코와 눈동자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것인데, 만약 이러한 것이 보편적이라면 '마오재'가 나타내는 털은 단순히 몸에 난 털이라기보다 얼굴에 나 있는 수염이나 구레나룻 등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있다.

## 5 중앙아시아 토박이말

### 5.1 둥간(Дунгане 東干)

(21)  
=(신) 여그서도 배채라 하오? 이기 또 이림이 따오?

- 배추.  
 = 배추. 예뻐 동간들도 그게 또 우리 비축합니, 그 이름이. 비채라 하지 그사람들으.  
 - 누가요?  
 = 동간 나라 사람들이.  
 - 동간들이 누구니까?  
 = 이기 여기 삽니, 동간이라고 그런 존재. 여 까사끄 우즈베크 동간 무슨 존재들이 많재이오? 나 나랏사람들이 <-아> 개 그 사람들도 우리 말 끝에 가선 어떤 말은 비축하오.

위의 예 (21)에서 '동간'은 까사끄나 우즈베크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동간'은 지칭의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중국의 회족(回族) 전체를 가리킨다. 7세기 경부터 중국에 들어간 아라비아인이 오랫동안 한족과 혼혈되어, 중국말을 전적으로 쓰게 됨에 따라 한화(漢化)의 정도가 높은 이슬람교를 믿는 집단을 형성하였다. 생활 전체를 규제하는 엄격한 계율을 가진 이슬람교 신앙 때문에 한족과 구별되어 회회(回回)·회자(回子)·회민(回民) 등으로 불렸다. 위구르족은 이 회족을 '동간'이라 불렀다.

중국 북서의 닝샤 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를 중심으로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등에 모여 살고, 기타 중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다. 성격이 상무강직(尙武剛直)하고 농업 외에 군인·여관업·교역업·상공업 등 대담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무함마드에서 유래하는 마(馬)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고, 이슬람교 사원을 청진사(淸眞寺)라고 부르는 등 일반의 언어 풍습은 전적으로 한화되어 있다(두산백과 www.encyber.com). 동간은 터키어에서 온 말로서 '개종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잔류자'란 뜻도 있어 이 말은 서방의 이슬람교도가 중국에 귀화한 것을 의미한다.(『동아세계대백과사전』)

좁은 의미의 '동간'은 중앙아시아에 사는 회족만을 가리킨다. 주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11만에 달한다. 중앙아시아 동간족을 이루는 주체는 100년 전에 중국에서 이주한 회족이다. 이 회족은 주로 두 갈래로 나뉜다. 1862년 산시·간쑤 지방에서 일어난 중국인 이슬람교도의 반란은 점점 파급되어, 1863년에는 신장의 이리 지방에서 동간족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1864년에는 쿠치(庫車:龜茲)에 동간·위구르인 연합 반란군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어 반란은 신장 전역으로 확대되어, 한때는 신장 지방 전역이 동간·위구르인 연합정권과 우즈베크족의 코칸드 한국(汗國) 장군 야쿠브 베그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은 청나라 세력을 신장 일대에서 추방하였지만, 야쿠브 베그 정권과 동간족과는 민족적으로 반목하여 청나라에 대한 통일 이슬람 세력을 결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나라 쥘룽탕(左宗棠)의 토벌을 받고 분쇄되었다. 동간반란은 야쿠브 베그가 쥘룽탕의 추격을 받고 1877년 자살함으로써 평정되었다. 그 결과 청나라는 중국의 속령이던 이 지방에 성제(省制)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한 성으로 병합하였다(두산백과 www.encyber.com). 결국 이 반란의 실패로 신장 지역의 동간족들은 러시아 七河地區으로 달아났는데, 이들이 곧 현재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간족을 이룬다. 다른 하나는 1882~1884년간 러시아 정부에서 신장을 중국 정부에게 돌려주었을 때 중국을 떠나 러시아로 이주한 회족 사람들이다. 그 이후 현지 민족, 예를 들어 키르기스족, 카자흐족, 우즈베크족, 러시아 민족 등을 흡수하여 현재의 인구에 달하였다(www.baidu.com).

동간어는 동간족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산시와 간쑤 방언이 중앙아시아에서 변이된 것이다. 동간어 내부에서 다시 간쑤 방언과 산시 방언으로 나뉜다.

현대 동간어의 문어는 간쑤 방언을 기초로 한 것이고 간쑤 방언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한다. 그리고 1940~1980년 사이에 동간족 작가들이 동간어로 창

작한 작품에 사용된 언어를 표준 어법 규범으로 삼는다. 동간 문자는 아랍 문자, 라틴 문자의 형태를 거쳐서 1954년에 키릴 문자를 기초 문자로 하여 오늘에 이른다. 동간어의 어휘는 청나라 때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皇上' 또는 '皇帝', 행정기관을 '衙門', 경찰을 '衙役', 학교를 '學堂'으로 부른다(www.baidu.com).

이처럼 동간어는 중국의 간쑤 방언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자어에 기원을 둔 우리말과 그 발음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발화 (21)에서 제보자 신영희 할머니가 증언한 대로 배추를 동간족들이 '비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기원이 한자어 白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신영희 할머니는 '동간'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말을 상용하는 일부 민족들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위의 (21)은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21)의 '동간'이 까사끄나 우즈베크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동간'은 까사끄나 우즈베크 민족 전체가 아니라 이들 지역에 살면서 중국말을 사용하는 회족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 5.2 사께, 배께, 말고기

중앙아시아 토착 민족들을 은밀히 부르기 위해 고려 사람들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까사끄족은 '사께', 우즈베크족은 '배께'처럼 앞의 음절을 줄여 말한다. 까사끄족이나 우즈베크족과 달리 딸따르족은 '말고기'라고 부른다. '말고기'는 말을 기르는 유목민족을 낮추어 말한 표현이다.

(22)

-2 할머니 그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이 사께라고 부른다고 그런00

=(신)야 [그레오.]

-2 (무슨) 무슨 뜻입니까?

= 누이 야들으 어떠 적에느 말함 그저 그게 비밀말이지.<-2 예> 야 이래 머 여기 모다서 한내나 둘이 어그 그 까사끄 있재였겠소? 그럼 까사끄라 하무 (웃음) 알아들으까바 개 우니 사께락 하지. <-2 예> 사께라 하문 가들도 알아들지. (웃음) 그이 고려사람들이 그리전에 내 못댕졌뎡 들으라구. (?) 놈 뽕~원이 지끼리 한택이 없는(?) 사께라 하무 벌써 이작 사람이 그 사람으 알아 못 듣재오? <-아> 사겐두 뉘시기. 그래 딸따르 앉음 또 말고기라 하구 이르오.

그런데 접미사처럼 쓰이는 '-께'를 이용하여 민족을 나타내는 것은 중국의 조선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리계옥 할머니의 담화에 나오는 아래 예 (23)은 리계옥 할머니가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사는 조선족들의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족들도 우즈베키스탄을 '우즈베께'라고 부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의 나라 이름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말로 지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가리키는 러시아말 узбеки(uzbek-i)의 끝 모음을 /께/로 바꾼 것이다. 같은 방식이 '로스케'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로스케'는 러시아 사람들을 낮잡아 지칭하는 말로 풀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말 русский(russkij)에서 온 말이다. 역시 '루스키'의 끝 모음을 /께/로 바꿔 '로스케'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으로써 러시아 사람이나 러시아 민족을 비하하는 지칭어로 사용한 것이다.

'로스케'와 '우즈베께'를 보면 러시아말 ки(ki)의 모음을 /께/로 바꾼 '-께'나 '-께'로써 민족을 가리키는 접미사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전통에 따라 까사끄족은 당연히 '까사께'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토착민들이 알아들 수 없도록 첫 음절을 줄여 '사께라'하였고, '우즈베께'는 둘째 음절까지 줄여 '배께'가 된 것이다.



(23) 어이구 할머니 우리는 우즈베끼스탄 우즈베끼스탄을 우즈베끼스탄 아니~구 우즈베끼락 합니다 이럽 데.(리)

## 6 신조어

### 6.1 '고본질'

#### 6.1.1 개념<sup>2)</sup>

'고본질'은 구 소련 체제 하에서부터 고려인들이 해 왔던 사적인 임차농을 가리킨다. 소련에서는 모든 땅이 국가 소유였으며, 그 관리는 집단농장인 콜호즈에서 담당하였다. 고려인들은 콜호즈에 소속되어 농사를 짓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콜호즈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수확량 가운데 임차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사적인 농업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콜호즈 측에서는 각 콜호즈에 배당된 수확량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본질을 묵인하면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는 라이온(행정구역)의 토지관리위원회와 계약을 맺어 토지를 빌릴 수 있었으므로 합법적인 고본질이 성하게 된다. 아래 예 (24)는 '고본질'이 '땅값'을 물어야 하는 임차농임을 말해 주고 있다.

(24) =리) 고본질 하는 것도 그 따값으 적게 받으무 사람들이 고추 감자르 숨어 먹어도 다 나가지. 땅값이 세서 못 나가지. <-아> 땅값으 세게 받아 먹소. 음 그렇소.

고본질은 한 개인이 하는 농업이 아니라 소규모 집단 농업이다. 이때 고본질의 영농 단위를 러시아말로 '브리гада(бригада)'라 하며 그 책임자를 '브리가질(бригадир)'이라 한다. '브리гада'나 '브리가질'은 고본질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 (25)의 신영희 할머니 진술에서도 보듯이 이 말들은 본래 집단농장인 콜호즈의 노력 단위와 그 책임자를 가리켰던 말로서, 나중에 고본질의 영농 단위와 그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신영희 할머니는 이를 각각 '부르가드'와 '불가지리'라고 부른다.

(25) =신) 그래 불가지리(리)두 콜호즈서 불가지리두 아이 어느 부르가드(리)든지 일으 잘 하는 건 저어까지 자 아지. <-으흠> 개 그거 그쩍 시저으 콜호즈서 밤나 없이 일했소. <-으흠> 낮이나 밤이나 없이 일했지.

한 브리гада는 10호 정도의 가호가 모여 이루는데, 브리가질이 빌린 땅을 각 가호에 일정한 양으로 배분한다. 그 양은 가호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체로 한 가호는 약 3ha 정도의 땅을 경작한다. 가호가 경작하는 땅의 위치는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브리가질은 자신의 땅 위치를 스스로 정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브리гада를 형성하는 가호들은 서로 친척 관계에 있는 수가 많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샅꾼을 쓰기도 한다.

초기의 고본질은 주로 벼농사에 국한되었으나 나중에는 소득이 더 높은 채소와 과일 농사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수박, 양파, 가지, 오이 등이 주된 대상이다.

고본질은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고향을 떠나 먼 지역에서 행하기도 한다. 이런 원거리 고본질의 경우, 농토 근처에 임시 숙소인 '막'(또는 '갈뚜막'<sup>3)</sup>)을 지어 생활한다. 막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식품은 농토의 자투리땅에서 재배한 것을 먹는 수가 많다.

고본질의 임차료는 초기에 현물로 납부하였다. 이때에는 수확된 곡물의 50% 정도를 납부하였으나 나중에는 곡물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곡물의 시장 가격이 콜호즈가 책정한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고본질과 우리의 전통적인 소작농을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소작농은 기본적으로 수확된 농산물을 지주와 소작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눠 갖는 것임에 비해 고본질은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서는 수확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흥년이 들더라도 소작농은 수확된 양의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지만, 고본질의 경우에는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흥년이 들어 땅의 임차료를 내지 못하거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를 일러 '불토질했다'고 한다(백태현/이애리아 2000)<sup>4)</sup>. 리계옥 할머니는 (26)에서 보듯이 이를 '부르토지'라 표현하고 있는데, '불토질'의 '불토'는 혹시 한자어 不土에서 온 말인지도 모르겠다.

(26) =리) 그래서 이 용새질으 나간 게 여름에는 조괵(=조금?) 따르 가주구 일 하는 게 농새 아이 되오. <-음> 올해두 자꾸 비 와서 어 아이 되오. <-음> 스 두 해 동안으 부르토지 했소. 따값으 마이 봤소. <-음> 따값으 작년엔 친구게서 쫓 선대르 해서 물었소.

둘째, 소작농은 소작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토를 빌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본질은 수 백 킬로 떨어진 원거리에서 행할 수도 있다. 셋째, 소작농은 한

가족이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는 것이지만 고본질은 10호 내외로 이루어지는 부르가드가 임차의 주체가 된다. 넷째, 소작농은 벼농사가 주이지만 고본질은 오히려 채소와 과일 농사가 주를 이룬다.

#### 6.1.2 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고본(股本)'은 '예전에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사업을 할 때에 이들 공동 투자자가 각각 내던 자본금 또는 그 투자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를 가리킨다. 현대 중국말에서 股份 또는 股分은 '주식 증서'나 '주식 출자본'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말의 '고본'과 같은 뜻을 지닌다. 그러므로 고려말의 '고본질'은 원래 있던 '고본'에 접미사 '-질'이 덧붙은 말일 뿐 결코 새로 만들어진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용법을 독특한 임차농 방식에 원용한 것이 다를 뿐이다.

국가가 땅을 투자하고 경작인은 임대료와 노동력을 투자한 것이므로 이 역시 일종의 공동투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본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본질의 영농 단위가 브리гада이고 한 브리гада가 맡는 농토는 거기에 속한 각 가호에 배분되므로, 각 가호에 배당된 토지가 곧 고본일 수도 있다. 백태현/이애리아(2000:71)는 '고본'을 '고본질에 참여하는 한 개별 가호가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이 股本의 사전적 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브리гада에 속하는 가족은 평균 3ha 정도의 땅을 배당받는데, 노동력이 풍부한 가족의 경우 그 두 배의 땅을 배당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고본 땀다', '이번엔 두 고본 받았다'와 같은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백태현/이애리아(2000:71)).<sup>5)</sup> 따라서 '고본질'은 땅을 배당 받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호의 관점에서 사용된 말이

2) '고본질'의 개념에 대해서는 백태현/이애리아(2000)에 주로 근거하였다.  
3) '갈뚜막'은 갈대로 지은 막을 가리킨다. '원두막'의 '두막'에 갈대를 가리키는 '갈'이 합성된 말로 보인다.

4) 백태현/이애리아(2000)에서는 '불터졌다'라는 말도 소개하고 있다.  
5) 러스킹/연재훈(1992:121)에서는 '고봉 부쳤다'와 같은 표현도 제시되어 있다.

라 할 수 있다. 자신이 부여 받은 '고본'을 바탕으로 한 농사라는 의미의 고본질인 것이다.

## 6.2 '땅집', '청대집', '하마단'

고려말에서 단독주택은 흔히 '땅집'이라 하고 아파트는 '청대집'이라 한다. '청대'는 한자어 '층대(層臺)'일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층대'는 '층층대(層層臺)'의 준말로서 계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고려말에서 '청대집'의 '청대'는 계단이 아닌 '층(層)'을 가리킨다.

과거 고려 사람들은 모두 땅집에서 살았을 터이므로 굳이 '땅집'이란 말이 필요 없었을 것으로도 생각되나, 2층 이상의 큰 건물과 구별하기 위해 '집'과 '땅'을 합성하여 '땅집'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래 '땅집'은 단층집을 가리키며, '청대집'은 다층의 건물을 가리켰던 말로 생각되는데, 오늘날 '청대집'은 다층의 건물 외에 아파트를 뜻하기도 한다. 아파트란 본시 다층이므로 아파트가 곧 청대집인 것이다. 아래의 담화 (27)에서는 삼층 건물의 각 층을 층대라고 하되, 각 층을 구별하여 '밑에 층대', '중간 층대', '상층대'로 부르고 있다.

(27)  
=(리) 밑에 **층대**는 식당~이구 **중간 층대**는 이거 우리 시방 이 보 **예베르** 달이는 데구 **상층대**는 유하요 <-2 예> 그렇게 좋게 지었소.

'청대'는 기차에 설치된 이층 침대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아래의 발화 (28)가 이를 보여 준다.

(28)  
=(리) 그렇소. 그렇게 야 우리 원도~에서 들을 때 정:

마 바뻐소. 오일 동안 수이리(?) **층대** 각(как) 죄인처럼 **뚝** 이런 바곤(리)(вагон)에다 거저 막 실어서 거저 **떨**에왔소.

- 음 할머니 근 불술기는 안 탔지요?  
= 우리느 그런 곧 야  
- 아버지 어머니 그랬지요?  
= 어::**재**? 우리도 그런 **엔**어 물건으 싱는 그런 데다 내 이래 **층대**르 매구 우에 아래 한냥도 못 **끓**여 먹소.

중앙아시아의 단독주택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은 한민족의 전통대로 텃밭에서 다양한 채소를 길러 먹는다. 따라서 이러한 마당과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을 일러 '땅집'이라 부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땅'이란 바로 마당이나 텃밭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리계옥 할머니는 아들이 어디 사느냐는 물음에 대해 '아들이 하마단에 사오.'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하마단'이란 '한마당'을 말하는 것인데<sup>6)</sup>, 그 뜻은 '마당을 같이 쓰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가리킨다. 한국어로 말한다면 '같은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의 '같은 동(棟)'에 산다고 해야 할까?

(29)  
- 그럼 아들이 어디 살아요?  
= 아들이 **하마단**에 내 **제다**(леда)(=남편)  
- 아하 하마단  
= **하마단** 내 **제다** 세상~으 떠난 지 어저느 **열한**해. <-음> 음 개 아들이 **하마단**에 있소.

## 6.3 '절당'과 '괴혜'

'절당'은 '절'과 '당'이 결합한 말이다. '절'은 중이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을 가리키며, '당'은 집을 뜻하는 한자 堂이다. 고려 사람들은 이 '절당'으로써 기독교의 예배당을 지칭한다. 불교는 전통적인 종교인 탓에 '절'은 예부터 써 온 말이다. 반면 기독교는 19세기 이후에 유입된 종교이므로 기독교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은 따로 만들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절'을 기반으로 한 '절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예배당을 가리키도록 넓혀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사람에게 있어 '절'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가 아닌 넓은 의미의 '종교 일반'을 가리키는 셈이다. 같은 말이 불교와 기독교에 두루 쓰이기 때문이다. 한편 堂 역시 '법당(法堂)'이나 '예배당(禮拜堂)'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교와 기독교를 포함하는 종교적 건물에 흔히 사용되는 명칭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에 개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에서 쓰는 '교회'라는 이름이 '절당'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교회'는 고려말에서 '괴혜'로 발음되므로 '절당 > 괴혜'로의 대체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30)  
=(리) 괴혜? 괴혜 다니쟁구? 어! 괴혜 내 열성스레 댕기오.

## 6.4 '말리사'

수의를 고려말로 '말리사'라 하는데, 이는 '말'과 '의사'의 합성어로서 '말을 돌보는 의사'라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왜 하필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유목민들에 있어 '말'이 가장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말은 유목민에게 있어 필수적인 수송 및 운송 수단이다. 중앙아시아인들이 즐겨 먹는 고기 가운데 말고기가 가장 비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수의를 '말리사'라 부른 것은 고려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뒤의 일로 추정된다. 연해주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처럼 말이 생활의 필수적인 동물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중앙아시아로 옮겨온 이후 유목민족과의 교류 속에서 생겨난 말인 셈이다.

(31)  
=(신) **괴**래 그 영감으 **괴**래 그 영감은 무슨 일 했는가 하이까나 **말리사**. **말리사** 고려 거기서는 무스기라 하는가? 이 **페르마(리)**(=소, 돼지, 닭 등을 기르는 농장) **증승** 이사  
- 아 예 예 **예** 수의사 수의사

## 6.5 '군복'

정부에서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러시아말로 '펜지야(пенсия)라고 하는데, 고려 사람들은 '펜지' 또는 '군복'이라고 한다.

아래 (32)의 담화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군복'은 '펜지'의 번역어로 생각되는데, 잉여적인 것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 접두사 '군'에 한자어 福이 결합된 말로 추정된다. 은퇴 후의 수입이니 '군터더기 복'이라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군복'은 고려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후, 연금 제도가 확립된 후에 만들어진 신조어임에 틀림없다.

(32)  
가. =(리) **얼** **괴**래 시방 **그**거 무조방사 했지 우리르. 무조방사 해서 **그** **조**끔 이 **군복**으 타는 거 **군복**으 타는 거 **조**끔씩 **올레**주구 <-음> **그** **담**에 **그** 들 **올** 때 **질로치르(리)** **조**끔씩 주구. 그러구 **그** 우리 **씩** 거저 **쇠** **마**소 도야지 **집**으 **요**래 **그**쎄(?) **씩** **농**구 들오지 **애**있소? <-음> **그**거 **해**결하구 **씩**끄 **씩** **수**속했지. **그**랜데 **돈**이 **없**다구 **아이** 주지. **나**자르 **바이에브(리)**(Назарбаев) **아이** 주오.

나. =(리) 음 **그**래 **신**다섯이 **되**니까니 **아** **다**섯인 거느

6) 이기갑 외(2000:29)에서는 러시아말에 /o/이 없는 탓으로 고려말의 /o/이 /L/으로 발음되는 예가 있다고 하고, 그런 예로 '방안'을 '반안', '동삼'을 '돈삼', '콩밭'을 '콘밭' 등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들었다. '한마당'을 '하마단'이라 발음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원살에 오십살에 군복으 타 먹게 되구 <-음> 아  
한내날 두르 섞어자느 윈 다숫에 오십오세 가서  
군복 타게 됐지. <-음> 뽀지르.

## ㉞ 땀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중앙아시아 고려말 가운데 한자어와 차용어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을 살펴보았다. 고려말은 단음절 한자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필하다’, ‘양하다’와 같은 용언 외에 단음절 한자어에 조사가 결합한 예들이 이를 말해 준다.

고려말의 차용어는 대부분 중국말, 중앙아시아 토착어, 러시아말로로부터 유입된 것들이다. 중국말에서는 수를 셀 때 二 대신 兩을 쓰는 방식, 언어를 가리키기 위해 한자어 話를 쓰는 것 그리고 러시아 사람을 가리키는 ‘마오재’와 같은 것들이 차용되었다. 중앙아시아 토착어로부터 차용된 낱말로는 위구르족이 중국화 된 회족을 지칭하는 낱말 ‘둥간’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토착 민족을 가리키는 ‘사께 나 배께’ 등도 토착어와 러시아말이 섞여진 것으로서 고려 사람들이 적당한 변형을 가한 것들이다. 러시아말로로부터 차용된 것은 매우 많다. 아직 고유어로 만들어지기 전에 러시아말에서 유입된 것들이 많고, 비록 대응되는 고려말이 있더라도 기초 어휘에 속하는 낱말들 가운데 러시아말에서 차용된 것들이 발견된다.

신조어는 모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온 이후에 만

들어진 것들이다. 소련의 사회 체제와 문화의 필요에 따라,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말들로서 ‘고본질’, ‘땅집’, ‘청대집’, ‘하마단’, ‘절당’, ‘말리사’, ‘군복’ 등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낯선 땅에서 고단한 삶을 꾸려 나가야 했던 고려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 방향의 역사를 어렵듯이 보여 준다. 낱말을 통해 그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아무쪼록 이 글이 고려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참고문헌

- 동아출판사백과사전연구소(1982),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러스킹/연재훈(1992),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말. 한글 217.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백태현/이애리아(2000),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고본질. 비교문화연구 6집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연구동/이현종(2000),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 웹사이트

- www.baidu.com  
www.encyber.com  
www.yznews.com.cn

# 고려인 노래를 바탕으로 한 고려말 분석

## Analysis of dialect words of Korean songs

박 월렌지나

니자미국립타슈켄트사범대학

## ① 서론 - 역사와 고려말

이 글에서는 고려말을 아동 노래, 농민 노래, 민요를 통해서 연구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많은 언어 학자들은 ‘고려말’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고려말이라는 단어가 이미 1920년도부터 사용되었다. (킹, 로스-연재훈 (1992:84-85), 김필영(2004:15 -18), 광충구(2007:1)에 의하면 ‘고려’, ‘고려어’, ‘고려말’, ‘고려사람’이라는 명칭 쓰임).

조선 시대가 마치면서 코리아 반도 북쪽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굽음을 피하며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었다. 일본 침략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땅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원동까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또는 나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살게 됐다. 그런 많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고려인들은 자기 언어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언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그 언어를 알고 쓰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진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 들고 있다. 벨리 박 언어 학자에 의하면 “고려말은 죽어가는 언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도 “쑤웨뜨쓰끼에 고레이즈”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 말은 바로 소련에서 사는 고려인들을 카르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난 지금은 “우즈베크쓰끼에 꼬레이즈”, “카자흐쓰끼에 꼬레이즈”, “키르기쓰끼에 꼬레이즈”라는 말을 쓰고, 그것은 ‘고려인’이라는 말을 의미한다.

1850년~1860년도에 러시아 원동에 고려사람들이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 법으로는 1864년도에 러시아에서 살 수 있게 되어, 그 때 처음으로 /치진해/, /시집이/, /양치해/ 등 등 시골들이 생기게 되었다. 거기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러시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1867년 1월 우수리이쓰꼬 남쪽에 러시아 원동에 처음으로 고려 교포들이 사는 지역이 생기게 되었다. 그 때는 (999명) 185 가족으로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그 사람들 일을 열심히 잘 하였고 또는 자기 언어, 풍습 등등을 지키고 있었다. 학교에서 고려말로 수업을 하고, 연극도 고려말로 하고, 작가들은 고려말로 소설과 시를 썼다.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다. 그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모이든지, 일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1937년도에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로 오게 되었지만 언어를 그 대로 썼다.

## ② 본론

### 1. 아동 노래

지금까지 많은 아동노래는 남아 있지 않지만 많은

어른들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이 노래를 잘 알고 있다. 아주 쉬운 노래고 단순한 곡으로 되어 있다.

1. 아이들이 놀자 파리 타고 놀자  
다라난다 다라난다 뒷발질을 잘 한다.
2. 반들반들 눈빛 아지러니 봄빛  
가고 가고 또 가고 가고 싶다 끝 없이.

본 연구에서는 노래구성보다는 노래에 쓰인 어휘 연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어떤 어휘들 또 어떤 뜻으로 쓰여있는지를 본다. 뜻은 고려인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대로 쓴다.

단어	뜻
아이들아	*아이+들+아 *아이는 대부분 남자8-14살 아이들을 가리키고 *들 - 복수형 접미사 *아 - 호칭을 할때 쓰인 어미
놀자	*놀다+자 *자 - 무슨 일을 할 때 청유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일을 가리킨다.
파리	*이 단어는 겨울에 쓰인 큰 설(雪)매를 가리키고, 이 어휘는 똑같은 뜻으로 함경도 사투리에서 쓰임
타고	*타다+고 *겨울 눈으로 갈려있는 길로 가고 있는 설매 뒤로 뛰어가면서 그 설매를 잡고 찬난으로 아이들이 타고 놀 때.
다라난다	*다라나+나다 *빨리 달려 가는 말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
뒷발질을 잘 한다	*뒷발질+을 *잘 하+나다 *그 빨리 달려가는 말이 발을 뒤로 하면서 뛰어갈 때 잘 한다는 뜻. 그런 것을 할때 신나서 하는 말

단어	뜻
반들반들 눈빛	*반들 반들은 어떤 물건이나 변지가 깨끗했을 때 쓰인 어휘 *여기는 눈빛이 반들반들한 것은, 눈빛이 내려오면 더러운 변지도 하얗고 눈으로 덮어서 햇빛과 만나게 되면 표준어로 반작반작거린다는 뜻
아지러니 봄빛	*봄에 빛인 따뜻하고 우리와 부드럽게 놀고 싶은 빛
가고 싶다	*가다+고 싶다 *여기는 동사 +고는 똑같은 행위를 2번 이상 했을때 가리킴과 무엇을 하기를 원할 때 쓰인 어휘

동요의 전체 뜻은:

추운 날씨 때 아이들은 시골에서 살면서 놀데 없어서 길에서 지나간 말을 보고 그 뛰어 간 말 뒤로 달려가면서 설(雪)매를 잡고 설(雪)매를 타고 신나게 놀고 재미있어서 기분이 좋아서 노는 것이다.

날씨는 춥지만 해는 빛이고 그 해 빛을 받은 눈은 그 햇빛 밑에서 아이들 저럼 신나게 놀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는 말 까지 계속 가고 싶다는 뜻.

## 2. 농민들의 노래

다음으로 하는 노래는 노동가이다. 밭에서 하루 중 일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힘 든 일을 노래로 이겨나면서 실질로 있었던 일들의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노래이다.

1. 백리 벌러 넓은 들에 가을 하기 아주 바빠  
소 방울이 왈랑 절랑 대풍 강하노라  
왈랑 절랑 소를 머다  
돌다리 건너서니 에해에 에해야(\*2)  
큰 파 만경에 바다 저럼 철렁있네.

2. 꼴호즈 마당에는 버가래 산 더미고  
소 방울이 왈랑 절랑 소를 머다  
장단을 맞추노라  
왈랑 절랑 소를 머다  
벗단 무지 들어오니 에해에 에해야(\*2)  
꼴호즈 마당에는 풍년을 실어왔네.

단어	뜻
백리 벌러	백리로 벌리는
넓은 들에	넓은 들에서
가을 하기	가을에 밭에서 일을 하기
아주 바빠	아주 그 때 추수 때문에 바쁘고
소 방울이	소 목에 걸려있는 큰 벨은
왈랑 절랑	이쪽 저쪽 하며 소리를 낸다
대풍 강하노라	아주 많은 벼를 추수해야 되고
소를 머다	소를 밭에서 쫓기며
돌다리 건너서니	돌로 된 다리를 건너가게 하다
큰 파 만경에 바다	아주 넓은 밭에 바다처럼 파도가 철렁하고 있네
꼴호즈 마당에는	집단농장 마당에는
벗 가래 산 더미고	벼 큰 단지들 산더미로 많이 갖다 놓고
장단을 맞추노라	북에 리듬을 맞추고
벗단 무지 들어오니	벗단을 많이 갖고 온다
꼴호즈 마당에는	집단농장 마당에는
풍년을 실어왔네	풍년을 많이 갖고 왔다

노동가의 전체 뜻은:

고려인들 살고 있는 집단농장에서 백리 큰 땅으로

봄에 벼를 심었는데 가을이 와서 추수할 시간이 왔고 사람들 밭을 보면 그 밭은 아주 큰 바다 파도가 바람에 놀고 있는 것 저럼 벼 밭도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 음악에 리듬을 소 방울과 북소리가 같이 하며 그 풍년에 기쁜 기분을 더 기쁘게 만들어 주며 춤출 수 있게 해 준다.

## ③ 결론

이런 노래들 보면서 단어 분석을 하게 되면 아주 재미있고 또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그 농사 문화의 똑같은 점들 많이 볼 수 있다. 쓰이는 말들과 표현들은 이 언어가 한 언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요나 자기 조국 땅이 아니고 다른 고향으로 된 땅에서도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언어를 쓰면서 또는 저의 민족의 노래특징을 쓰면서 만들어진 노동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은 핏줄을 가진 저희들에게는 한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구 소련 어디에도 살고 있든 너무나 가까운 것들이다.

언어로는 많은 어휘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져도 노래로는 이해를 너무 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노래들 통해서 저희 민족의 조국을 떠나 문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

# 고려 사람들이 쓰는 물질 문화 용어

김 율리아나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교

본 연구 발표에서는 한국어 물질 문화의 보편적이고 고유한 성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CIS 지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분석하였다. 이 어휘의 연구는 한국어 방언 연구뿐만 아니라 민족 언어학과 언어문화학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제는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다른 민족과 살게 된 고려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있다.

고려말의 어휘 구조는 각각 다른 시기와 다른 방법으로 생긴 단어의 총체이다. '고려 사람'이라는 용어는 구 소련 지역에서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지칭하며 이와 동시에 학문 분야와 일상 용어에도 사용되고 있다. 19세기 중엽, 조선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조선인들이 함경 북도지방에서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사연은 역사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고려인들의 이주 현황에 관한 사료와 각종 문헌들은 많은 양이 보존되어 있다[1][2][3].

고려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주위에 있는 타 민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문화 요소 또한 받아들였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CIS 지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말에 쓰이게 되었다. CIS 지역의 고려인들이 쓰는 언어의 독특함은 [4][5][6][7]의 연구 결과에서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발표에서는 고려

말의 어휘의 고유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고려 말에도 어휘를 주제별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8].

더 세분하자면 옛날 방식의 농사법과 관련된 어휘, 옷, 신발, 가정 용품, 농기구, 음식, 건축과 관련된 용어, 자연경관의 특징과 관련된 어휘, 노동 활동과 관련된 어휘가 있다. 본 연구 발표에서는 가정 용품, 음식과 옷에 쓰이는 용어 등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가정 용품에 쓰이는 말

'꼬이까 / 크라바찌'라는 말은 러시아어에서 들어왔고 표준어의 '침대'를 의미하며 고려 말에서 쓰게 되었다. 또한 '걸 앉는 사이'는 표준어에서는 '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려 말의 '쇠가다리'는 표준어의 '계단'이라는 의미로 쓴다. 러시아어로 'сараи'가 고려 말로 바뀌어서 '사래'(육친 방언) 혹은 '사래'(명칭 방언)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표준어의 '헛간'을 의미한다. 고려 말에서 쓰는 '분간이'라는 어휘는 표준어의 '화장실'을 의미한다. 표준어의 '장'이라는 의미를 고려 말에는 러시아어에서 들어온 'смакан'이라는 말을 바꾸어 '따까니'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표준어의 '성냥'이라는 어휘는 고려 말에서 역시 러시아어의 'спички'에서 들어온 단어가 변형된 '비지께'라는 어휘를 쓰게 되었다. '물통'을 가리킬 때 고려 말에는 러시아어에서 쓰는 'ведро'에서 파생되어 들어온 어휘를 '베드레'라고 부른다. 표준어의 '기차'라는 단어를 고려 사람들은 '부술기'('불' + '술기')라고 부른다. 표준어에서 쓰는 '겨울'이라는 단어는 고려 말에서 '세께'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고대 한국어에서 쓴 '색경'과 유사하다. 고려 말에는 '뽀베'라는 단어는 표준어에서는 '서랍'이라는 어휘를

뜻한다.

## ② 음식물에 쓰이는 용어

고려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은 한국에서는 없을 수도 있으며 표준어에서 그런 음식을 표현하는 어휘들도 없기 마련이다. 고려 말에서 쓰는 '마르썬채'는 러시아어에서 'морковь'라는 '당근'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준어에서 쓰는 '채'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생긴 음식 이름이다. 감자로 만든 채를 고려 말에서 '감지채'라고 부른다. 고려 말에는 표준어의 '부추'를 '염지'라고 부르고 부추로 만든 반찬을 '염지채'라고 부른다. 고려 말에서 쓰는 '베고재'라는 말은 이스트가 들어 있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고 속이 들어 있는 만두의 종류를 뜻한다. 국수를 먹을 때 국수 위에 고명을 놓아서 먹는데 표준어에서 쓰는 '고명'이라는 단어를 고려 말에서 '국시 추미'라고 부른다.

고려 말에는 모든 국을 '장물이'라고 부른다. 장을 놓지 않고 끓인 국도 마찬가지이다. 표준어의 '시래기 국'을 고려 말에서 '시락/시랙 장물이'라고 한다. 고려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제꼭떼'라는 음식은 '깍두기'와 비슷하지만 재료에 절인 물고기가 들어간다. 한국의 '수제비'라는 음식을 고려 말에서 '뜯어국이'라고 한다. '뜯어국이'는 밀가루 반죽을 한입 크기로 뜯어 국에 넣어 익힌 후 곧바로 먹는 음식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다. 고려 말의 '물외'나 '외'는 표준어의 '오이'를 뜻하고, 고려 말의 '장말에께'는 표준어의 '장아찌'를 의미한다. 고려 말에 쓰는 어휘 '복자이'는 표준어의 '된장찌개'라는 의미가 있다. 표준어에서 쓰는 외래어 '토마토'를 고려 말에서는 러시아어 'помидор'에서 받아들여 '보미도리'라고 한다. 또한 고려 말에 러시아 음식인 'пельмени'는 고려말에는 '뽀세'라고 쓰는데 이 말을 표준어에서

'만두'라고 한다. 표준어에서 쓰는 '누룽지'라는 단어를 고려 말에서는 '가매치'라고 쓴다. 표준어에서 '참외'는 한국 참외만을 의미하고 다른 종류의 참외를 외래어인 '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고려 말에는 '참외'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참외를 의미하고 표준어의 '참외'를 고려 말에는 '고려 참외'라고 부른다. 표준어의 '양배추'를 고려 말에는 '다디베차'라고 부른다. 표준어의 '돼지고기'라는 말을 고려 말에는 '돼지고기'라고도 하고 '도투고기'라는 말을 자주 쓴다.

## ③ 옷에 쓰이는 용어

고려 말에서 쓰는 '사께'라는 단어가 표준어의 '모자'를 의미하고, 추울 때 신는 신발을 고려 말에서 '사바기'라고 부르며 그것은 러시아어의 'сапоги'에서 들어온 단어이다. '고무덧신'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에서 들어온 'залоты'라는 말을 고려 말에서 그대로 '칼로쉬'라고 쓰게 됐다.

고려 말에는 고려 사람들이 살아온 러시아 원동의 독특한 자연 조건과 고려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휘들이 많다.

한국 표준어는 문어와 속어로 구별되고 있으며 문어는 주로 한자를 기초로 하고 형성되어 있으며 속어는 순 한국어 어휘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려 말의 '베리'는 한국어의 '냉장'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고려 말에는 한국 표준어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도 있으며 그 어휘들의 기원과 형성 방법이 표준어와 다르다.

우선 고려 사람들 말의 독특한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런 어휘가 생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고려 말이 주위에 있는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려 말이 다른 언어들과 혼합된 결과이다. 그것은 러시아어와 터키 어족, 카자흐어에

서 들어온 말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의 'чеуѐмка a'라는 용어가 '템포가 빠른 탭 댄스'를 뜻하고 고려 말에는 '사바기 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러시아 문화에서 들어온 것 중에 '코바늘'인데 고려 말에서 '구루시와 바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구루시와'는 표준어에 '레이스'라는 외래어인데 국어 사전에서 '수예 실을 코바늘 따위로 떠서 여러 가지 무늬를 나타내어 천처럼 만든 서양식 수예품'이라는 설명이 있다[9].

표준어에서 쓰는 '왓츠'는 고려 말에서 '빠라 춤'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러시아어의 'нара' 즉, '두 개, 한 조, 한 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빠라 춤'은 반드시 두 명이 춤을 추는 것이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본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 사람들은 카자흐 문화의 영향도 받고 카자흐어의 단어들도 사용하게 되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카자흐어에서 들어온 'баурсак'는 카자흐 전통 빵(작고 둥글게 생긴 구워서 먹는 빵)이고 '나우르즈'라는 말은 명절을 의미한다. 한국의 설날과 같은 명절이며 3월 22일에 지낸다. 속어에서 쓰는 말은 '아나우르나우'라는 말은 한국어로 '이것저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의 일부는 현재의 한국 표준어와는 뜻이 같거나 적당한 표현을 한 단어들도 없지만 순수 한국어에서 파생한 어휘들로 형성되었다. 그런 단어들은 의미적 파생법과 환유 같은 형성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먼저 환유법으로 형성된 것을 보겠다. 표준어에서 쓰는 '사과'라는 단어는 고려 말에서 쓰지 않고 '능금이'라는 야생 사과를 가리킨 단어나 재배한 '사과나무'를 가리킬 때도 쓴다. 이와 똑같이 표준어에서 쓰는 '포도'라는 말 대신 '떨기'라는 산포도를 가리키는 단어를 모든 포도에 쓴다.

이제는 의미적 방언을 살펴보겠다. 의미적 방언은 표준어와 똑같이 쓰이면서 다른 뜻을 가진 어휘이다.

고려 말의 '반찬이'는 물고기를 야채와 절여서 양념을 넣고 만든 음식인데 표준어의 '반찬'은 밥에 곁들여 먹는 고기나 생선, 야채 따위로 만든 음식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식이라고 한다[10]. '떡이'는 고려 말에서 이스트가 들어간 밀가루를 반죽하여 발효시켜서 굽거나 찐 음식을 가리킨 어휘인데 표준어에는 '빵'이라고 부르고 표준어의 '떡'은 곡식 가루를 시루에 넣고 찌거나, 찐 것을 다시 절구나 떡판에 놓고 치거나 빻아서 만든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0].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려 말의 '저고리'는 따뜻한 자켓을 가리킨 단어이지만 표준어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입을 한복의 윗옷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다음으로 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켜 서로 다른 어휘를 쓰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려 말에는 여자가 결혼할 때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남자가 결혼할 때 '서방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표준어에는 여자나 남자가 결혼할 때 차이 없이 '결혼한다'라는 말을 쓴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이 많은 것은 고려 말과 표준어에 쓰는 어원이 다른 어휘이다. 예를 들어 보면 고려 말의 '배뿌기'는 표준어에서 쓰는 '배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어휘는 뒷부분만 다르며 서로 어원이 다르다. 고려 말에서 쓰는 '배뿌기'는 '배' + '뿌기' 두 개의 성분이 있으며 뒷부분의 '뿌기'는 '작은 뿌리'를 의미한다고 보고 표준어의 '배꼽'이라는 말의 어원은 좀 다르다. '배꼽'의 뒷부분 '꼽다'라는 말에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발표에서 고려 사람의 물질 문화의 사물을 뜻하는 어휘들을 해석하여 고려 말에서 쓰는 사물 이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해 보았고 고려 말의 각 단어를 뜻하는 개념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고려 말 어휘 연구를 통하여 러시아 원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사는 고려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특성까지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칸 Г.В. Истор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Алматы, 1995.
2. Ким Г.Н.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 Средней Азии в зарубеж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Алма-Ата, 1990.
3. Пак Б.Д. Корей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1993.
4. Ким О.М. Особенности русской речи корейцев Узбекской ССР. Канд.дисс. Ташкент, 1964.
5. 킹 로스, 연재훈.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언어-고려 말. 한글학회. No217
6. 곽 충구. 함북육진 방언의 음운론 20세기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자료에 의한 문헌. 국어학회. 서울, 1993.
7. Пак Н.С.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Алматы, 2005.
8. Мусаев К.М. Лексикология тюркских языков. М, 1984; Цинциус В.И. Проблемы сравнительно-исторического изучения лексики алтайских язык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этимологии алтайских языков. Л, 1979; Шайхулов А.Г. Историческая и диалектическая лексика тюркских языков. Уфа, 1988.
9. 새 국어 사전, 제3판, 서울, 두산동아, 1998.
10.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문화 길라잡이. 서울, 학고재, 2002.

# 문학작품과 새말

## 오봉옥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 ①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한 문헌 자료 조사 요강>을 중심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새어휘 분과는 그간 문학어와 지역어를 광범위하게 조사 취재하여 새말을 발굴해 왔다. 이 자리에서는 문헌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사전 편찬 시 출전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의 발표(제2차 회의)에서 문헌 어휘 조사 지침 남북 공동안이 발표되기까지(제12차 회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을 통해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학어의 올림말 선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과 개인어의 올림말 선정과 용례 추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5차 회의에서는 ‘문학작품 속의 새 어휘 선별 방식’과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문헌 자료 조사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6차 회의와 7차 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한 문헌 자료 조사 요강’을 논의한 뒤 합의 발표하였으며, 제9차 회의에서는 ‘문학 작품에 쓰인 어휘 연구’의 실제에 대하여 남북 간 의견을 교환했다. 제10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겨레말큰사전》

문헌 어휘 조사 요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문헌 어휘 조사 지침’의 구체안을 남측이 북측에 제기하였고, 제12차 회의에서는 <문헌 어휘 조사 지침 남북 공동안>이 합의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그간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요강에서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학어의 올림말 선정’에 대하여 (제2차 회의)

#### (1) 문학어의 올림말 선정 지침

- ①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되 출신 지역을 균형적으로 고려한다. 단편보다는 중,장편 소설을 선택하고, 시의 경우는 한 작가의 작품 전체를 통하여 올림말을 선정한다.
- ② 우리말의 언어 규칙을 이해하면서 만든 문학어를 주로 올린다. 단순히 한 편의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작품 전체의 맥락에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작가의 개인어는 제외하기로 한다.
- ③ 품사별로 균형 있게 선정하여 올린다.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감탄사 등을 주로 올리고, 첩어(의성어, 의태어)는 생산성이 뛰어나므로 아주 특별한 것만 올린다.
- ④ 작가가 찾아 쓴 고유어, 한자어, 방언을 올린다. 방언은 대체로 지역 방언의 올림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고유어화한 한자어, 일상적인 한자어, 어감이 좋아 우리 정서에 맞는 한자어를 선택하되, 작가가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일반적이지 않은 한자어는 제외한다.
- ⑤ 작품에서 쓰인 작가의 독특한 관용어구, 속담 등을 올린다.
- ⑥ 작품은 주로 1900년대 이후의 작품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개인어의 올림말 선정 방식

- ① 개인어의 유형 중 음운론적 유형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움라우트,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 아주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 반영된 어휘는 특징적인 것이 아니면 올리지 않는다. 단순한 모음 변이형,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휘 등은 올리지 않는다. 이 유형은 대체로 대화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지역의 관습적인 언어 태도나 화자의 즉흥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 ② 형태론적 유형이 비교적 생산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파생어와 복합어의 경우 규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린다. 따라서 뜻을풀이를 하면서 개인어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 ③ 통사론적 유형은 ‘구나 절’이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 유형은 사용 빈도가 높을 경우 올림말로 올린다.
- ④ 의미론적 유형은 작가가 기존의 어휘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꾼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개인어는 올린다.
- ⑤ 방언을 이용한 개인어의 유형은 아주 많다. 이러한 유형은 최대한 올린다.
- ⑥ 첩어(의성어, 의태어 포함) 가운데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말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어휘는 올림말로 올린다.

#### (3) 문학어의 올림말 선정 과정

- ① 주요 작가와 작품의 목록을 선정한다. 방언의 경우, 방언이 소재된 작품의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
- ② 작품을 읽고 문학어(개인어, 고유어, 방언, 한자어)를 고른다.
- ③ 소설어 사전, 시어 사전, 각종 용례사전, 어휘사전 등을 이용하여 문학어를 고른다.
- ④ 작품의 문체 연구, 어휘 연구와 같은 논문을 참

고하여 어휘를 선정한다.

- ⑤ 21세기 세종계획의 연구 결과물 중 ‘기초 자료’에서 입력된 문학 작품과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의 자료기지(DB)를 활용한다.
- ⑥ 문학어의 뜻풀이는 물론, 언어학적 해설과 용례 추출에 노력한다.
- ⑦ 가능한 한 작품 및 참고 사전을 입력하여 검색하면서 활용한다.

### 2)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과 개인어의 올림말 선정과 용례 추출 방안’에 대하여(제3차 회의)

#### (1) 작품의 올림말 선정과 그 기준

- ① 고유어  
작품에 나타난 고유어를 뽑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방언과 개인어, 고유어를 구별하는 일이 쉬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검색하여 고유어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 ② 방언  
해당 지역 방언이 아주 많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지역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징적인 방언을 뽑아낸다. 첫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어휘를 뽑는다. 특히 하나의 기본형이 다양한 품사로 쓰이면서 특징을 드러내는 어휘를 뽑는다. 둘째, 움라우트,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 아주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 반영된 어휘는 특징적인 것이 아니면 가급적 제외한다. 단순한 모음 변이형,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휘 등은 제외한다.
- ③ 개인어  
작가가 임의로 만든 개인어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어의 언어 규칙을 이해하면서 만든 개인어를 주로 찾아야 한다. 이 작업은 지역 방언 전공자와 문학 전공자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음으로는 쓰임을 달리한 어휘를 찾아야 한다. 다음은 작가별 개인

어의 특징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작가가 만들어 사용하는 개인적인 관용어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다음, 단순히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작품 전체의 맥락에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드는 작가의 개인어는 제외한다.

④ 한자어

먼저 어원은 한자어이나 이미 고유어화한 한자어를 선택한다. 다음으로는 일상적인 한자어를 선택한다. 다음, 어감이 좋아 우리 정서에 맞는 한자어를 선택한다. 다음, 작가가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일반적이지 않은 한자어는 제외한다.

(2) 작품의 용례 추출 방안

- ① 작품의 용례 추출은 일단 입력된 작품에서 추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그 방안을 제시하면 시의 경우, 행 구분은 ‘/’로 하고, 연 구분은 ‘//’로 한다. 소설은 그냥 원문을 그대로 표시한다. 예문의 출전 표시는 ‘작가명, 작품명, 작품집명, 연도, 권수, 페이지’를 표시하되,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한다. 예를 들면 <채만식, 과도기, 1987, 272>로 한다.

3) 남쪽 문학작품에서 올림말 및 용례를 뽑기 위한 원칙과 방안(제3차 회의)

(1) 원칙

- ① 시대별(10년 단위)로 주요 작가를 선정한다.
- ② 우리말을 주로 쓴 작가를 선정한다.
- ③ 고장말을 주로 쓴 작가를 선정한다.
- ④ 선정된 작가가 쓰는 고유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 추출한다.
- ⑤ 선정된 작가가 개발한 조어는 모두 추출한다.
- ⑥ 선정된 작가가 개발한 조어의 1차 뜻풀이는 조사자가 한다.

⑦ 선정된 작가가 개발한 조어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혼자만 사용한 언어인지 특수언어 또는 보편언어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⑧ 선정된 작가가 개발한 조어는 그것이 설령 비표준어(은어 등)라 할지라도 일단은 모두 추출하기로 한다.

(2) 방안-생략함

4)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문헌자료조사 사업에 대하여(제5차 회의)

(1) 수집 어휘의 종류-고유어, 방언, 개인어, 한자어 등은 위 문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① 민속어

구비문학이나 작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전통과 문화를 잘 드러내는 어휘를 뽑는다.

② 외래어

시대를 반영하는 외래어를 신는다.

③ 고어

20세기 초부터의 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고어가 예상된다. 고어의 경우, 변천과정에 대한 해설을 기술한다.

④ 은어

주로 작품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⑤ 속어

주로 작품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속어의 경우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말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⑥ 유행어

시대별 유행어가 존재한다. 전문적인 신어일 수도 있고, 비교적 속된 표현일 수도 있다. 대체로 표제어로 선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⑦ 관용구

주로 작품에 많이 나타나는 관용구는 지역별, 시대

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관용구의 경우 부표제어로 처리한다.

⑧ 속담

주로 작품에 많이 나타나는 속담도 부표제어로 처리한다.

⑨ 전문용어

과학, 경제, 생물 등 전문적인 도서에 나타나는 전문용어는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 분과의 구축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도서를 참고한다.

⑩ 신어

신어 또는 신조어는 신어 사전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조한다.

(2) 문헌 조사 사업 계획

① 목록 정리 및 말뭉치 구축

문헌 자료의 목록 정리, 기존의 말뭉치 정리, 새로운 말뭉치 구축 등

② 작품 조 구분

문학 작품 조와 기타 도서 조로 나누어 진행한다.

③ 작업량

문학 작품 경우는 하루 10개, 기타 도서의 경우는 하루 30개를 작업량으로 한다.

5) 문학 작품 속의 새 어휘 선별 방식(제5차 회의)

(1) 어휘 선정의 기준, 수집한 어휘의 종류, 방언을 추출한 문학 작품 목록, 각 도 방언의 방언 어휘 목록, 품사별 어휘 목록 등 생략

(2) 어휘 추출 방법

① 각 도의 방언이 수록된 문학 작품의 목록을 작성한다.

② 해당 지역의 문학 작품을 입력하여 말뭉치를 구축한다.

③ 작품을 읽고,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새 어휘

를 찾는다.

④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어휘의 용례를 정밀하게 검색하여 뜻풀이를 한다.

⑤ 방언 사전, 각종 어휘 사전 및 참고 도서를 이용하여 어휘의 뜻을 점검한다.

⑥ 원고 입력 프로그램의 양식에 맞추어 엑셀 파일로 입력한다.

6)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한 문헌 자료 조사 요강(제6차 회의)

(1) 문헌 자료 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 사항

① 출판물에 쓰인 어휘는 ‘구어체 자료, 신문, 잡지, 문학작품, 교육자료, 사회, 예술(취미, 생활 포함), 인문, 자연, 체험기술, 총류, 기타 도서(전자출판물)와 같은 문헌 자료에서 균형이 맞게 조사하여 채집한다.

② 문헌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균형적으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③ 문학 작품의 경우 대체로 20세기 초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소설, 창가 등 개화기 문학 작품들과 잡지류를 주로 다룬다.(표기법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논의한다)

④ 일반 도서에 대한 자료 조사는 광복 후에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⑤ 문헌 조사를 통하여 수집할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민속어, 외래어, 방언, 고어, 은어, 속어, 유행어, 관용구, 속담, 개인어, 전문용어, 신어 등 모든 종류의 어휘에 해당한다.

⑥ 문헌 자료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표준어와 방언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이용한다.

⑦ 문헌 자료를 통하여 어휘를 수집할 때 문어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데 입말이 많이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문헌 조사 사업 단계별 계획 및 작업량
- ① 남과 북에서 이미 입력된 말뭉치를 활용한다.
  - ② 활용하기 위한 문헌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입력하거나 확인한다.
  - ③ 1900~1950년대까지의 문학작품 목록
  - ④ 근대, 현대 시인과 작품 목록
  - ⑤ 근대, 현대 소설가와 작품 목록
  - ⑥ 수필 작품 목록
  - ⑦ 개인이 입력한 작품의 목록 확인
  - ⑧ CD로 발간된 작품 확인
  - ⑨ 방언이 수록된 문헌 자료 확인

- (3) 이미 출판된 어휘 자료집을 확인한다.
- 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각종 어휘 자료집 확인
  - ② 출판사에서 발간한 방언사전, 어휘사전, 동식물사전 등 확인
  - ③ 세종계획에서 만든 어휘 자료집 확인

- (4) 이미 출판된 논문을 확인하여 참고한다.
- ① 작품의 언어에 관한 논문
  - ② 대학원 석, 박사 학위의 논문 등

- (5) 문예작품과 기타 도서로 나누어 작업하되 문예작품에서는 하루 10개, 기타 도서에서는 하루 30개를 작업한다.

- (6) 문헌 조사 작업을 위한 관련된 전문위원을 확보한다.

- (7) 수집 어휘의 종류-위 문서와 중복되어 생략함.

**7)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을 위한 문헌 자료 조사 요강2(제7차 회의)**

- (1) 문헌 자료 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 사항-제6차 회의 문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 (2) 자료조사를 진행할 여러 부류의 도서들-제6차 회의 문서와 동일한 부분은 생략함.
- ① 도서 목록 추가-전문도서 목록, 신문, 잡지 목록, 방송, 드라마 목록 등
- (3) 수집 어휘의 종류-제6차 회의 문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8) 문학 작품에 쓰인 어휘 연구(제9차 회의)**

- (1) 서론-생략
- (2) 연구방법
- ① 각 도의 방언이 수록된 문학 작품의 말뭉치를 구축한다.
  - ② 작품을 읽고 필요한 방언 어휘 항목을 찾아낸다.
  - ③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휘에 알맞은 용례를 검색한다.
  - ④ 시어 사전 및 참고 도서를 이용하여 어휘의 뜻을 찾는다.
  - ⑤ 종합적인 해설을 붙인다.
  - 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입력 구조를 만들어 입력한다.

- &
- //제목 :
- //일련번호 :
- //작성자 :
- //작성날짜 :
- //방언 표제어 :
- //표준어 :
- //품사 :
- //뜻풀이 :
- //관련 지역 :

- //방언형 및 검색어 :
- //예문 :
- //종합설명 :
- //끝
- \$

- (3) 작품에서 수집할 어휘의 종류-위 문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 (4) 각 도 방언을 추출한 문학 작품 목록-생략

- (5) 방언이 수록된 참고 논저 목록-생략

- (6) 각 도 방언의 방언 어휘 목록-생략

**② 문헌 어휘 조사 지침 남북 공동안을 중심으로**

**1) 문헌 어휘 조사 지침(제10차 회의)**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 발표한 '문헌 어휘 조사 지침 남북 공동안'과 몇 군데의 문구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일치하므로 생략함. 이 지침은 남북이 제7차 회의에서 합의한 《겨레말큰사전》 문헌 어휘 조사 요강을 수정, 보완한 것임.

**2) 문헌 어휘 조사 지침 남북 공동안(제12차 회의)**

- (1) 일반 원칙
- ① 문헌 어휘 조사는 지금까지 남과 북의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와 의미를 문헌에서 남김없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사 대상은 문학 작품, 신문, 잡지, 일반 도서, 과학 기술 도서, 전문어 사전, 어휘 자료집(동식

- 물지, 광물지, 농사 관련 어휘집 등)과 같은 문헌 자료이다.
- ③ 조사 문헌의 분야는 교육, 사회, 예술(취미, 생활 포함), 인문, 자연, 체험기술, 총류 등 모든 분야이다.
- ④ 문학 작품은 주로 20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도서는 광복 후에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 ⑤ 수집할 어휘는 일반어, 전문어, 민속어, 외래어, 방언, 고어형 어휘, 은어, 속어, 관용구, 속담, 개언어, 신어 등이다.
- ⑥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두 사전에 있는 올림말이더라도 뜻갈래를 더할 수 있는 어휘는 새 어휘 대상으로 한다.
- ⑦ 형태론적 이형태(어휘론적 이형태)는 새 어휘로 하고, 음운론적 이형태(어음론적 이형태)는 새 어휘로 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오늘날 쓰이지 않더라도 20세기 이후 널리 쓰이던 말은 쓰이던 기간을 명시하여 새 어휘로 삼을 수 있다.
- ⑨ 수집한 자료는 표준어와 문화어, 방언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이용한다.
- ⑩ 문헌 자료에서 조사한 어휘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한 뜻풀이와 함께 용례 정보를 제시해 주며, 그 출전과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 ⑪ 문헌에서 조사된 문헌 어휘는 지역어 조사를 통해 어휘 사용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밝혀지면 지역어로 변경될 수 있다.

- (2) 어휘 선별에 대한 사항
- ① 방언, 표기가 다른 낱말
  - (-) 문헌에서 발견되는 모든 방언형은 지역어 조사 확인 단계를 위하여 새 어휘로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낱말의 형태가 기존 올림말과 비슷하고 그 뜻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서, 기존

올림말과 단순한 음운론적 이형태(어음론적 이 형태) 관계임이 명백하다면 새 어휘로 삼지 않는다.

(ㄴ) 사이시옷과 같이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에 따른 어휘는 '기존 올림말의 이형태'로 보아서 새 어휘로 삼지 않는다.

(ㄷ) 조사,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로 굳어져서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굳어진 형태를 그대로 새 어휘로 삼는다.

② 외래어, 순화어

(ㄱ) 외국에서 들어온 묵은 말과 그 파생어, 합성어는 되도록 새 어휘로 삼지 않는다.

(ㄴ) 일반적인 외래어와 순화어는 모두 새 어휘로 삼는다.

③ 한자어

(ㄱ) 묵은 한자어는 되도록 새 어휘로 수집하지 않는다.

(ㄴ)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어, 고유어로 바꾸기 어려운 한자어는 새 어휘로 삼는다.

④ 옛말

(ㄱ) 기존 사전에 옛말로 다루었더라도 조사 대상에서 확인되는 어휘는 현대어로 본다.

⑤ 전문어

(ㄱ) 전문어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말이다.

(ㄴ) 전문어는 되도록 새 어휘로 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ㄷ) 여러 전문 분야에서 널리 쓰이거나, 기초 학습 과정에서 널리 쓰일 수 있는 전문어는 새 어휘로 삼을 수 있다.

(ㄹ) 전문어 선정에 대한 최종 기준은 《겨레말큰사전》 올림말 선별 지침에 따른다.

⑥ 어근

(ㄱ) 자립적으로 쓰인 새 어근은 새 어휘로 선택한다.

⑦ 의성어, 의태어

(ㄱ) 의성어와 의태어는 새 어휘로 삼는다.

(ㄴ) 다만, 전체적인 계열 관계에 따라 선정하고, 뜻풀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뜻풀이를 하지 않고, 관련 예문까지만 정리해 두었다가 어휘 조사 사업 종료 후 최종 결정한다.

⑧ 고유명사

(ㄱ) 고유명사는 새 어휘로 수집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뜻풀이에 대한 사항-작업에 대한 세부 지침이므로 생략함

새 어휘의 뜻풀이는 '겨레말큰사전 집필 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직 합의된 집필 지침이 없는 형편이므로 새 어휘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적용한다.

새 어휘 조사 단계에서는 새 어휘를 찾아서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는 일과 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을 집필 단계로 충분히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 뜻풀이 역시 집필 단계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가장 비슷한 기존 올림말'을 제시하고 '제시한 기존 올림말과의 뜻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쓰기로 한다. 이는 기존 올림말의 뜻풀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 어휘의 뜻풀이를 했을 때, 기존 올림말과의 뜻 차이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문헌 어휘 뜻풀이 지침 1-작업에 대한 세부 지침이므로 생략함

▲ 문헌 어휘 뜻풀이 지침 2-작업에 대한 세부 지침이므로 생략함

3) 사전 출간 시 출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1) 작품명만 표시할 경우

어떤 작품의 인용 구문인지 구별은 가능하지만 작

가나 창작 연도 등의 기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목록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집단 창작이 많은 북측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2) 작가명과 작품명을 밝혀줄 경우

인용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은 다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인용 구문을 낫설게 느낄 경우(특히 분단 이전의 작품) 발표 연도를 궁금해 할 것으로 사료된다.(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임)

(3) 작가명, 작품명, 창작 연도를 밝혀줄 경우

인용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면서 사용자가 느낄 용례의 출전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부분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4) 창작 연도, 지은이, 작품명, 출판사, 쪽수를 밝혀 줄 경우

인용에 대한 책임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경우이나 종이 사전의 특성상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염려가 있다.

(5) 용례만 보여줄 경우

인용에 대한 책임성이 느껴지지 않으나 가장 깔끔하게 보인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종이사전에는 (2)가 적용될 때 무난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금 더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3)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다만 (3)의 경우 창작 연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창작 연도는 작품이 문학 매체 등에 첫 선을 보일 때가 아닌 창작집으로 묶어질 때(물론 초판)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참고로 전자사전에는 (4)가 적용되었으면 한다.

#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

김필영

강남대학교 교수

## ① 머리말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은 1938년 5월 15일 카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창간된 한글신문 《레닌기치》의 ‘문예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 ‘문예페이지’는 1939년 5월 24일자에 처음으로 마련되어 1990년 12월 31일 폐간될 때까지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들이 그들의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면이자 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 왔다.

《레닌기치》의 뒤를 이어 1991년 1월 1일에 새로이 창간된 《고려일보》에서도 《레닌기치》의 본을 받아 ‘문예페이지’를 마련하여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을 게재하였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당시 과도기적인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고려말로 창작이 가능한 이주 세대 작가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연로하여 《고려일보》에 게재되는 문학작품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표준 한국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말의 구어체 표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글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작품에 나타난 고려말의 구어체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

다. 사용된 자료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단의 최초의 순수 공동작품집인 《시월의 해빛》(1971)에 실린 단편 소설<sup>1)</sup>에서 발췌한 고려말 구어체 표현들이다. 《시월의 해빛》은 시월혁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나 뒤늦게 출판되었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 인용한 고려말 구어체 표현들은 1950-60년대에 창작된 작품에 사용된 것들이다.

## ② 고려말의 구어체 표현

여기서 말하는 고려말 구어체 표현이란 고려인 작가가 고려말로 창작한 소설작품에 사용된 대화체 문장들을 의미한다.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들에 관해서는 어휘적, 통사적, 의미론적 부분에서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 표현들을 문장 종결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된 종결어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어체 종결어미는 실제 담화에서는 억양에 의하여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구분되지만 글말에 쓰인 구어체 문장의 종결어미는 그 형식이 문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측도가 된다. 고려인 소설에서 발췌한 구어체 표현들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문장 종결에 사용된 감탄부호나 의문부호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이차적으로 문형별 종결어미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문형 별로 분류된 소설에 사용된 고려말 구어체 종결어미는 소련 해체 후 고려인들의 실제 담화에서 채록한 고려말 종결어미 자료들(김 마리나 41-53, 김필영 50-52, 니 라리사 23-38, 이기갑 외 47-52)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기 한다.

### 2.1. 평서문

평서문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나 말하는 이의 생각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 종결 양식으로 용언에 평서형어미가 첨가되어 실현된다.

고려인 소설에 사용된 구어체 평서형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구 1 가지 앓구. / 2 그렇지 앓으시구.

구두 1 아바인 고기하구 성푸리 하느라고 다 차 던지 구두.

네 1 그걸 내 두고 보겠네. / 2 그래서 내 저 나무를 심은 게네. / 3 이 집이 비어 있을 때까지는 제비란 놈이 여기에다 등지를 틀지 앓았네. / 4 이제 구멍이 두 개만 파면 되네. / 5 그런 은인의 이름은 잊어지지 앓는 법이네. / 6 그리구 또 두고 보라니 내 말이 맞을게네. / 7 이렇게 좋은 곳에 사람이 와서 살지 앓을 수 없네. / 8 조만간에 이곳에 좋은 마을이 일떠설 게네. / 9 아니라니 벌써 5년째 그 놈들이 그냥 날아 오네. / 10 자네 아마 내 과실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저 령감은 정신이 나가지 앓았는가고 생각했을 수도 있네. / 11 옛말따나 능금도 보지 못하겠네. / 12 저 애가 낫을 때 나하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기에 더 길게 생각지 앓고 그저 자네 이름을 따라 ‘룡석’이라고 지었네. / 13 그 놈들이네. / 14 저 등지에 앓은 놈이 앓놈이네. / 15 그러면 이 칼을 볼 때마다 자네를 생각하겠네. / 16 가실 나무를 심으네. / 17 다행히 창수의 자동차를 만나 잘 됐네.

(는/니)다 1 네 안 된다. / 2 물론 재미 있는 일이 있을 줄은 짐작한다. / 3 야, 이저는 내 바쁜 고비는 지났다. / 4 날마다 건강이 나아지는게 알린다. / 5 지금 같아서는 몇 달만 더 쉬면 일도 다시 할상 싶다. / 6 앓다, 여기 앓다. / 7 정말이다. / 8 글썽 나도 모르겠다. / 9 그러나 네 한 가지만은 바로 말해야 할게다. / 10 난 네 소리에 놀랐다. / 11 까짜 이제 나는 가겠다. / 12 까짜, 일앓다. / 13

엄마 꼭 올 게다. / 14 나에게 큰 그릇이 앓다. / 15 내 네 편지를 받았다. / 16 내 네게 죄를 졌다. / 17 너도 보는바 내 맘이 변했다. / 18 너희들은 참 별 애들이다. / 19 실로 그분의 덕이 크다. / 20 하긴 우리네 같은 딸을 둔 보람도 앓다. / 21 글썽 말이다. / 22 야, 수남아, 오늘은 좀 벌어 와야 하겠다. / 23 더구나 너의 아버지도 벌써 오래 동안 일을 하지 못하니 말이다. / 24 야, 이 배에 일이 앓단다. / 25 앓들아, 너희들 오늘 수고를 했다. / 26 응, 까짜 나는 인제 가겠다. / 27 응, 이제는 다 나왔다. / 28 이에, 그만하면 됐다. / 29 인젠 너를 믿을 수 앓다. / 30 허나 주의해야 한다. / 31 한 두령만 터지면 큰 일이 난다. / 32 일 앓다. / 33 그 애가 정신을 잃고 초불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기름 걸레와 의복에 불이 달렸다. / 34 멍텅구리 울시다. / 35 두 냥은 너무 적다. / 36 조반이 됐다.

니까요 내 꼭 전화를 걸테니까요.

다니 1 가마 구렁에 넣었다가 들켜 날 수 앓다니.

던 1 그놈들도 다른 큰 날짐승들이 사람을 겁내어 좀처럼 집 근처에 오지 못하는 것을 안단 말이거든. / 2 그리고 솥놈과 앓놈이 서로 번갈아 벌레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이는 걸 보면 참 깜찍하거든. / 3 저 제비란 놈이 꽤 영리한 새거든.

데 1 오련발총, 통철-대, 무철-대를 멧습데. / 2 만만치 앓은 처넨데.

데두 1 도본이구 뭐구 내 하라는 대로 하라는데두.

데요 1 그건 소설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좀 낡은식 같은데요. / 2 거저 제 힘만 믿는다니, 정신 나간 사람같은데요. / 3 먼데 갔데요. / 4 알려 주어 매우 고맙은데요. / 5 나도 꿈단이를 알아 볼것 같지 못한데요. / 6 그것 참 신기한 데요.

라 1 글썽 내 이제 말해 봤는데, 싫으면 그만 두라구 하더라. / 2 몰라. / 3 보기와는 달라. / 4 금년에 앓들이 개암 따러 다니지 앓길래 북망산 모퉁이에

1) 김준의 <나그네>와 <지룡관>, 전동혁의 <나귀터에서>(1961)와 <뽕자루칼>(1965); 김광현의 <새벽>(1967); 태정준의 <어린 수남의 운명>(1959); 김기철의 <붉은 별들이 보이던 때>(1962/63); 한상욱의 <보통 사람들>과 <경호 아버지>; 림하의 <불타는 키스>와 <피꼬리 노래>; 리 와셀리의 <첫 걸음>; 이정희의 <아름다운 심장>.

개암알이 솟아더라. / 5 네 먼저 모스크와에서 떠난 그 날에는 불시로 몸이 어찌 아파나던지 당장 죽을 것 같더라... / 6 아차, 이 정신을 봐라.

**라니** 1 그리구 말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 / 2 아니, 뒤 두라니.

**비니** 1 나는 지금 통신 음악 대학을 다닙니다. / 2 모스크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 있습니다. / 3 아무래도 아버지가 수고해서 수난이를 배워 줘야 하겠습니다. / 4 아버지를 찾아 가 뵈려던 차에 마침 잘 오셨습니다. / 5 저 뉴턴의 만유인력 말입니다. / 6 그러나 나도 오늘 렉학 시험에 5점을 받았습니다. / 7 저 것이 바로 그 로인의 묘입니다. / 8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 9 하여튼 감사합니다. / 10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 11 네, 그렇습니다. / 12 네, 나 역시 시험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 13 성남 동무 지금은 나도 시험 준비가 바쁩니다. / 14 아니 죽습니다. / 15 아닙니다. / 16 몇 동무가 말한 것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 17 나는 실로 그 안날 저녁 동무네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그 이튿날까지 일하러 나오지 못 하였습니다. / 18 그렇게 바쁜 때 자동차까지 가지고 가서 주정하며 일하러 나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 19 가장 엄한 책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20 이것은 술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 21 앞으로는 술을 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 22 이번에는 피해 당한 처녀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 23 예 주의하겠습니다. / 24 예! 괜찮습니다. / 25 여가와 있을 형편이 못 되구 해서 그 애를 떨궈 두고 왔습니다. / 26 예, 그렇습니다. / 27 예... 얼두겨우로... 갑니다. / 28 축하합니다. / 29 그것 참 훌륭한 일입니다. / 30 인제 다섯 배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 1 그 사람들이 자주 여기로 지나 다니었소. / 2 난 그 대답을 하기가 어렵소. / 3 며칠 동안 파시스트들은 아이들에 대해 아주 까먹은듯이 건드리지 않

고 내버려 두었드랬소. / 4 바로 6월 스무날이었소. / 5 점심 때 그 애들이 휴양소에 들어섰드랬소. / 6 아니 그런 고마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더 있겠소. / 7 아니 일 없소, 멀지 않은데. / 8 옳소. / 지금 나가겠소. / 9 총가목으로 나를 뒤꼴을 박아 냈소. / 10 칼탕을 친 그 낮을 보자 내 눈이 이렇게 어두어졌소. / 11 곱단이 내 잘못 했소.

**수(다)** 1 마따한 자리가 있어서 빨리 장가를 가야 하겠는데, 당자가 아무 기척이 없으니 곁에선들 어찌겠수. / 2 그 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수다. / 3 글쎄 술을 마신다 해서 남처럼 우렁부렁 싸움이나 주정을 한데서 그러는게 아니라, 보아하니 버는 돈 절반은 술에 다 나가는 것 같수다.

**아/어** 1 과히 속을 태우지 말아요. / 2 독일 놈들이 아직 그곳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아요. / 3 많이 낮아요. / 4 물도 보고 고기도 잡으면 좋지 않아요. / 5 호 호 호... 성남이, 성남이... 이름이 참 부르기 좋아요. / 6 까투리도 좋고, 곰보도 좋아요. / 7 여하튼 좋아요. / 8 그러나 그런 빨라찌 예를 입고 다니는 처녀들이 많은데... 또 다른 표적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 9 그런데 나는 요즈음 또 다른, 그와 반대되는 법칙을 알게 되었어요. / 10 그럴 수 있어요. / 4 그리고 경호 아버지는 자주 동무의 말씀을 했어요. / 5 글쎄 제 남편이나 곁에 있었으면 안 좋겠어요. / 6 까짜는 나와 함께 있어요. / 7 근심 마세요. / 8 나는 모스크와에서 아이들을 찾아 왔어요. / 9 그 애들은 전쟁 직전에 휴양소로 왔어요. / 10 나도 역시 그랬어요. / 11 내 벌써 생각해 봤어요. / 12 내게는 돈이 없어요. / 13 만유인력을 나도 중학교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거의 다 까먹었어요. / 14 아니, 나는 벌써 배불러요. / 15 아니예요, 두 주일째 급한 일이 생겨서 고기잡이일 을 새 없었어요. / 16 아니예요, 찬물을 마시고 싶어요. / 17 아버지, 거기가 또 터졌어요. / 18 아버지, 도본 대로 수통을 놓지 않아

서 터졌어요. / 19 아버지, 우리 눈은 판을 잘 고르어 배미가 크기 눈 다름으로는 판단하긴 어려워요. / 20 아버지 그렇게 훗웃을 입어서 좋겠어요. / 21 예! 물을 마시고 싶어요. / 예, 여기 있어요. / 22 이 집에는 우리 부처 밖엔 다른 사람은 없어요. / 23 저 애가 우리 여기로 올 때 금방 다섯 살이 됐어요. / 24 경호 아버지는 저 애를 자기 친손자처럼 생각했어요. / 25 참 어진 분이였어요. / 26 그런데 나는 암만 곱단이를 보려고 해도 어느 것인지 찾아 낼 수 없었어요. / 27 “죽지 않았으면 편지라도 하겠는데” 하며 늘 편지를 기다렸어요. / 28 가겠어요. / 29 이제는 가야 하겠어요. / 30 곧 의사를 데려 오겠어요. / 31 난 어제 글린카의 ‘종달새’를 불러서 5점을 받았어요. / 32 그런데 만유인력에 대하여 다시 교과서를 들추어 보았어요. / 33 능금을 보시구 말구요 녀려 없어요. / 34 참 경호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직전에 낚시대를 가져다 주며 그 낚시대가 그 청년의 것인데, 어디 두었다가 혹 죽은 후이라도 그 청년이 찾아 오게 되면 전하여 달라고 말하였어요. / 35 그래, 그 낚시대를 다락에 언저 두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 36 물 넣는 돌, 물 빼는 돌, 논배미들이 몇이며 물을 어느 배미에서 넣어 어느 배미로 빼는 길이 다 그려져 있어요. / 37 그래서 우리는 그 로인의 유언대로 했어요. / 38 오래지 않아 아들을 만날 거요. / 39 감사해요. / 40 그 로인이 말하는 데, 나무를 같이 심었다더군요. / 41 그것도 사실 그래요. 가만 있어요. / 42 좋은 수가 있어요. / 43 글쎄요. / 44 내 저 물을 건네워 냈지요. / 45 내버려두세요. / 46 네, 네 그래요, 철수 어머니예요. / 47 병원으로 갈래요. / 48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해요. / 49 아버지 미안해요. / 50 늦어서. 난 아버지가 혼자 나갈가봐 막 달려 왔어요. / 51 아버이 이 물고기는 제 자리에 놓이지 않는가 봐요. / 52 아버이 이걸 보세요. / 53 안돼요. / 54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요. / 55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 약이나 어디 맘 대로 구하나요. / 56 어제 저녁에 내가 들어 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들어 온 청년 말이에요. / 57 여기서 더 되지 않아요. / 58 평 나도 며칠 전에 와서 이곳 사정을 잘 몰라요. / 59 아주 훌륭해요. / 60 합숙은 안돼요. / 61 예, 그런가요.

**어** 1 엄마, 없어. / 2 무섭기는 무엇이 무서워.

**예** 1 여기는 술집이 아니예요.

**야** 1 아니라니, 그렇게 아니야. / 2 이거 참 부아거리야.

**야지** 1 옷을 빨리 갈아 입어야지. / 2 인젠 그 고길 가져다 생선국이나 끓여 먹어야지. / 3 응, 그래, 너희들 세상이니 너희들끼리 즐겨 노래를 불러야지. / 4 남들은 다 눈에 나갔는데, 이 계집애가 와야지.

**예** 1 내 이름은 성남이예요. / 2 네, 통신 대학생이예요. / 3 여기 가까이에 있을거예요. / 4 여긴 야전 병원이에요. / 5 우리 둘 다 아직 문명 정도가 낮은거예요. / 6 아니예요. / 7 여기는 01-13이에요. / 8 아버이와 내가 보는 논 도본이에요. / 9 참 좋은 거예요. / 10 이게 우리 집이에요. / 11 아직 가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에요. / 12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처지가 아니예요?

**오** 1 나는 그 휴양소에서 소제부로 일하던 사람으로. / 2 우린 철수라고 부르기 힘들어 그 애에게 철가스란 이름을 붙여 줬다오. / 3 참 감사하오. / 4 전쟁이 났다오. / 5 아마 가 온 모양이오.

**우다** 1 그 애 아버지 창수는 원래 참하고 일도 잘하는 청년이우다. / 2 그런데 성처한 후부터 속이 타서 그런지 술을 붙이기 시작해서 걱정이우다.

**우리** 1 내야 어떻게 하든지 헤엄쳐 나가지 않으리.

**이오** 1 나는 겨울에도 날마다 이런 물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으로. / 2 내가 정말 바보요. / 3 그보다도 내가 정말 문명치 못한 사람으로. / 4 몰상식한 사람으로 미치광이요. / 5 내 이름은 곱단이요.

지 1 그 때면 그들도 내 심어 놓은 저 나무에서 과실을 따 먹으면서 간혹 내 말을 하겠는지. / 2 그럼 좋다는 대로 해보지. / 3 그새 나는 생선국을 끓이지. / 4 나는 능금을 먹지 못 한다 하더라도 자네 내 죽은 후에 혹 고기잡으러 오게 되면 먹게 될런지. / 5 그리구 아이들도 간혹 고기잡이를 다니니까 그 놈들이 먹어도 좋지. / 6 사람이 마음이 물지, 제게라고는 아낄 줄 모르지. / 7 아직도 면목이랑게 있어야지. / 8 우리야 바로 앞뒤집에 사다나니 썩 잘 알지. / 9 잠꼬대를 했지 뭐. / 10 할수없이 외상으로 실어다 낫는 수 밖에 없지. / 11 그래, 두 해가 됐지. / 12 그렇고 보니 내 죽은 담에 내게 대하여 말할 사람이라곤 없지. / 13 내 눈이 다시 밝아질 날이 있겠지. / 14 곤하겠지. / 15 배도 고프겠지. / 16 그렇게 암전하고 무던한 처를 잃었으니 물론 속도 타겠지. / 17 그 애 공부를 잘 하겠지. / 18 날이 저물었는데, 아무도 어린애를 데리러 오지 않기에 데려 왔더니, 이 애가 어찌 집으로 들어 오자고 하는지. / 19 사람의 보호를 받자는 게지.

지비 1 그 눈을 보지비.

지요 1 실어다 낫지요. / 2 경호 아바이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를 이 사과나무 밑에 묻어 달라고 말씀 하였었지요. / 3 그런 법이 없지요. / 4 우리와 함께 한 잔 꼭 들어가 하지요. / 5 날이 밝으면 돌아보구 변통해야 합지요. / 6 동창생의 눈에 김매러 왔으니 그와 합창을 하는 거지요. / 7 거기 가시면 애들을 만나겠지요. / 8 거저 몰상식해 그렇지요. / 9 글쎄 오늘에야 좀 벌어들였지요. / 10 내가 무얼 아는게 있어야지요. / 11 내가 빈침으로 꿰매 들어지요. / 12 쓰젠달의 소설 사랑의 노래를 읽고서 알았지요. / 13 아, 그러길래 그렇게도 목소리가 아름답지요. / 14 아니예요, 그저 친하게 지냈지요. / 15 이 집 애기 사경에 이르러도 우린 빈 격

정뿐이지요. / 16 이걸 봐야 논판이 높고 낮은 것을 알고 물을 대기가 쉽지요. / 17 이름도 좋고 용모도 곱고 목소리도 아름다워 곱단이지요. / 18 저... 감옥에 갇혔지요. / 19 허물이 없겠지요. / 20 요 혹 다른 제비일 수도 있습지요. / 20 아바이도 도본대로 해야지요. / 21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마지막에 좀 도와 드렸을 따름이지요. / 22 이 자리에 수통을 놔야 할 것을 우리는 여기다 났으니 터질 수 밖에 없지요.

격식체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ㄴ/는)다(36) -라(6), -지(19)	-네(17)	-소(11) -오(15)	-(느니)다(30)
비격식체			
해체	해요체		
-아/-어(2)	-아/어요(61), -지요(22)		

위에 인용한 고려말의 구어체 평서형 종결어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용 빈도수)

위 도표에 열거하지 않은 종결어미로 ‘-구’, ‘-구두’, ‘-다니’, ‘-던’, ‘-데’, ‘-데두’, ‘-데요’, ‘-라니’, ‘-수다’, ‘-으리’, ‘-이요’, ‘-니까요’, ‘-우다’, ‘-지비’가 있으며 ‘-수(다)’는 ‘-소’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다’는 ‘-오의’, ‘-지비’는 ‘-지요’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원칙 평서형 ‘-니라’, 확인 평서형 ‘-렸다’, 약속 평서형 ‘-마’나 ‘-음세’는 고려말 구어체 표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담화에서 자주 쓰이는 합쇼체의 ‘-(스)꾸마’는 소설의 구어체 표현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sup>2)</sup> ‘-라’의 6

‘아차, 이 정신을 봐라.’는 형태는 평서문이지만 감탄사와 함께 쓰여 사실상 감탄문의 의미로 쓰인다.

## 2.2. 감탄문

감탄문은 문장 내용을 감탄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문장 종결 양식인데 용언에 감탄형 어미가 첨가되어 실현된다. 감탄의 의미는 감탄문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주로 와와 같은 감탄사가 함께 쓰이거나 ‘아주’, ‘무척’, ‘매우’, ‘꽤’, ‘정말’, ‘굉장히’ 등과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함께 쓰인다(국립국어원 104-105).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감탄형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거라 1 오냐 잘 가거라! / 2 모두 잘 가거라!

구나 1 풀라는 못 데리구 왔구나. / 2 내 논에서 김멜 대는 다 병어리고 수난의 논에 오면 거저 노래 구나! / 3 너 기특하구나! / 4 참 훌륭한 아이구나! / 5 네 왔구나! /

구마 1 아, 복순이 왔구마! / 2 이제야 알만하구마.

구만 1 이런 변이 있나, 의복감이 싹 젖었구만! / 2 허-허 그러면 안됐구만.

구면 1 일본 군사들이 저 산비탈로 막 내려미는구면.

구요 1 대지 않구요. / 2 분홍색에 푸른점들이 총총 박힌 빨라찌예가 있다가요. / 3 예, 알지 않구요.

군 1 거 참 잘 됐군!

군요 1 들으니 에서 20킬로 메뜨르를 가면 고아원이 있더군요. / 2 그거 참 나와 꼭 같군요.

꾸나 1 애들아 해보자꾸나! / 2 야, 그러면 됐구나, 우리 넷이 하자꾸나.

나 1 그저 그 장난꾼들이 나무를 상하지 말고 따먹었으면 좋지 않겠나. / 2 그런데 내가 온 해 봄에 처음 등지를 틀지 않았겠나.

너라 1 야, 수남아, 빨리 여기 오너라!

니요 그 일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요!

다오 1 독일하고... 파시스트들이 서부 국경을 넘어 섰다오!

비니다 1 동무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다 전사가 되고 우리 공장은 전투 초소로 변해야 합니다!

비니다그려 1 당신은 내 어렸을 때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려.

비시다 1 그러니 서로 도와 주며 배웁시다!

세요 1 너무 업신 여기지 마세요! / 2 이 눈을 보세요!

소그려 1 아, 이거 명절 의복을 이렇게 찢기워서 안됐소그려.

아 1 너 말 좀 해 봐 어서!

어라 1 야, 이것 좀 더 먹어라!

어요 1 엄마 잘 있었어요! / 2 그럼 안녕히 계세요! / 3 벌써 사흘이 됐어요! / 4 아주 훌륭해요! / 5 어쨌든 동무는 실로 만유인력이에요!

오 1 마마오! / 2 어머니, 나를 살려 주오, 어머니! / 3 그러지 말고 이리 보내시오!

이다 1 이 짐승 같은 놈아, 였다! / 2 못 할 일이다! / 3 나는 끝없이 행복스럽다!

르요 1 사람의 애정은 거리가 멀수록 그만큼 그 인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요!

자 하자고 먹은 마음을 변치 말자!

지 1 고금에 없는 일이지 원!

지요 1 저런 청년은 여자들에 대한 존경심이란 전연 없지요!

종결어미 생략 1 아이구, 어머니! / 2 애구머니, 이 불을! / 3 액! / 4 네 살! / 5 이거!

위에 인용한 고려말의 구어체 감탄형 종결어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용 빈도수)

2) 1938년부터 1953년까지 (레닌기치) 지면에 발표된 소설 작품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을 조사해 보았으나 평서형의 합쇼체 종결어미인 ‘-(스)꾸마’는 쓰이지 않고 있다. 1954년부터 1991년까지 고려인 신문에 발표된 소설과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집에 사용된 구어체 표현을 모두 조사해보아야만 이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격식체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는)구나(5)	-(는)구먼(1) -(는)구만(2) -구마(2)	-소그려(1)	-버니다그려(1)
비격식체			
해체	해요체		
-(는)군(1)	-(는)군요(2), -구요(3), -어요(5)		

사용된 감탄형 종결어미 가운데 위 도표에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구나’, ‘-나’, ‘-니요’, ‘-르요’, ‘-다오’, ‘-지’, ‘-지요’가 있다. ‘-구나’는 ‘-구나’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은 평서형 종결어미나, 명령형 종결어미, 혹은 청유형 종결어미에 감탄부호를 붙여 감탄문으로 만든 것인데, ‘버니다 나 -이다’ 같은 평서형 종결어미, ‘-거라’, ‘-너라’, ‘-세요’, ‘-아’, ‘-어라’, ‘-자’, ‘-오’, ‘-시오’ 등의 명령문 종결어미가, ‘-버시다 나 -자’와 같은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다. ‘아이구, 어머니!’, ‘에구머니, 이 불을!’. ‘엑!’, ‘네살!’, ‘이거!’ 처럼 종결어미가 생략되고 감탄부호의 사용으로 감탄의 의미를 표시하기도 한다. ‘-구나’ 2와 8; ‘-구마’ 2; ‘-구만’ 2; ‘-구요’ 1, 2, 3; ‘-군요’ 1, 2; ‘-구나’ 2; ‘-그려’ 1, 2; ‘-나’ 1, 2처럼 느낌표가 붙지 않고 온점이 붙었는데 감탄의 의미가 약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국립국어원 104). 표준 한국어에는 합쇼체의 감탄형 어미는 고유한 형식이 없고 합쇼체의 평서형 어미에 조사 ‘그려’가 붙은 ‘-버니다그려’가 감탄을 표시하는 것처럼(남기심, 고영근 157) 고려말에서도 ‘-버니다그려’가 감탄형 합쇼체의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 2.3. 의문문

의문문은 청자에게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 형식의 문장 종결 양식으로 용언의 의문형 어미를 첨가하여 실현한다. 의문형은 발화시에는 억양에 의해서 평서형과 의문형이 구별되지만 글로 표기할 때는 동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문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고려인 소설에 사용된 구어체 의문형 어미는 다음과 같다.

**가 1** 내 너를 데려다 줄가?

**가요 1** 그 나무 있는 데 가볼 수 있을까요? / 2 그런데 나는 동무를 어떻게 알아 볼가요? / 3 무슨 일 부터 시작할가요? / 4 공원이 좋기는 한데, 거기서 내가 동무를 어떻게 알아볼가요?

**거냐 1** 그러문 세 사람이 다 죽자는거냐.

**구나 1** 내 도적이구나?

**구(요) 1** 뭐, 뭐라구? / 2 바른 대로 말하라구? / 3 그런 차림을 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꽃방에 가서 란초꽃 한 묶음 들고 오겠다구요? / 4 여덟시 정각, 먼저 가는 사람이 공원으로 들어 가다가 세 번째 의자에 앉는다구요? / 5 왼쪽 가슴에 작은 장미꽃을 꾀겠다구요?

**가요 1** 그러면 문화 휴식 공원에서 만날까요? / 2 내 좀 도와 들일까요? / 3 어디서 만날까요? / 4 내가 합숙으로 찾아 갈가요?

**나요 1** 동무애들이 놀러 주면 어찌하나요?

**(느)냐 1** 그건 무슨 두루말이냐? / 2 그러문 이 령감을 두고 간단 말이나? / 3 네가 밤에 고기 집던데 어디냐? / 4 네게 물이 없냐? / 5 아니 넌 보라는 물은 안 보고 그것만 안고 다닐 참이나? / 6 야, 철수야, 저게 어느 애냐. / 7 어떻게 할 참이나? / 8 어린애냐? / 9 점심거리가 다 무에냐? / 10 닳돈이면 저녁에 가서 검정 빵은 배부르게 먹을게 아니냐? / 11 어찌면 살림이 날마다 이렇게 더 구차하여 가느냐? / 12 애 수난아, 네가 정말 물을 대려고 드느냐?

**는가 1** 그리구 자네 아는가? / 2 자네 생각해 보라니, 사람이 났다가 세상에 흔적을 남겨 놓아야 할 게 아닌가? / 3 그런데 내 세상에 무슨 흔적을 남겨 놓았는가? / 4 자식 하나 있다는 말인가, 사회 일을 크게 했던 말인가 / 5 누구에게 특별히 선한 일을 한게 있던 말인가. / 6 세상에 무슨 자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죽으면서도 그렇게 아쉽지 않을 게 아닌가? / 7 어디 만만하겠는가... / 8 이 사람 창수, 어찌 먼히 앉아 있는가? / 9 응, 자네 그새 앞지나 않았는가? / 10 이 사람, 물을 마시겠는가? / 11 자네 생각에는 내가 능금을 먹자고 심은 줄 아는가. / 12 보는가 / 13 하많은 물보기군 중에서 하필 칠십이 넘는 내게 맡길 건 무언가? / 14 벌써 두 해가 됐는가? / 15 아... 내 잊었는가?

**는가요 1** 곱단에게 유달은 의복이 없는가요? / 2 그것은 어디서 안 것인가요? / 3 네, 만유인력인가요? / 4 어떻게 만나는가요? / 5 그런데 미안하지만 동무의 이름이 무언인가요?

**닉 1** 그래 내 만식이와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이니? / 2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 따위 허튼 소리를 하니?! / 3 내동무들이 걱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입원했을 수 있늬... / 4 내 병 때문에 네 이렇게 떠다니다니면 제 병자들은 어느 때 치료하겠니? / 5 어째서 네 오늘 와서 싫다고 하니?! / 6 그래 내 만식이와 관계 없니?! / 7 형편이 그러면 또 왜 오겠늬...

**니 1** 그래, 까짜, 몇 살이니? / 2 그래, 너는 엄마를 못 봤니? / 3 그래, 어찌 그러니. / 4 그러면 글썽배 고파서 어찌겠니. / 5 그리다가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길지 누가 아니? / 6 까짜, 너희 엄마 어디 갔니? / 7 너는 물 보러 오지 않구 고기 잡일 왔니? / 8 넌 여기가 무슨 어장인줄 아니? / 9 네 이름이 무엇이니? 응? / 10 딱씨에 들어 왔니? / 11 수남아 네게는 점심거리가 있니? / 12 야, 똥

썩, 왜 시기는 말을 듣지 않니? / 13 애들아, 큰 가마와 작은 가마를 넷을 닦는데 모두 두 냥을 주겠다, 닦겠니? / 14 어찌겠니? / 15 오늘 밤에 너 혼자 그 다섯 배미에 물을 덜 만 하니? / 16 왜 소리쳤니? / 17 응... 간지 오래니? / 18 처녀가 물을 보다니? / 19 철수야, 너 세상에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가 어느 때였니? / 20 그래 혼자 갈만하니? / 21 그런데 까짜, 네 어디서 그런 새 빨라찌 예를 입었니? / 22 계집애가 물을 보다니? / 23 그런데 아니라니. / 24 청년이라니?

**니다 1** 그냥 그 놈들이겠습니까?

**니요 1** 썰까스라니요?! / 2 아니, 가다니요?

**다** 하려고 들면 못 할 일이 없다?

**라구요 1** 그리다 나를 만나 보고 ‘아, 까투리 같은 게!’ 하고 돌아설라구요?

**(비)니까 1** 02-14호입니까? / 2 그런데 동무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 3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 4 아바이 그새 안녕하십니까? / 5 아바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6 아바이, 놓겠지만 일이 그리 된 것을 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 7 아십니까. / 8 알로, 누구입니까? / 9 그럼 내가 모를 것이 있는데, 동무에게 물어도 좋습니까? / 10 아바이도 첫 해 물 볼 때엔 아는 사람과 물어 보기도 했을 게구 도움도 받았을 게 아십니까? / 11 수난이도 금년이 첫 해니 그렇지만 아바이가 잘 배워 주시면 명년부터 자립적으로 물을 볼게 아십니까? / 12 여기서 일합니까? / 13 예, 그 로인과 어떻게 되시는 분이십니까? / 14 예... 안녕십니까? / 15 인젠 년세가 있지 않습니까? / 16 주인 계십니까? / 17 주인 되시는 분이 먼데루 갔습니까? / 18 어느 꼴호스로 가십니까? / 19 언제 내가 병원에 왔습니까?

**소 1** 게 누가 왔소? / 2 누구를 찾소? / 3 물이 깊지 않소? / 4 아, 그렇소? / 5 양? ... 오겠소? / 6 양?! 왔소?! / 7 그럼 썰까스 어머니겠소? / 8 여

보! 어서 조반을 짓지 않소?...  
**수** 1 숙인들 어제 타지 않겠수? / 2 잔소리할 사람이 없지 하니 술꾼들이 거의 저녁마다 모여 들지 않겠수?  
**애요** 1 글세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애요?  
**어/아** 1 못 봤어. / 2 서부 국경을 넘어 섰어? / 3 애들이 어딜 갔어? / 4 없어? / 5 웃긴 왜 웃어?  
**(어/아)요** 1 그래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 2 그럼 울어야 되겠어요? / 3 시위 행렬에 나갔었어요? / 4 아이, 아바이도 몸이 편지 않스인데, 왜 나오셨어요? / 5 아이구 아바이두, 눈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 6 약을 잡수셨어요? / 7 왜 여기 앉아 있어요? / 8 저런 미치광이를 보았어요. / 9 날마다 이 모양이겠어요? / 10 내가 합숙으로 찾아 가도 좋아요? / 11 얼마나 물이 고루 서 있어요? / 12 그래 어찌 그래요? / 13 그새 안녕하세요? / 14 피포리요? / 15 누구를 찾으세요? / 16 당신이 어디 아파요? / 17 아, 그래요? / 18 아주머니, 그새 안녕하세요? / 19 그런데 이름은 무예요. / 20 아니, 무엇이래요? / 21 일본 군사 보이지 않아요?  
**오** 1 그래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오. / 2 누가 지방을 쓸만하오? / 3 동무가 전 수난이오? / 4 색시, 그런 말을 어찌 하오? / 5 왜 저렇게 수선들을 떠오? / 6 좋은 궁리를 해내오? / 7 그리고 왔다손 치더라도 그 전에 아이들을 후퇴시켰을 게 아니오.  
**우** 1 아니 이 추운 날에 그 찬 물에 어떻게 들어 서자구 그러우?  
**으냐** 1 너 죽고 싶으냐?  
**(이)요** 1 그래 동무의 이름은 무엇이요? / 2 어제 저녁에 나와 같이 왔던 청년이 이 폴호스 청년이요? / 3 회색 양복에 회색 중절모요? / 4 아니 - 첼수, 첼수 어머니요?  
**이라** 1 뭐라?!... / 2 사흘이라?  
**자구** 1 응, 누구를 망해우자구?

**죠** 1 그럼 그애들이 살아 있단 말이죠?  
**지** 1 알아들었지! / 2 까짜, 너 빠빠를 기다리지? / 3 니년의 조각이지? / 4 빠빠, 이제는 아프지 않지, 응? / 5 수난아, 인젠 알만 하지. / 6 수난이 지난 밤에도 눈에서 밤을 세웠는지?  
**지요** 1 곱단이지요, 나 성남이요. / 2 어디서 누구를 찾아 오셨는지요? / 3 칠 년 전에 이 곳에 경호 아바이라는 로인이 살아계시었지요? / 4 그런데 동무도 대학생이지요? / 5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 수록 그 인력이 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물체의 인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법칙이지요?  
**종결어미의 생략** 1 과실 나무를? / 2 만유인력? / 3 뭉, 전쟁이? 어디하고... / 4 술은 무슨 술? / 5 어떻게 할 걸? / 6 응, 정신을? / 7 응?! / 8 자신이?!... / 9 그런데 아바이는? / 10 그런데 까짜는? / 11 분옥의 정조는? / 12 덤비긴 왜?

위에 인용한 고려말의 구어체 의문형 종결어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용 빈도수)

격식체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느냐(12), -닉(7), -니(24), -지(6)	-는가(15)	-오(7) -소(8)	-(느)냐(19)
비격식체			
해체	해요체		
-어/아(5)	-어/아요(21) -지요(5)		

‘-가’, ‘-가요’, ‘-거냐’, ‘-구(요)’, ‘-까요’, ‘-나요’, ‘-는가요’, ‘-니다’, ‘-니요’, ‘-다’, ‘-라구요’, ‘-수’, ‘-애요’, ‘-우’, ‘-으냐’, ‘(이)요’, ‘-이

라’, ‘-자구’가 있다. 이 가운데 ‘-수’는 ‘-소’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는 ‘-오’의, ‘-죠’는 ‘-지요’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구나’처럼 감탄형 종결어미 뒤에 의문부호를 붙이거나 ‘-니다’처럼 평서형 종결어미에 의문부호를 붙여 의문문을 만든 경우도 있다. ‘-니’의 2처럼 의문부호와 함께 감탄부호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해라체의 ‘-닉’은 ‘-니’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담화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합쇼체 종결어미인 ‘-므두’나 ‘-슴두’는 소설작품에 사용된 구어체 표현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다.<sup>3)</sup> ‘-거냐’ 1; ‘-(느)냐’ 6; ‘-는가’ 5, 7, 11; ‘-닉’ 3, 7; ‘-니’ 3, 4, 23; ‘-(느)냐’ 5, 7; ‘-어/아’ 1; ‘-(어/아)요’ 8, 19; ‘-오’ 1, 7; ‘-지요’ 1처럼 의문형 종결어미만 사용되고 의문부호가 생략되거나, 의문부호는 있으나 의문형 종결어미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 2.4. 명령문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종결 형식인데 용언에 명령형 어미를 첨가하여 실현한다.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명령형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거라** 1 잠간 눈을 붙였다 나가라.  
**게** 1 그렇게 하게. / 2 자네는 이제 낚시질이나 하게.  
**구** 1 내 가마를 들테니 저 부엌 속에 들어가 앉으라구.  
**너라** 1 야 폴랴, 경호 아바이 낚시대를 가져 오너라.  
**아/어** 1 어서 들어 와요. / 2 어서 들어 가세요. / 3 여복소, 이리 오세요. / 4 곱단이 용서해 주셔요.  
**어라** 1 사람들이여, 부러워하라! / 2 그럼, 얼근 갔다 오너라. / 3 네 말 대로 해라! / 대여라. / 4 좀 더

달래 봐라. / 5 바른 대로 말해라! / 6 앉아라, 저어... / 7 야, 폴쑤, 나를 버려 두고 이 령감을 끌고 먼저 나가라. / 8 오냐 명심해라! / 9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 10 분옥아, 용서해라. / 11 한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여기 저기 자주 다니며 살펴라. / 12 까짜, 잘 있어라.

**오** 1 걱정 마십시오. / 2 앉으십시오. / 3 어서 걸으시오. / 4 예, 들어오십시오-주인이 응답했다. / 5 그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십시오. / 6 아니 그러지 말고 와 앉으시오. / 7 아이를 여기 주시오. / 8 어서 들어 가요. / 9 좀 참으시오. / 10 주정을 좀 작작하오.

**(으)시오/요** 1 그러면 어서 앉으시오. / 2 어서 와 앉으시오. / 3 여기 와 앉으시오. / 4 너무 놀리지 마시오. / 5 아예 무서워 하지 마시오. / 6 이름은 알아 무엇 하시오. / 7 빨리 들어 가시오.

**(으)십시오** 1 넘어 마시고 어서 농막에 들어가 따뜻한 온들에서 몸 조리를 하십시오. / 2 밥을 한 술 주십시오. / 3 여기 좀 서 있십시오.

**(으)세요** 1 무례한 짓을 마세요 / 2 어머니, 나가 주무세요... / 3 우리는 예서 몇 집 건네서 사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 4 저것 보세요. / 5 젊은이, 이 애기를 이렇게 안으세요. / 6 잘 가세요. / 7 그러세요. / 8 어서 들어 오세요. / 9 저 좌우지간 들어 오세요. / 10 앉으세요. / 11 저.. 계 앉으세요.

**우** 1 당신이 생각해 보우.  
**지** 1 까짜, 쪼짜에게 상을 가져 오지, 응. / 2 너 물을 떠오지...

위에 인용한 고려말의 구어체 명령형 종결어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용 빈도수)

3) 1938년부터 1953년까지 《레닌기치》 지면에 발표된 소설 작품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을 조사해 보았으나 의문형의 합쇼체 종결어미인 -므두나 -슴두는 쓰이지 않고 있다. 1954년부터 1991년까지 고려인 신문에 발표된 소설과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집에 사용된 구어체 표현을 모두 살펴보아야만 이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격식체			
해라체 -아/어라(12), -거라(1), -너라(1)	하계체 -게(2)	하오체 -오(10)	합쇼체 -(으)시오/요(7) -(으)십시오(3), -(으)세요(11)
비격식체			
해체 -지(2)	해요체 -아/-어요(4)		

사용된 종결어미 가운데 위에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구’와 ‘-우’가 있다. ‘-우’는 ‘-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5 청유문

청유문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종결 어미인데 용언에 청유형 어미를 첨가하여 실현한다.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청유형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ㅂ시다 1 그런데 우리 전화로 그만 이야기 하고 서로 만납시다. / 2 그렇게 겸손을 따지 맙시다. / 3 방에 들어 가서 얘기 합시다. / 4 이야기는 다른 날로 밀립시다. / 5 인젠 우리 전화 놀음을 그만 두고 서로 만납시다. / 6 자 갑시다. / 7 정말 가봅시다. / 8 그러합시다. / 9 그러니 도본 대로 놓이지 못한 수통들은 빼서 다시 놓습시다.

세 1 며느라, 우리 집으로 자네 가지고 온 아버지의 늦주발과 대접과 순가락을 가지고 가세...

세다 1 나하구 같이 갑세다.

자 1 그러면 해보자 / 2 어서 나가자. / 3 공산주의적으로 로동하며 배우며 살자! / 4 나와 같이 들어가자.

위에 인용한 고려말의 구어체 청유형 종결어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용 빈도수)

격식체			
해라체 -자(4)	하계체 -세(1)	하오체 없음	합쇼체 -ㅂ시다(9)
비격식체			
해체 없음	해요체 없음		

사용된 청유형 종결어미 가운데 위 도표에 열거하지 않은 것으로 ‘-세다’가 있는데 이것은 ‘-ㅂ시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격식체의 하오체와 비격식체의 해체와 해요체에 해당하는 청유형 종결어미는 고려인 소설의 대화체 문장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준 한국어 격식체의 하오체는 원래 고유한 형식이 없으며 합쇼체의 청유형 어미 ‘-ㅂ시다’가 대신 쓰인다고 했는데(남기심, 고영근 157) 실제 고려말 담화에서 청유문의 하오체 종결어미인 ‘-꺄소’가 자주 쓰이나 소설의 구어체 표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sup>4)</sup>

## ③ 마무리

《시월의 해빛》(1971)에 실린 고려인 소설 13편에 사용된 구어체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본 문장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1) 평서형 종결어미로 해라체는 ‘-(ㄴ/는)다’, ‘-

라’, ‘-지’; 하계체는 ‘-네’; 하오체는 ‘-오/소’; 합쇼체는 ‘-(ㅂ)니다’, 해체는 ‘-아/어’; 해요체는 ‘-아/어요’와 ‘-지요’가 있다. 이 외에도 ‘-라’, ‘-구’, ‘-구두’, ‘-다니’, ‘-턴’, ‘-데’, ‘-데두’, ‘-데요’, ‘-라니’, ‘-수다’, ‘-애요’, ‘-예요’, ‘-으리’, ‘-이요’, ‘-니까요’가 있다. 이 가운데 ‘-수(다)’는 ‘-소’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다’은 ‘-오’의, ‘-애요’와 ‘-예요’는 ‘-아/어요’의, ‘-지비’는 ‘-지요’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원칙 평서형 ‘-니라’, 확인 평서형 ‘-렀다’, 약속 평서형 ‘-마’나 ‘-음세’는 고려말 구어체 표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 고려말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쇼체 종결어미인 ‘-(스)꾸마’는 소설 구어체 표현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2) 감탄형 종결어미로는 해라체는 ‘-(는)구나’; 하계체는 ‘-(는)구먼’, ‘-(는)구만’, ‘-구마’; 하오체는 ‘-소그려’; 합쇼체는 ‘-ㅂ니다그려’; 해체는 ‘-(는)군’; 해요체는 ‘-(는)군요’, ‘-구요’, ‘-어요’가 있다. 이 외에도 ‘-나’, ‘-니요’, ‘-크요’, ‘-다오’, ‘-지’, ‘-지요’가 있다. 한 가지 두드러진 현상은 평서형 종결어미나, 명령형 종결어미, 혹은 청유형 종결어미에 감탄부호를 붙여 감탄문으로 만든 것인데, ‘ㅂ니다’나 ‘-이다’ 같은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고, ‘-거라’, ‘-너라’, ‘-세요’, ‘-아’, ‘-어라’, ‘-자’, ‘-오’, ‘-시오’ 등의 명령문 종결어미가 있고, ‘-ㅂ시다’나 ‘-자’와 같은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다. 감탄형 종결어미가 생략되고 감탄부호의 사용으로 감탄의 의미를 표시하거나, 느낌표가 붙지 않고 온점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감탄의 의미가 약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표준 한국어에는 합쇼체의 감탄형 어미는 고유한 형식이 없고 합쇼체의 평서형 어미에 조사 ‘그려’가 붙은 ‘-ㅂ니다그려’가 감탄을 표시하는 것처럼 고려말에서도 ‘-ㅂ니다그려’가 감탄형 합쇼체의 종결어미로 쓰이고 있다.

3) 의문형 종결어미로 해라체는 ‘-느냐’, ‘-니’,

‘-니’, ‘-지’; 하계체는 ‘-는가’; 하오체는 ‘-오/소’; 합쇼체는 ‘-ㅂ니까’; 해체는 ‘-어/야’; 해요체는 ‘-어/아요’와 ‘-지요’가 있다. ‘-니’는 ‘-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 ‘-가요’, ‘-거냐’, ‘-구(요)’, ‘-까요’, ‘-나요’, ‘-는가요’, ‘-니다’, ‘-니요’, ‘-다’, ‘-라구요’, ‘-수’, ‘-애요’, ‘-우’, ‘-으냐’, ‘(이)요’, ‘-이라’, ‘-자구’가 있다. 이 가운데 ‘-수’는 ‘-소’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우’는 ‘-오’의, ‘-쥬’는 ‘-지요’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구나’처럼 감탄형 종결어미 뒤에 의문부호를 붙이거나 ‘-니다’처럼 평서형 종결어미에 의문부호를 붙여 의문문을 만든 경우도 있다. 가끔 의문부호와 함께 감탄부호를 함께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실제 고려말 담화에서 자주 쓰이는 합쇼체 종결어미인 ‘-ㅂ꾸마’나 ‘-슴두’는 소설 구어체 표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의문형 종결어미만 사용되고 의문부호가 생략되거나, 의문부호는 있으나 의문형 종결어미가 생략된 경우도 있다.

4) 명령형 종결어미로 해라체는 ‘-아/어라’, ‘-거라’, ‘-너라’; 하계체는 ‘-게’; 하오체는 ‘-오’와 ‘-구려’; 합쇼체는 ‘-(으)시오/요’, ‘-(으)십시오’, ‘-(으)세요’; 해체는 ‘-지’; 해요체는 ‘-아/어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구’와 ‘-우’가 있다. ‘-우’는 ‘-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5) 청유형 종결어미로 해라체는 ‘-자’; 하계체는 ‘-세’; 합쇼체는 ‘-ㅂ시다’가 있다. 이 외에 ‘-세다’가 있는데 ‘-ㅂ시다’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격식체의 하오체와 비격식체의 해체와 해요체에 해당하는 청유형 종결어미는 이번에 조사한 고려인 소설의 대화체 문장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고려말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오체 종결어미인 ‘-꺄소’는 소설 구어체 표현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집 《시월의 해빛》(1971)에 실린 소설 작품에 국한된 것이어서 소설에 나타난 고려말 구어체 표현에 관한 일반론을 도출하

4) 1938년부터 1953년까지 (레닌기치) 지면에 발표된 소설 작품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을 조사해 보았으나 청유형의 하오체 종결어미인 ‘-꺄소’는 쓰이지 않고 있다. 1954년부터 1991년까지 고려인 신문에 발표된 소설과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집에 사용된 구어체 표현을 모두 조사해보아야만 이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련 시절에 출간된 모든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집과 《레닌기치》(1938-1990), 그리고 《고려일보》(1991)에 게재된 고려인 소설 작품의 구어체 표현을 총체적으로 살펴 보아야만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레닌기치》(1938-1953)에 게재된 단편소설 작품.  
《시월의 해빛》(1971), 알마아따: 작가출판사.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체계편》, 서울: 국립국어원.  
권재일(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울: 박이정.  
김 마리나(2007), 《카자흐스탄 고려말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필영(2004), 《고려사람과 고려말》,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용인: 강남대학교 출판부.  
남기심, 고영근(2001),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니 라리사(2002), 《카자흐스탄 고려말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기갑, 김주원, 최동우, 연구동, 이현중(2000),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서울: 한글학회.

## ЖАНРЫ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ОРЕЙСКОЙ ПРОЗЫ

중세 한국의 산문 갈래

Сайдазимова У.Т.  
Saydazimova Umida

*Пхэсоль* - род корейской средневековой проза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алых форм на китайском языке. Понятием *пхэсоль* охватывается круг жанр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 не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главными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новелла, анекдот, предание, очерк, информация.

Термин *пхэсоль* ведет начало от названия китай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жанра *байшо вэньсюэ* или *байгуань вэньсюэ*, сформировавшегося еще в период Хань. В древней китайск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хронике «Хань-шу»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при династии Хань в Китае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должность *байгуань*<sup>2</sup>. Служба этих мелких чиновников заключалась в собирании народных рассказов, преданий, песен и других материалов у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нститут *байгуань* преследовал, вероятно,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политическую цель: записи фолькло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составляли час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егулярно доставлявшихся императору<sup>3</sup>.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произведения эти переписывались и обрабатывались, в них вносились элементы соб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ереп

исчик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возникла своеобразная литература *байгуань вэньсюэ*,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ой строились на фольклорных сюжетах. Все известные нам сборники литературы *пхэсоль* в Корее составлены, однако, не мелкими чиновниками типа *байгуань*, а извест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sup>1</sup> Ко Джон Ок, О корейских сорхва, - «Чосон мунхако», 1959, № 1; его же, Исследо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Пхеньян, 1962.

<sup>2</sup> «История ранней Хань», Раздел «Литература», - В сер.: «Сы бу бэй яо», т.52, Шанхай, 1936, стр.584.

<sup>3</sup> «Обща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1., Пхеньян, 1959, стр.62.

<sup>4</sup> Юй Цзя-си, Литература раздела сяшо происходит от рассказов байгуань, - «Фужэнь сюэчжи», Бэйпин, 1937 ;

его же, Заметки по поводу науки о классиках, т.1, Пекин, 1963.

литературных кругов, занимавшим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высокое со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Называя создаваемые ими произведения - *пхэсоль*, корейские авторы имели в виду прежде всего, очевидно, их характер, их аналогию кита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жанра *байшо*.

По мнению большинства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возникла в Корее на рубеже XII-XIII вв. и создавались до XV в. включительно<sup>1</sup>. Первым сборником произведений *пхэсоль* считаются «Рассказы от скуки» Ли Ин Но. Вслед за сборником Ли Ин Но в XIII в. появился еще ряд сборников, наи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ми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рассказы» Чхве Джа и «Рассказы Пэгуна» Ли Гю Бо. Из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сборников XIV в. обычно отмечают произведение Ли Дже Хёна «Пхэсоль Ёгона». Затем в течение почти целого столетия, с конца XIV по конец XV в., сборник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хэсоль* не создаются, в конце же XV в., они «снова стали бурно появляться, как по беги бамбука после дождя»<sup>2</sup>. Наиболее выдающимися авторами этого периода были Сон Хён и Со Го Джон. Сон Хёну принадлежит сборник «Гроздь рассказов Ёнджэ», Со Го Джону - сборники «Записки о знаменитых каллиграфах», «Занимательные рассказы годов благоденствия», «Рассказы о корейских поэтах». XV в. дал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несколько сборников *пхэсоль* - «Рассказы Ёняхона, написанные в уединении» Ким Ан Но, «Смешанные

записки в духе пхэгван» О Сук Квона, «Записки Чхонгана о незначительном» Ли Джэ Сина. В XVI в. писали Ким Си Ян - «Записки от скуки Хадама», Син Хым - «Смешанные записки Санчхона», Ю Мон Ин - «Ходячие рассказы Оу». Это далеко не полный перечень авторов (мы назвали только наиболее известных), создавших сборники произведений *пхэсоль*.

Как можно было заметить,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появлялись в виде сборников с характерными названиями: «гроздь рассказов», «смешанные записки», «разные рассказы», «ходячие рассказы» и т.д. Эти названия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смешанном характере сборников. В них нет четкого

<sup>1</sup> Ким Ха Мён, Класс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нашей страны, Пхеньян, 1957, стр.41.

<sup>2</sup>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т.1, Пхеньян, 1959, стр.6.

отделения произвед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т не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в сборнике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истор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анекдот, новелла, сказка, статья, сменяющие друг друга часто без всякой видимой связи. Ввиду этой особенности сборники *пхэсоль* квалифицируются как *чаммун* — смеш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или литературная смесь.

Сборники обычно делятся на *квоны*<sup>2</sup>, определяемые лишь отчасти некоторой тематической общностью произведений. Рассмотрим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и самых крупных сборников *пхэсоль* «Гроздь рассказов Ёнджэ» Сон Хёна . Сборник этот разделен на десять *квонов*, содержащих произведения, занимающие от трех страниц до двух-трех строк. В первом *квоне* мы находим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известным писателям, живописцам, музыкантам - «Литература и мастерство писателей», «Ан Ген, Чхве и другие живописцы», «Музыканты - виртуозы», истории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ым местам «Древние корейские

столицы»,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ые места в Сеуле», обрядовым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вопросам - «Свадебный подарок невесте», «Обязанности чиновников Сынджонвона». Тут же помещена заметка «О повышении цен на рынке» и другие материалы. Во втором *квоне* содержатся сведени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 «Обряды чествования чиновников и вновь выдержавших экзамены», «Обряды и церемонии года», информация - «Порядок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Книг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во времена короля Сончжона», «Перечень сочинений автора» и так далее. Третий и четвертый *квоны* посвящены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эпизодам из жизни исторических лиц Кореи, - писателей, полководцев, министров, - чертам 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характера: «Мнимый слепой Чо Ун Хыль», «Возлюбленная короля Чхунсонвана», «Литературное мастерство Ким Кви Э». В эти же *квоны* включены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фолькло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 «Кан Гам Чхан прогнал

<sup>1</sup> См. «Обща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тр.118.

<sup>2</sup>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 'свиток', позднее - 'книжная единица объемом в 20-30 лл.'

<sup>3</sup>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не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рий Кореи, т. 1, Сеул, 1934, стр.1-63.

тигров», «шутник Ён Тхэ», «Чем кормить сокола?» и другие. Пятый *квон* выделяется относительно большей спецификой содержания: он включает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овеллы и анекдоты фолькло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Два брата», «Служки дурачат монахов», «Сэн Ан», «Оплошность слепого музыканта» и т.д. Остальные пять *квонов* (с шестого по десятый) в еще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ем 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овокупность самых разнородных в жанровом и тематич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произведений.

Отде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составляющие *квоны*, никак не оглавлены (приводимые здесь названия предложены в последнем издании переводов избра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ихэсолъ*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мы сохраняем их для удобства изложения материала) и выделяются только красной строкой. Произведения эти, как бы невелики они ни были (иногда - всего две-три строки), являются вполне законченными и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Отде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мещенные в сборниках «гнездами», могут иметь и более ярко выраженную тематическую связь. Таковы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уже рассматривавшемся нами сборнике одно за другим произведения «Разбой чжурчженей» - «Обычаи японцев» - «Обычаи варваров»; «Слепцы в храме Мёнтхонса» - «слепец на небе» - «Спеуталя с собственной женой» (о слепце). В сборниках можно также обнаружить «гнезда» - серии новелл и анекдотов («Глупый зять», «Служки дурачат монахов», «шутник

Юн Тхон» и другие), посвященных единому персонажу.

Сборники *ихэсолъ* имеют ярк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окраску. Известно, что д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ихэсолъ* единственным видом светской прозы в Корее была истор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включавшая некоторое количество фолькло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Здесь, так же как и в Китае,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чинения разделялись на два вида: *чонса* - офи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и *яса* - неофи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Эти последние являлись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частных лиц, которых нередко подвергали преследованиям за собственную интерпретацию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за нелицеприятную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Писались *яса* без

<sup>1</sup> См. Ко Джон Ок, О корейских сорхва, стр.39.

строго соблюд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ого принципа - фиксировать, но не сочинять. В них не соблюдались системность изложения и отбор сугубо истор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значительное место отводилось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и прочим вопросам современности. В *яса*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много фолькло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преданий, анекдотов, народных новелл, сказок, пословиц, поговорок,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связанных с конкрет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или с реальной исторической личностью. Не случайно этот тип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аименее связанный с историографией как таковой, некоторые авторы называли *пхэса* - история, [написанная в духе ] *пхэсоль*<sup>1</sup>.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воей части порожденные историографией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ериода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охраняли истор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жанров *пхэсоль* - очерк - явил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развит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писания (в сторон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воссозда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та. Прототипами очерков *пхэсоль* были биографии знаменитых людей, по традиции помещавшиеся в 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х сочинениях. Однако авторы *пхэсоль*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принципиально иную задачу - показать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ческие деяния человека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фициа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сколько отдельные черты его характера, ег

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л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качества. Не овладев еще искусств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бстрагирования, авторы *пхэсоль* брали только "готовый" материал - реаль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факт (или произведение у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материале выросли и такие жанры *пхэсоль*, как заметка, информация.

Авторы *пхэсоль* ставили перед собой и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задачу 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Они начали с того, что стали фиксировать факты самого разл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в том числе - факты литературы (поэзия) и фольклора. Вот что писал один из родоначальников *пхэсоль* Ли Ин Но в предисловии к своему сборнику: "Страна наша омывается Восточным морем и с древних

<sup>1</sup> См.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т.1, стр.4.

времен зовется "Страной бессмертных". Здесь родилось бесчисленное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выдающихся. А такие знаменитые ученые и поэты как Чхве Го Ун и Пак Ин Нян, прославились даже в Китае... И если мы не запишем их сочинений для передачи потомкам, то, без сомнения, все они будут забыты. Поэтому из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и за ее рубежами поэтов выбрал я самых лучших, составил [из их сочинений книгу в] три *квона* и назвал ее "Рассказы от скуки"<sup>1</sup>. Почти то же самое писал и Чхве Джа<sup>2</sup>. Заметим однако, что называть сборники *пхэсоль* антологиями можно весьма и весьма условно, так как они отнюдь не являются собраниями поэт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 прямом смысле слова. *Пхэсоль* - литература прозаическая, стихотворения здесь всегда являются лишь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предания, анекдоты, очерка, заметки и т.д. Ни один автор *пхэсоль* никогда не помещал в свой сборник стихотворения в качест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она всегда выполняла там ту или иную служебную роль - характеризовало его автора, подтверждало какую-либо мысль автора *пхэсоль* и т.д.

Уже в ранних сборниках *пхэсоль* стави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дача позабавить, развлечь читателя. Например, в конце своего сборника Яхве Джа писал: «Это лишь собрание рассказов, разбросанных поэтических и проза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цель которого разогнать скуку. Поэтому в конце книги я полистал даже не

сколько рассказов о странном и чудесном,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тем, кто устанет от научных занятий, отдохнуть, развлечься». Об этом же писал и Сон Хён - крупнейший автор *пхэсоль* XV в.: «Хот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мой труд и невелик, однако он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правляться о делах прошлого и разогнать скуку». При такой целевой установке автором *пхэсоль* был необходим интересный фабульный материал, который они нашли в устном народном творчестве. Первые записи фолькло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были сделаны еще в период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IV-VIII

<sup>1</sup> Цит. по: «Мунхак ёнгу», 1961, № 2, стр.50.

<sup>2</sup> Там же, стр.50.

<sup>3</sup> Цит. по: «Мунхак ёнгу», 1961, № 2, стр.52.

<sup>4</sup> См.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не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рий Кореи», т. 1, стр.22.

вв.), хотя они в т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не носили обособл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а включались в исторические хроники в качеств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а иногда и основ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т.е. они сосуществовали с историографией. Затем, очевидно, начался процесс отделения фольклор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т официальн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появление в IX в. сборника «Удивительные предания Силла». Однако наибольшую интенсивность этот процесс приобретает в период Коре (X-XIV вв.) — время возникновения литературы *пхэсоль*, хотя и официальн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продолжа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фольклор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Но у авторов *пхэсоль* и у 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риографов были разные цели: одних интересовала в фольклоре фабул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ценность, других — факты. И те и другие обрабатывали фолькло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воими задачами: историки ставили в определенные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рамки и втискивали в летопись, литераторы — дорабатывали идей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 превращ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материал литературный.

Если взять, например, упоминавшиеся выше новеллы «Глупый зять», «Два брата», «Служки дурачат монахов» и сопоставить их с новеллами «Судьба Чин Бок», «Студент Чхэ и дьявольский соблазн»<sup>2</sup>, «Если бамбук твой», то можно обнаружить, что это совершенно различные явления. В первой группе новелл мы найдем: а) чрезвычайно популярную исконно народную тематику,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ую и в мировом фольклоре; б) весьма слабо разработанные сюжеты, которые по характеру своему являются скорее короткими сериями анекдотов об одном — двух персонажах и имеют довольно неустойчивую фабульную связь; в) персонажей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з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г) отсутствие собственных имён; д) отсутствие специфически литературных выражений и оборотов речи.

Судя по этим особенностям,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творчество Сон Хёна, автора сборника «Гроздь рассказов Ёнджа», свелось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к

<sup>1</sup> См.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т.2, стр.78.

<sup>2</sup> См. «Избранные собрание неофициальных историй Кореи», т.3, стр.130.

<sup>3</sup> См.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т.2, стр.546.



тематической подборке этих новелл-анекдотов, связанных единими персонажами, и, вероятно, к композиционному расположению материала. Произведения эти в основе своей сохраняют фольклорный характер, хотя, строго говоря, их нельзя уже считать 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вершенно иное явление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вторая группа новелл. Здесь мы обнаружим: а) менее популярные сюжеты о обладающие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ьшей степенью развития; б) героя - реальн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личность с собственным именем, нередко принадлежащую к высшему сословию; в) иногда - стихи в различных китайских жанрах; г)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и стилистическ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В тех же случаях, когда авторы поздних *пхэсоль* имеют дело с несомненно фольклор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они нередко по-своему их трактуют, вплоть до полного переосмысления<sup>1</sup>. Переработка фолькло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собенно заметна там, где разные авторы обращаются к одному и тому же сюжету<sup>2</sup>.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и такой литературный прием, как введение эпилога, в котором автор выражает свое соб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герою, дает оценку тем или иным событиям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sup>1</sup> См. новеллы «Сачхонгам и злая фея» (в сб.: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т.], стр.137) и «Лисий

перевал» (там же, т.2, стр.136).

<sup>2</sup> См. новеллы «Пес Ким ГэИна» (в сб.: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хэсоль», т.1, стр.119)

и «Верный пес

стережет тело хозяина» (там же, т.2, стр.249); «Предание о храме Чхонгванса» (там же, т.1, стр.84) и

«Решительный поступок Хван Су Сина» (там же, т.2, стр.141).

---

# LIFE PHILOSOPHY

## in A. Kim's story "Nightingale echo"

Nina Chikulina

Anatoly Kim writes in his story "Nightingale Echo": "A life of one person is just one line in a book of a humankind". People's lives are determined by their psychology, mentality, appreciation of life. Looking deep into the philosophy of human lives the writer states that "a common thing between them is a heavenly spherical mirror that reflects everything including past and future".

Similar views are present in Asad Dilmuradov's story "Mysterious steps". The title of the story is symbolic. Steps that Sherali is climbing after his grave illness symbolize steps that Eastern scientists ascended through centuries elevating the level of science. These were Avicenna, Nizami, Aruzi, Samarkandi. Significance of discoveries in medicine is without a doubt.

In the story "Nightingale echo" a picture of death approaching is depicted. Death is approaching a Korean girl. None of girls' relatives hopes for her recovery. But unimaginary happens. The girl felt a smell of a freshly cooked coffee and asked for coffee to be brought to her. A German boy prepares coffee for her. Hot black coffee is poured into a white china cup symbolizing a life force that will help a girl to recover. A key phrase appears in the text: "and I have agreed to live for you". An instantaneous feeling of love saves the heroine from death. Kim defines pathways of life of two characters, they will travel through life together after the wedding.

Sherali, main character of Dilmuradov's story "Mysterious steps" is also facing death. He infected himself with askarids to conduct a scientific experiment. Choice of colours in the story represents life and death. Green leaves of trees are the colour of life, white tables, walls in the hospital are the colour of death. Three dimensional realities are similar in the two stories. Authors create a situation of risk when death is possible but will not happen.

An internal condition of a man allows him to control his life possibilities. It is in human spirit that the strength lies. A human being can realise anything that he desires.

Kim depicts how the girls' father takes in the reality around him: "he saw his daughter's face on the pillow, it was waxing just like receding crescent of a moon in the morning's sky".

Kim uses the technique of a third person observer who cannot interfere and help. Father only looks at his daughter. He sees the outside. Internal life potential is suppressed but death has not stepped into

---

---

its rights yet. In "Mysterious steps" the author relays the internal condition of a character through his perceptions: "no he has a feeling that his arms and legs are locked in heavy chains".

Author's use of objects is natural as humans exist among objects. Kim is often using key phrases focusing the attention on an important moment. He states: "as it is known the Koreans are black haired by their nature". Mystical perception of black colour is presented by the author through the eyes of main character. The young man shuddered: "he imagined that this shiny strong cascade of hair was not a natural attribute of female beauty but some black animal that attached itself to a translucent face of a young girl". The image of a black animal exists in young man's imagination only. It is said that the young man had bright red hair. There are no further explanations of the significance of this colour but one can assume that bright red colour takes victory over black. Young man falls in love with a girl and their lives become intertwined.

A heroine of "Mysterious steps" Dilbar represents life and her clothes reflects this, "she was in a silk dress with unbuttoned red jacket". The author depicts his heroine in a flood of sun rays. Dilbar suggests that Sherali and her drink medicine together. Her suggestion gives assurance to a young scientist.

Characters' lives reflect philosophical discussion in the book ("Mysterious steps"). Omar Khayam, following Avicenna, developed his famous theory about intersecting parallel life lines. It is obvious that the authors follow life line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cosmos. In Omar Khayam poems Nightingale is an image of love, in Kim's story it is a philosophical category.

"Threshold of life is death. Death will illuminate a sober thought". Such philosophical thesis is given in Kim's "Nightingale echo". Such thesis can be found in Agzamov's story "Reply". Life has brought main character Elchiev to a suicide attempt. Rescued from death's claws he re-evaluates his life. Kim's character, Otto Meisner, is a philosopher and perceives life through his philosophical discussions. War is being perceived in a following way: "here is life marching in front of you in rows in order to unavoidably come to death!" having realised futility of war actions the main character commits suicide. A tone of disapproval of character's action is apparent: "to leave wife with son amongst war activities".

The flow of time scattered people's lives around. Korean Olga found support in Russian woman Nadya. The author describes Nadya's actions as a "faceless kindness". Narratives about creativity are new in Kim's work. He calls human life an act of creativity. Nadya's father grew potatoes, fish. Potatoes and fish saved Olga and her children from starvation. That means that he was a creator of wellbeing in the family. The author states that a man does not think about the philosophy of his life being submerged into everyday chores. "It never occurred to her that she was creating, matching dreams and reality - by marrying a fairytale prince, by following him to the end of the world, by giving birth to his children and, having lost him, by returning to a native village after fifteen years. With her return Olga somehow completed her creation, displayed it in front of the whole world in its uniqueness and difference".

---

Thus, creativity is not only creation of a sculpture, picture, music but of an everyday life as well. Life itself is a creation. There is a question in the story :is a human being creator of his own destiny or is he a subject of fate? One thing is clear and it is that the meaning of life is in creation of good. There is a saying in the East that a man without goodness is like a dried up tree.

Anatoly Kim uses Gothic reminiscences, creating a tonality of the story. The hero comes to Amur at rainy dark night. 《Anybody has not gone any more on a quay》, – the author marks. The description of the nature plays the certain role. Otto is standing alone on the river bank, there is a torrential rain, 《the foliage is poured by emerald light》. Only details characterize the meeting people. The old man was in a wet white jacket, with convex cheekbones, goatee. The old woman in the tucked skirt, not tall strong teenager. Yellow lanterns of the meeting people were dissected the darkness. The heroes were going by low individual reliure of yellow window sash. They were going silently and have entered a gate, lost in darkness. The interior is given through a prism of Otto's perception: the room was almost empty, except of cane mats, covered entirely a floor, and quilts laid in a corner.

A. Kim is marked, that the owner, meeting the visitor, talking with him, reading the letter, resorts to national traditions of Koreans (has bent down in bow a head, moving back, has left).

Gothic reminiscences cause a feeling of vigilance and alarm. The nature and the person are interconnected. Otto looks at a bush and feels, that has plunged into secret of space, in space night. In the house there is own night life, its inhabitants do not sleep, but the hero is not remote from their world yet. A difference of heroes is in their clothes, manners. The German dresses a striped Bukhara dressing gown. The clothes of the Korean woman consist of a long skirt, a short jacket, with long sleeves. The woman silently paces the room, displaying blankets, and has never lifted eyes on the visitor. She is put on textile fabric shoes, is smoothly brushed. Accuracy and cleanliness are underlined by a detail: a copper pan, polished up to shine.

Motives of accident and appropriateness are researched in the story. The hero has casually appeared in such situation in unfamiliar Korean family. He goes by the order of the grandfather, transfers the letter from a merchant, and finds his wife in this house. A game of accident which has passed in internal necessity happened in his life. Two weeks Otto had been staying with a merchant?korean. The girl was getting better. In the text there is a description of the nature, warmed by the sun, the description of may morning, awakening of the nature, awakening of feeling of love is symbolized by the nightingale trills.

Korean customs became an obstacles, and the girl is solved to run away with a young man. The story is constructed on linking the events of the present and the past of heroes that is caused by the philosophical reasoning of the author. Olga's senior sister has told, as a spell, that she would necessarily return to Koreans, and it has happened. The sister died in Kazakhstan. She died silently, having kept on the face the same unsociable and gloomy expression, and Olga gray?haired returned

with two sons to the village.

Continuation of a family is in children. They are externally similar to their ancestors, the heredity is shown in descendants. The rain will rustle in the nature, there will be a may warm evening, nightingales will still singing.

The attention is given to the images of old men in the story. Otto Meisner was brought up by the grandfather, Fridrix Meisner. He sent the grandson to the Far East by the trading affairs. Otto Meisner's grandsons read records of their grandfather in order to get acquainted better with his life. Probably, Otto Meisner would remain in alive if in 1913 Fridrix Meisner had not yielded him so many tasks. In 1914 Otto Meisner was lost. Though the grandfather reverted to the grandson in the letter with words:” unique my child”. Interests of business had been put over feelings, and it led to the loss of the dear person. It seemed that the worldly wisdom life should preserve the life of the grandson. So the motive of vulnerability of the person from misfortunes and wars had been passing in the story. Olga and Otto were happy. The happiness for Olga had the certain sense because she was a bearer of another lives. Otto was devoted to the wife and his posterity. He put family interests over the omul extraction. He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grandfather of the following contents: 《Probably, I am already so old, that in my vital principles I display some stagnancy. But by virtue of this senile impenitence I continue to stand firmly on that the main thing for the person, first of all, is Business and Knowledge. The other is yielded in the form of the additional appendix of Destiny》. (497)

The grandson executed the order of the grandfather and has gone through Sayan Ridges to half?civilized Tuva. Olga has gone with the husband, with the child on hands. The author marks that it was necessary to overcome thousand versts of impassability. Such was their line of destiny and it is not available on a map for the others.

The heroes of A. Kim have different vital philosophy. Robbers from a gang 《a black cat》 live by the ideals of enrichment, kill and plunder. Muscovites participate in vital race. Some heroes are compared to bugs “firemen”. Their vital philosophy is consumption, enrichment.

The plotting of city vanity is shaded by a peat fire. Symbolical burning of the ground serves as the formula of an omen. The philosophy of life for Olga and Otto consists of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love. The person should leave about himself kind memory. The storyteller represents heroes. Dialogues in the story are met rarely. The storyteller tells about acts of heroes, and reader is to give an estimation. Philosophical reasoning of the author has not bear moralizing character.

---

### The literature

1. Kim A. Nightingale echo. / in col. “Fiber” – M., 2001. – pages 491, 492, 495, 473, 472, 475, 542, 545, 530.
2. Dilmuradov A. Misterious steps. / in col. “Answer” – T., 1987. – pages 100, 90, 122.

# The Linguapoetic Peculiarities of the poetry of Vyacheslav Lee

Ma'rufjon Yuldashev

## ① It's beautiful when the memory wakes up...

Having taken into my hands a small book named 'The Petals of Time'<sup>1)</sup> by Vyacheslav Lee, for some reason I imagined a noble old man sitting at the window and watching the quite life outside. The room in my mind is dark and damp, as if it is filled with the smoke of tobacco. The dance of little specks of dust in the beam of the sun passed through the window revives the imagination still more. Watching the dance of specks the wise man dreams of immense space of childhood left far behind. The pictures sealed in the shrewd eyes of childhood are so variegated, that it didn't even leave aside the flowers of the gourd growing among the canes:

Ты помнишь	Do you remember
цветок тыквы	the flower of the gourd
над камышовой оградой?.	above the fence of the crane?.

The lightest, the clearest and the most memorable part of the childhood is the image of the kind mother pulling the water out of the well or the father leaving footprints on the path covered with white snow:

Опять из колодца	Again out of the well
мать достаёт воду.	mother is pulling the water.
О, моя звонкая память!	Oh, my clear memory!
Снегопад в январе	The snowfall in January
И вновь о тец идёт	And again father walking

1) Вячеслав Ли. Лепестки времени. – Ташкент: Ц ПИ Авло, 2000

По дороге воспоминаний.                      Along the way of memory.

Sometimes some voice is heard from the drowsy creations of your memory, you try to comprehend it, but it is useless, you can't even remember, and there is no chance to raze it from your memory. As if the voice troubling the poet soaked into the lines. It is familiar to you either, isn't it the voice you've been looking for a long time?

Чей же голос поёт,	Whose voice is singing,
такой знакомый,	so familiar,
над жизнью моею?	above the life of mine?

## ② Palm is the Note-book of Life

Palm is the most noticeable image in the creative work of the poet. In the emblematic the palm anthropomorphism is considered in the concepts of power, faithfulness, essence and the centre. 'It embodies the body of a man, two legs, two arms and a head.'<sup>2)</sup> From the attitude of the unity of fingers the notion of the centre, essence and close relationship are raised to the first place. The fingers position in the fist brings the meanings of the power, domination, and anger to the leading plan. In the creative work of V. Lee appears another peculiarity of the palm. Palm is like a note-book of life. Looking at it one can see the passed way. It is known from the practice of fortune-telling the palmistry has been considered as a strong and stable tradition. We can ascertain of this reading the poems of the poet. In his poetry palm is reflected in the connecting function. It is preached as a field connecting ancestors and generation. The three lined of the verse about the birth of the spring and the chance of watching ancestors in it informs about the Eastern symbolistical knowledge of the poet.

На ладонях дрожащих	On the trembling palms
искрился родник.	sparkled the spring.
И я предков увидел.	And I saw my ancestors.

Ог:	
Осенняя прохлада.	Autumn freshness.
Поднимаем чаши,	We raise our cups,

2) Mingboeva D. Тимсолла тилсими. – Tashkent, Янги аср авлоди, 2007, p-117.

ладонями согретые.                      warmed with palms.

The poet uses a palm not only as a part of the body but also to materialize the abstract concepts:

Божья коровка                      A ladybird is  
на ладони июня...                      on the palm of June...  
О, боже, боже!..                      Oh Lord, my God!..

The inner rhythm of this poem was skillfully connected with the words божья, боже, боже. The word 'божья' in the first line is a component of a derivative word. Twice noted word боже (God) is a subject of the exclamation and conversion. The important word for us here is the anthropomorphism of the palm. In the poem the palm is used not as a part of human, but as a part of the summer months: the palm of June. Children seeing a ladybird put it on the palms at once and saying a rhyme persuade it to fly up. They believe if it flies up from somebody's palm, it means that all his dreams come true. This tradition has a strong place in the children's folklore in many countries. Reading the word a ladybird in the previous poem a picture of a boy playing in the field and persuading a ladybird on his palm to fly up, arose before your eyes. This imagination gives an opportunity to describe other wider idea. The poet revives June with the help of a ladybird. He wants us to realize the nature as its palm. In this place one can take a palm as a symbol of the divine power and the endless mercy of Creator.

The poet describes in the image of a palm the everlasting burning bonfire of the childhood which keeps us warm from the terrible cold of loneliness by the following way:

Ладони старые грею                      I am warming my palms  
над костерком детства.                      over the bonfire of the childhood.  
О, мои ладони!..                      Oh, my palms!

The palm warmed by the fire suddenly reminds about another memory:

Как форель трепетала                      Like a trout quivered  
в горячих руках!                      in the hot hands!  
О, юность в апреле!                      Oh, youth in April!

If you noticed, youth is compared with a trout quivering between palms and trying to free itself. In the Eastern religious-mythological and poetic thought a fish is interpreted as a source of the hidden

moral essence and possibilities. The quivered, troubled trout in the hands of the lyric hero of the poet was described simultaneously with the stormy season of life. Thus, poet raises a fish as an image. The consonance between lines with the usage of words 'форель' and 'апрель' becomes clearer. April is the second month of the spring. Not March not May. There is regularity connected with the reality of life in the usage of April simultaneously with youth. Childhood ? youth ? old age. That is the middle of the life season, the second level.

### ③ The Nature in the Description of V. Lee

Nature is a great book reflected in divine order for the poet. The poet notes that it demands only some attention and kindness to read this book. There is no big or little theme for the nature. The ordinary man watching the ant try to pass over a barrier can consider it as a little mindless Creation. But the poet sees in his action firmness, brevity and resoluteness. While falling leaf seems to the simple man as an ordinary event of the nature, in the mind of the poet it embodies the longing 'heart' and can cause for the creation of a very beautiful poem. The famous poet from Dagestan Rasul Khamzatov said the following about it: 'Some people write on the great themes and think they are also themselves great writers. But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 great things are in the common things. The difference between the great man and a little man is that, the little man sees only big things; he doesn't see what is under his nose. The great man can see both big and little things and show it to people.' The themes of V. Lee in spite of the simple life description are valued with the waking great feelings. He stresses that one shouldn't write about nature but should describe it like an artist.

Каждое утро                      Every morning  
Кисть поднимаю.                      I raise my brush.  
Перед вечностью должен.                      I owe eternity!

The brush of the poet is familiar to all of us and they are simple words. He can draw unrepeated picture with these simple words. The author believes he can be related to the eternity by his landscapes.

The one moment condition of the young crane in the sky motivates the poet to write such poem:

Жу равлёнок в полёте                      The young crane in the flight  
пытается оглянуться,                      try to turn back,

Родину оставляя,                      Leaving his home.

In this extract the young bird leaving his nest in a figurative sense reminds about the image of an adult child leaving his parents home.

Мы были там,                      We were there,  
в цветах апрельских.              in the April flowers.  
Мы пили там...                      We drank there...

The used paronyms (были-пили) in the poetic lines carry not only consonance but also serve for describing unrepeated landscape of the beautiful moments spent in the nature. Rain and the rainy weather in the work of the poet has a special sense and included in the semantic images. Rain in the poetry serves as a reflection of the inner condition of a man in love. He interprets it as a cry of the sky. But in symbolistics rain is considered as a meeting of the sky and the Earth. This great meeting is the symbol of the harvest and abundance. The poet likes to walk in rainy weather without umbrella. It means the unity and wholeness with the rain.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весны,              Last day of the spring.  
Льет долгий дождь.                  Pouring long rain.  
Без зонтика гуляю.                  Without umbrella I am walking.

Generally a real creator never watches the rain and snow from the inside or behind the window. Being absorbed in the last rain of the spring V. Lee is looking for his untold poem as well. Even walking in the field, in the slope of the hill or mountain he looks for the unknown flower. He wants to find the undiscovered wonder of the nature. This search in itself is a real creation, poem. In this occasion one can't help agreeing with the following opinion of Rasul Khamzatov: 'Poem is not a flower growing in the flower garden or on the edge of the road where you can pick the one you like without searching. Poem is like a flower appeared in the places where none's foot stepped and the more you walk the more flowers you come across.'<sup>3)</sup>

Walking in the nature V. Lee wants to draw even the picture of the smell which struck him.

О, если бы я смог                      Oh, if I could have  
нарисовать его,                      drawn it,

3) Khamzatov R, Do-Vahidov E. Сайланам. 3rd volume page-383  
looking for the footprints left on the road and missing merry laughs.

запах осеннего поля!..              the smell of autumn field!

#### ④ The Philosophy of Seasons

In the old Celtic mythology the nature events were ruled by the god Dagda. He played the harp so skillfully that according his play nature changed its condition; the seasons were covered with colors expressed in the music of Dagda. The change of seasons signifies the movement of the world on the base of the space balance. The revolution in one uniform expresses the recurrence of the world process under the laws of evolution and involution.

The seasons in the poetry of V. Lee were created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colors of the inner conditions of the poet. The skill of the poet to brighten the feeling by the words can be seen in his absorbing the affection connected with seasons into lexical meaning of the words. You can be troubled about the gloomy weather during the leaf-fall when you read the poem about autumn, or you can shiver with cold when you read the poem describing the winter. Seasons are pictured against background of the memory. That's why you can often see a hero,

В дымке осеннего                      In the smoke of autumn  
Слышу нежный зов.                  I hear a kind call  
Ах, не моя ли юность?!              Oh, isn't it my youth?!

You can watch an interesting condition in the poems about seasons of the poet. That's it, the first and the third line has the same formation or the first line is repeated. This repetition is called vertical and distant repeti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of the linguapoetic interpretation:

Права была весна.                      Spring was right.  
А я её жалел.                          But I was sorry for her.  
Права была весна...                      Spring was right...

And:  
Мы? облака  
Над веснами и зимами.  
Мы? облака... We are clouds  
Above springs and winters.  
We are clouds... We think, it was not chosen without purpose. It has a hint at the repetition, cyclic

moment of seasons, life and nature phenomenon.

## 5 The Kayagim in the Reflection of Sounds

Although the poems of Vyacheslav Lee are small in the volume, they are considered very rich and deep in the impressiveness and the volume of idea. It is not important how many poems wrote the poet, but what he wrote. He has no reader if he says little good, but writes about it too much in a lot of books. As the philosopher V. Alimasov said: 'The wisdom is not writing volumes of books, it doesn't surprise anybody, but including all these volumes into one line.' The brevity in the poems of V. Lee is characterized by promising you wide possibilities. Not without purpose they say, the idea begins where the word finishes. The brief poems of the poet in themselves remind the poetic form with distinctive features of the Far East people. The intonation of the poem in the accompaniment to the words used in it unwillingly remind the sounds of the Korean national musical instrument kayagim, bring the light into the hearts, wake the mind, call a man to argue with himself about: history, faith, love, nature and generally about keeping awake.

В слове ОМОНИ	In the word OMONI
три слога безмерных.	Three boundless syllables.
Один из поздних уроков.	One of the latest lessons.

Omoni is a Korean word Mother. In phonosemantics the grapheme 'o' as a creation of wideness, strength, the image of the beginning and eternity are established. The dominant sound in the word omoni is 'o', and this sound is the hole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microcosm and macrocosm, and create an illusion of the circle connecting them to each other. Virtually mother is a creator,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pronunciation we can notice that the open syllables give this word a special melodiousness. The letter describing the sound in the circle shape is connected with the view about the squaring the circle. 'Squaring the circle is the metaphor of the man's approaching to the divine being, changing his relative nature to the absolute nature, striving for the top of the soul. Dante tried to explain the calculation of the squaring circle by comparing it with humanitarian and divine nature of Jesus.'<sup>4)</sup> Circle as a symbol of infinity and perfection reflects the continuation of the life. The sound cover of the word Omoni motivates this perfection. About the existence of motivation in the sounds in linguistics A.P. Juravlev, I.Cherepanova, V. Shalak, G. Sattorov, L. Fatikhova,

4) Mingboeva D. Тимсолла тилсини. - Tashkent: Янги аравлош, 2007, p. -121.

Z.Kabilova and others made special researches. In the story named 'Duel' by A.I. Kuprin was noted an event connected with the motivation in the sounds. There was an argument between the heroes of the work. The motivation for the discussion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German word 'unser' (our):

-Do you know, 'unser' is something very high, something thin with a sting? Something like a long and lean insect and of course very wicked.

-Unser?— Shura raised her head...— no, wait, it is something green and sharp.

Yes, of course, it is an insect! Like a grasshopper but more disgusting and wicked.

The view appeared in the imagination of the heroes because of this word were similar to each other. Long, thin, green, bitter, sharp, disgusting and wicked. The heroes didn't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But they tried to realize the illusion appeared by the cover of its sound. In Russian the sound 'з' from the phonosemantic condition is considered as disgusting, shrill, thin and sharp.<sup>5)</sup>

The words as satkat (a hat from the reed); ondol (the heated floor); kermek (field) used in the poems of V. Lee embody motives connected with the style of Korean life:

Один взмах крыла	One flap of the wing
до жгучего лета	till the hot summer
Саткат подлатаю старый.	I patch up my satkat.
Свет законный.	The light over the window.
Взгляд материнский.	The glance of a Mother.
Ондоль детства.	The ondol of childhood.
Под этими облаками	Under these clouds
мы всегда равны-	we are always equal-
я и кермек безмолвный.	I and kermek are mute.

The poet doesn't try to use poetic means by force in his poems; some of the words in it very naturally describe the poetic images in the imagination of the reader. The poetic manner of V. Lee is very limited for description of the mind.

But 'the real power of the talent is that, he can show his unlimited descriptive opportunities in the limited condition.'<sup>6)</sup> The reader meeting with the work of V. Lee can be sure that he is a master of such talent. In the heart of the man who reads his poems appears the feeling of calmness and importance. It forms the feeling to be calm and great in front of different games of life. The described pictures, the drawings about non-existence and eternity will stay in front of your eyes forever. If there was a demand to describe the poet briefly, I would call him Korea in Uzbekistan.